아르센 뤼팽, 괴도신사

Arsène Lupin, gentleman-cambrioleur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07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6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Arsène Lupin, gentleman-cambrioleur » (1907)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Arsène Lupin gentleman-cambrioleur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6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르센 뤼팽의 체포

놀라운 여정이었다. 그런데도 출발은 그토록 완벽했다. 내 기억에 없던 일이다. 그보다 더 좋은 징조로 시작해 본 적이.

프로방스 호는 빠르고 안락한 대서양 여객선이었다. 선장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남자였다. 가장 엄선된 상류층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인연이 맺어지고, 오락거리가 준비되었다. 우리는 마치 알려지지 않은 섬에 갇힌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롯이 우리 자신만 남았다는, 그야말로 절묘한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가까워졌다…

당신은 이런 기이한 집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젯날까지만 해도 서로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며칠 동안 무한한 하늘과 광활한 바다 사이에서 가장 밀착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함께 대양의 분노에 맞서고, 파도가 몰아치는 섬뜩한 공격을 견디며, 폭풍의 악의와 잠든 물의 음흉한 고요함까지도 함께 마주한다.

그것은 결국 비극적으로 압축된 한 형태로서의 삶 그 자체다. 폭풍과 위대함, 단조로움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삶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시작되는 순간 이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짧은 여행을 열정적인 조급함과 더 깊은 쾌락으로 음미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 항해의 설렘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우리가 이미 벗어났다고 믿었던 그 세계와, 이 작은 떠다니는 섬 사이에는 여전히 연결고리가 남아 있었다.

그 끈은 대양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느리게 풀리고, 다시 대양 한가운데서 느리게 이어진다.

무선 전신!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부터의 호출이었다.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더 이상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미끄러져 지나가는 철사 가닥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이 미스터리는 더욱 깊고, 더욱 시적이다.

이 새로운 기적을 설명하려면, 바람의 날개를 빌려야 한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호위하며, 심지어 앞서가는 것 같았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때때로 우리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두 친구가 내게 말을 건넸고, 열 명, 스무 명의 다른 사람들이 공간을 건너 우리 모두에게 슬프거나 미소 띤 이별의 인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틀째 날, 프랑스 해안에서 오백 마일 떨어진 바다 위였다. 폭풍우 치는 오후, 무선 전신이 한 통의 전보를 전달했다. 내용은 이랬다.

"아르센 뤼팽, 당신들 배 안의 일등석. 금발, 오른쪽 팔에 상처. 홀로 여행 중. 이름은 R..."

그때, 어두운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기 신호가 끊어졌다. 전보의 나머지 내용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아르센 뤼팽이 숨어 있던 이름은, 첫 글자만 알 수 있었다.

만약 다른 소식이었다면, 전보국 직원들과 선박 사무장, 그리고 선장은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엄격한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다. 바로 그날,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 그 유명한 아르센 뤼팽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르센 뤼팽이 우리 곁에 나타났다!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신문에 그의 기사가 실렸던, 손에 잡히지 않는 도둑신사 말이다. 우리 최고의 경찰인 노경의 가니마르 형사와 치열한 죽기 살기의 대결을 벌여 왔던, 그 기묘한 인물도 바로 그였다.

그 대결의 파란만장한 전모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성곽과 살롱에서만 활동하는 기발한 신사, 아르센 뤼팽이었다. 어느 날 밤 쇼르만 남작의 저택에 침입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적힌 명함을 남기기도 했다.

"가구가 진품일 때 다시 오겠습니다. 아르센 뤼팽, 괴도신사."

천 가지 변장을 구사한 남자, 아르센 뤼팽. 그는 때로는 운전기사, 때로는 테너, 경마 중개인, 부잣집 아들, 청소년, 노인, 마르세유 출신 여행 세일즈맨, 러시아 의사, 스페인 투우사 등으로 변신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오. 아르센 뤼팽은 대서양 항해선이라는 비교적 좁은 공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수시로 마주치는 이 작은 일등석 구역, 즉 식당과 살롱, 흡연실 같은 곳에서 오가며 숨을 쉬고 있다는 거요. 아르센 뤼팽은 바로 이쪽 분일 수도 있고, 저쪽 분일 수도 있어. 내 식탁 옆에 앉은 그분일 수도 있고, 내 선실 동료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또 닷새, 백이십 시간이나 더 계속된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를 꼭 체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넬리 언더다운이 소리쳤다.

그녀가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자, 당드레지 씨. 선장과 사이가 좋다는 당신이라면 뭔가 아시는 게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세요?"

나는 넬리 양을 기쁘게 할 만한 이야기를 꼭 알고 싶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 아름다움도, 부도 모두를 압도했다. 그녀를 따르는 시종들도, 열렬한 추종자들도 많았다.

프랑스인 어머니 밑에서 파리에서 자란 넬리는, 시카고의 대부호인 아버지 언더다운과 합류하려는 길이었다. 그녀의 친구인 재랜드 부인이 동행하고 있었다.

나는 여행 시작과 함께 곧장 그녀에게 구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짧은 여행이라는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매력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큰 검은 눈이 나의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가벼운 연애 상대에게 느낄 법한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흥분으로 떨려 왔다.

그녀는 나의 구애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듯했다. 내 재담에 웃어주고, 나의 일화에 관심을 보이는 식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보인 열의에 비례해, 그녀로부터도 미약하지만 확실한 호응이 돌아오고 있었다.

다만 한 명의 경쟁자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꽤 잘생기고 단정하며,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다. 그는 때때로 나의 파리지앵 특유의 과감하고 외향적인 태도보다, 자신의 과묵한 태도를 그녀가 더 선호하는 듯 보였다.

그때 마침 넬리 양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를 둘러싼 찬탄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나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갑판에 앉아 흔들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어제 밤의 폭풍은 하늘을 깨끗이 씻어냈고, 이 시간은 정말로 달콤했다.

"저는 정확한 사실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양."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르센 뤼팽의 원수인 늙은 가니마르 형사가 하는 것과 똑같이요?"

"오, 오! 당신은 너무 앞서 나갑니다."

"어디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나 복잡합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서요?"

"첫째, 뤼팽은 'R 씨'라는 가명을 사용합니다."

"신원 확인용 설명으로는 다소 모호하군요."

"둘째, 그는 혼자 여행합니다."

"그런 특징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금발이야."

"그래서?"

"그럼 승객 명단을 대조해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 되지."

나는 주머니에서 명단을 꺼내 훑어보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 눈길을 끌 만한 인물이 열세 명뿐이라는 걸 확인했어."

"열세 명뿐이라고?"

"일등석에는 그렇군. 이 열세 명의 'R'씨 중 아홉 명은 아내나 아이, 하인을 동반하고 있어. 남은 건 네 명뿐이야. 라베르단 후작……."

"대사관 서기관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죠." 넬리 양이 끼어들었다.

"로우손 소령……."

"내 삼촌이십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리볼타 씨……."

"저요!" 우리 중 한 명이 외쳤다. 그는 얼굴 전체를 짙은 검은 수염으로 가린 이탈리아인이었다.

넬리 양은 폭소를 터뜨렸다.

"선생님은 금발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목록 맨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 말입니까?"

"로자느 씨 말입니다. 로자느 씨를 아는 분이 계신가요?"

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넬리 양이 조용히 앉아 있던 젊은이를 향해 말을 건넸다. 그 젊은이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에 나는 조금 속이 상했다.

"로자느 씨, 대답이 없으십니까?"

모두가 그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금발이었다.

부인할 수 없다.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를 짓누르던 어색한 침묵은, 다른 참석자들도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반응이었다. 그분의 행동을 보면 전혀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음, 내 이름과 혼자 여행하는 신사라는 점, 그리고 머리색까지 겹쳐서 이미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 결론도 똑같았어. 그러니 나를 체포하는 게 좋겠어."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이 묘했다. 두 개의 완고한 선처럼 가느다란 입술이 더욱 얇아지며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물론 농담이었을 테다. 하지만 그의 얼굴과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넬리 양은 순진하게 물었다.

"하지만 다친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가 말했다. "상처는 없군요."

그는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커프스를 걷어 팔을 내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내 시선이 넬리 양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가 보여준 팔은 왼쪽 팔이었다.

"정말 그 점을 분명히 짚고자 했소.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우리 시선을 돌렸죠."

제럴드 부인이 달려왔다. 넬리의 친구였다.

그녀는 심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녀에게로 몰려들었고, 간신히 말을 잇게 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보석들이요, 진주 목걸이가요! 다 가져갔어요!"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더 기이한 점은, 도둑이 무언가를 골라 가져갔다는 사실이었다.

다이아몬드 별장식, 카보션 루비 펜던트, 부러진 목걸이와 팔찌들. 가장 큰 보석들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귀중한 보석들이 사라졌다. 말하자면, 가장 가치가 높으면서도 가장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보석들이었다. 금속 틀들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도 보았고,

우리 모두가 보았다. 반짝이고 화려한 꽃잎을 모두 뜯어낸 꽃처럼, 보석이 벗겨진 채였다.

이 일을 해내려면, 제럴드 부인이 차를 마시는 한 시간 동안,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선실 문을 부수고, 모자 상자 깊숙이 일부러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찾아내, 그것을 열고 보석을 골라야 했다.

우리는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다. 도난 사건이 알려지자 승객들의 의견은 하나였다. '아르센 뤼팽이다.'

사실 그의 수법이 맞았다.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다. 보석 더미 전체를 숨기기는 쉽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진주나 에메랄드, 사파이어처럼 작은 물건들은 숨기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로자인의 양옆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가 선장에게 소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체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 안도했다.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게임을 했고 춤도 추었다. 특히 넬리 양은 놀라울 정도로 신이 나서 웃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로자인의 구애가 처음에는 그녀에게 통했을지라도 이제 그녀는 그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우아함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고요한 달빛 아래서 나는 그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고백했다. 내 감정이 그녀에게 불쾌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 날, 모두의 놀람 속에 소식이 전해졌다. 로자인은 혐의 증거가 불충분해 석방된 것이다.

그는 보르도의 저명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갖춰진 서류를 내보였다. 게다가 그의 팔에는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

"서류라고! 출생 증명서라고!" 로자인의 적들이 외쳤다. "그딴 거야 아르센 뤼팽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 줄 텐데! 상처로 말하자면, 애초에 입지 않았거나 흔적을 지워 버린 거겠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난이 일어난 시각에 로자인은 — 이미 입증된 사실이지만 — 갑판을 거닐고 있었다고 반박하자, 적들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아르센 뤼팽쯤 되는 자가 자기가 저지르는 도둑질 현장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소?"

게다가 다른 모든 점을 제쳐 두더라도,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트집 잡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로자인 말고 누가 혼자 여행하면서, 금발이고, R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졌단 말인가? 그 전보가 가리킨 사람이 로자인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점심 식사 몇 분 전, 로자인이 대담하게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넬리 양과 제럴드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했다.

분명히 두려움이었다.

한 시간 뒤, 손으로 쓴 공고문이 배 안을 돌았다. 승무원과 선원들, 그리고 모든 등급의 승객들 사이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루이 로자인은 아르센 뤼팽의 정체를 밝혀내거나 도난당한 보석을 가진 자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만 프랑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그 도적에게 맞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직접 그 녀석을 처리하겠소." 로자인이 선장에게 한 말이었다.

로자인 대 아르센 뤼팽. 아니, 떠도는 말마따나 '아르센 뤼팽 대 아르센 뤼팽'. 이 대결은 자못 흥미로웠다.

그 대결은 이틀이나 이어졌다. 로자인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직원들 틈에 섞여 이것저것 캐묻고 구석구석 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밤이 되면 그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며 배를 배회하는 것도 목격되었다.

한편 선장도 누구보다 정력적으로 움직였다. 프로방스 호는 위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수색되었다. 모든 선실이 예외 없이 수색당했는데, 물건이 범인의 선실만 빼고 어디에든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지극히 타당한 구실에서였다.

"결국 뭐라도 찾아내겠죠?" 넬리 양이 나에게 물었다. "아무리 마법사라 해도,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갑자기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니, 할 수 있죠." 내가 대답했다. "아니라면, 우리는 모자 속이나 재킷 안감, 그리고 우리가 몸에 지닌 모든 것을 다 뒤져야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내 코닥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9×12 사이즈의 그 카메라로 나는 넬리를 온갖 자세로 찍는 일을 멈출 줄 몰랐다.

"이것만 한 작은 카메라에도 제럴드 부인의 보석을 전부 넣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진을 찍는 척하면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는 도둑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도둑이 한 명 있죠. 아르센 뤼팽입니다."

"왜요?"

"왜냐고요? 그는 자기가 저지르는 도둑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정황까지 생각하기 때문이죠."

"처음엔 더 자신 있어 보이던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직접 그자의 수법을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사실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혹은 성과가 있었다 해도, 그 결과는 모두의 노력과는 영 딴판이었다. 선장의 시계가 도난당한 것이다.

격분한 선장은 더욱 열을 올려, 여러 차례 면담했던 로자인을 한층 더 철저히 감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묘한 아이러니로, 그 시계는 부선장의 탈부착식 옷깃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은 아르센 뤼팽 특유의 유머 감각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는 분명 도둑이었지만, 동시에 취미로 즐기는 호사가이기도 했다.

그는 물론 취향과 천직에 따라 일했지만, 동시에 재미로 행동하기도 했다. 마치 자신이 무대에 올린 연극을 즐기면서, 무대 뒤에서 자신이 고안한 재치 있는 대사와 상황들에 배꼽을 잡고 웃는 신사 같았다.

확실히 그는 그 나름의 예술가였다. 나는 어둡고 완고한 로자인을 바라보며, 이 묘한 인물이 아마도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으리라 생각할 때면, 일종의 존경심 없이는 그를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전날 밤, 당직 장교가 갑판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신음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가가 보았다.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머리는 매우 두꺼운 회색 스카프로 감싸여 있었고, 손목은 가는 끈으로 묶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묶인 끈에서 풀어 주었다.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정성껏 보살폈다.

그 남자는 로자인이었다.

자신의 탐색 활동 중 한 번에 습격을 당해 쓰러지고 털린 로자인이었다. 그의 옷에 핀으로 고정된 명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아르센 뤼팽, 로자인 씨의 만 프랑을 감사히 받습니다."

사실, 도둑맞은 지갑에는 천 프랑짜리 지폐 스무 장이 들어 있었다.

물론 사람들은 불쌍한 로자인이 자기를 상대로 한 그 습격을 꾸며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묶을 수 있었을 리 없었고, 게다가 명함의 글씨가 로자인의 필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 밝혀졌다. 오히려 그 글씨는 배 안에서 발견된 옛 신문에 실린 아르센 뤼팽의 필적과 헷갈릴 만큼 닮아 있었다.

따라서 로자인은 더 이상 아르센 뤼팽이 아니었다. 로자인은 그저 보르도 상인의 아들 로자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아르센 뤼팽의 존재는 다시 한 번, 그것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로 확인되었던가!

공포가 엄습했다. 이제 아무도 선실에 혼자 남으려 하지 않았고, 너무 외딴곳을 혼자 거니는 일도 꺼렸다.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들끼리 조심스럽게 무리를 지었다. 그러면서도 본능적인 불신이 가장 가까운 사이마저 갈라놓았다. 위협이 감시받는, 그래서 오히려 덜 위험한 한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르센 뤼팽은… 바로 '모든 사람'이었다. 잔뜩 흥분한 우리의 상상력은 그에게 기

적적이고 무한한 힘을 부여했다. 그는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장할 수 있고, 존경받는 로슨 소령이 되었다가, 고귀한 라베르당 후작이 되었다가, 심지어는 — 사람들은 이제 혐의를 가리키던 머리글자 R에 조차 얽매이지 않았으므로 — 아내와 아이와 하인을 둔, 누구나 아는 이런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졌다.

첫 무선 전신은 아무 소식도 전해 주지 않았다. 적어도 선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런 침묵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우리는 불행이 닥칠까 봐 긴장된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단순한 폭행도 아니었다. 이건 범죄다. 살인이다.

아르센 뤼팽이 그 두 가지 하찮은 절도 사건으로 그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배의 절대적 주인이었다. 당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였다. 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재산도, 생명도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이 시간들은 나에게는 정말로 달콤했다. 고백하자면, 이 시간 덕분에 넬리 양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건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미 불안한 성향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곁에서 보호와 안식을 찾았다. 나는 기꺼이 그녀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 주었다.

사실 나는 아르센 뤼팽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 준 것이 아니던가? 그를 통해 나는 가장 아름다운 꿈들을 꾸어도 된다는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던가? 사랑의 꿈, 그리고 덜 공상적인 꿈들. 왜 그 사실을 숨기겠는가?

안드레지 가문은 푸아투 지방의 명문이다. 하지만 가문의 문장은 다소 빛이 바랬다. 귀족으로서 잃어버린 가문의 명성을 되찾으려 꿈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꿈이 넬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 짓는 눈빛이 그 꿈을 꾸어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나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난간에 기댄 채 서로 가까이 서 있었다. 미국 대륙의 해안선이 우리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수색은 중단되었다. 모두가 기다렸다. 일등실 승객부터 이민자들이 북적이는 하층 갑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르센 뤼팽은 대체 누구인가? 그 유명한 아르센 뤼팽은 어떤 이름, 어떤 가면을 쓰고 숨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왔다. 비록 내가 백 년을 산다 해도, 그 순간의 가장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잊지 못할 것이다.

"넬리 양, 얼굴이 많이 창백하시네요."

내 옆에 기대어 쓰러질 듯 위태로운 넬리에게 내가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집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그리고 당신 곁에서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의 기억 속에 가끔은 내 모습이 남아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넬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숨이 가쁘고 열이 오른 듯했다.

그때 선내를 잇는 이동 통로가 내려졌다.

우리가 그 통로를 자유롭게 건너가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배로 올라오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이었고, 제복을 입은 사나이들이며, 우편배달부였다.

넬리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항해 중에 아르센 뤼팽이 탈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치욕보다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체포되느니 차라리 대서양에 몸을 던지는 편이 낫다고 여겼겠죠."

"농담하지 마세요."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그녀가 까닭을 묻자 나는 말했다.

"저기 통로 끝에 서 있는 저 자그마한 노인 보이시나요?"

"우산을 들고 올리브빛 프록코트를 입은 사람요?"

"가니마르입니다."

"가니마르?"

"네, 유명한 형사죠. 아르센 뤼팽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체포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요. 아,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서 소식이 끊긴 이유를 알겠네요. 가니마르가 바로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일을 남이 간섭하는 걸 영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르센 뤼팽은 잡히는 게 확실한가요?"

"모르죠. 가니마르는 뤼팽을 분장하고 변장한 모습으로만 봐왔다고 하니까요. 가명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아!" 그녀가 말했다. 여자 특유의, 조금은 잔인한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였다. "체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잠시 기다립시다. 아르센 뤼팽은 이미 자신의 적수가 와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노인의 눈이 지칠 때쯤, 맨 마지막에야 배에서 내리려 할 거예요."

하선이 시작되었다. 우산을 짚은 채 무심한 표정의 가니마르는 두 난간 사이로 빽빽이 몰려드는 군중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던 선박의 장교 한 명이 가끔씩 그에게 무언가를 알려 주는 것이 눈에 띄었다.

라베르단 후작, 로우슨 소령, 이탈리아인 리볼타가 지나갔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때 로자네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불쌍한 로자네! 그는 자신이 겪은 불운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래도 어쩌면 저 사람일지도 몰라요." 넬리 양이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한 장에 가니마르와 로자네를 함께 담으면 아주 흥미로울 텐데요. 제 카메라를 가져가세요. 제가 짐이 너무 많아서요."

나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건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로자네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교가 가니마르의 귀에 대고 몸을 숙여 속삭였고, 가니마르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을 뿐이며, 로자네는 그대로 지나쳐 갔다.

그때였다. 맙소사, 도대체 아르센 뤼팽은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대체 누구죠?"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이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하나씩 살피며, 정작 그가 이 스무 명 가운데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가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녀가 앞으로 나섰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우리는 열 걸음도 가지 못했다. 가니마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 길을 막아선 것이다.

"무슨 일이오?" 내가 외쳤다.

"잠시만요, 선생님.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이 아가씨를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잠시만요." 그가 더 위압적인 어조로 되풀이했다.

그는 나를 깊이 응시한 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르센 뤼팽이시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그냥 베르나르 드 안드레지일 뿐입니다."

"베르나르 드 안드레지는 3년 전 마케도니아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베르나르 드 안드레지가 죽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그의 서류입니다.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제가 기꺼이 설명해 드리죠."

"당신 미쳤군요! 아르센 뤼팽은 R이라는 이름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네, 또 한 번 속이셨군요.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미끼를 던지셨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친구. 하지만 이번엔 운이 따라주지 않아요. 자, 뤼팽, 당당하게 나오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갑자기 내 오른쪽 팔뚝을 세게 내리쳤다.

"아!"

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전보에서 언급했던,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정확히 때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넬리 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창백해져서 비틀거리며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마주쳤다가, 내가 건넨 코닥 카메라로 내려갔다.

그녀가 급하게 손을 움직였다. 나는 그녀가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느꼈다. 아니, 확신했다.

그렇다, 바로 그곳이었다. 검은 샤그린 가죽의 좁은 벽 사이, 가니마르가 나를 체포하기 직전에 내가 미리 그녀의 손에 쥐여 둔 그 작은 물건 속 깊숙한 곳. 바로 거기에 로자네의 이만 프랑과 제를란드 부인의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었다.

아, 나는 맹세한다. 그 엄숙한 순간, 가니마르와 그의 부하 두 명이 나를 에워쌀 때, 체포도 사람들의 적대감도,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래도 좋았다.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했다. 넬리 양이 내가 맡긴 물건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 결정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나를 옭아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두려워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문제는 그 증거를 넬리 양이 정말로 건네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할까? 파멸시킬까?

그녀는 용서하지 않는 적처럼 행동할까, 아니면 지난 일을 기억하는 여인으로서, 무심코 스며든 관용과 동정으로 조금은 누그러진 경멸을 보일까?

그녀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른 승객들과 뒤섞인 그녀는 손에 내 코닥 카메라를 든 채 이동 통로를 향해 걸어갔다.

분명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이리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한 시간 뒤, 아니 곧, 바로 그 순간에 증거를 건네겠지.

하지만 이동 통로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일부러 어색한 척하는 동작으로 카메라를 물속에, 부두 벽과 선체 옆면 사이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이내 내 시야에서 멀어졌다.

아름다운 실루엣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는 또다시 사라졌다. 끝이었다. 영원히 끝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슬픔과 달콤한 감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고, 이는 가니마르를 크게 놀라게 했다.

"아쉬워,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어느 겨울 밤, 아르센 뤼팽이 내게 자신의 체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내가 기록으로 남길 우연한 사건들이 그 뒤로 우리 사이에 인연을 맺어 주었다. 그것을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렇다, 나는 감히 믿는다. 아르센 뤼팽이 나를 친구로 여겨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때때로 예고 없이 내 집을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우정 때문이라고.

그는 내 서재의 고요함 속에, 젊은이다운 활기와 뜨거운 삶의 광채, 그리고 운명이 오직 호의와 미소만을 베풀어 온 남자의 명랑한 기운을 가져다준다.

그의 초상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릴 수 있을까? 나는 스무 번이나 아르센 뤼팽을 보았지만, 그때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존재이되, 스무 개의 거울이 저마다 다르게 비춰 보낸 왜곡된 이미지들 같았다. 각각의 이미지는 저마다 독특한 눈매와 특이한 얼굴 생김새, 고유한 몸짓, 그리고 제 나름의 실루엣과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 자신도,"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잘 모르겠소.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물론 농담이고 역설이다. 하지만 그를 만나면서도 그의 무한한 재주와 인내, 분장 기술, 얼굴 비율마저 바꿔 버리는 놀라운 능력, 심지어

이목구비가 서로 이루는 관계까지 변형시키는 그 기이한 재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이 엄연한 진실이다.

"왜 굳이 정해진 얼굴을 가져야 하겠소? 매번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피하면 될 일 아니오? 나의 행동만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는 충분히 드러나니까."

그는 자존심이 약간 묻어나는 말투로 덧붙였다.

"누가 '바로 아르센 뤼팽이다'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면, 그것이 더 좋소. 중요한 것은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뤼팽이 한 짓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오."

이제부터 내가 재구성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들과 모험들이다. 겨울밤, 내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뤼팽이 기꺼이 들려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말이다.

감옥에 갇힌 아르센 뤼팽

이름값 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센 강변을 잘 안다. 주미예즈의 폐허에서 생-완드리유의 폐허로 가는 길, 그곳에서 누구나 눈여겨본 풍경이 있다. 강 한가운데에 우뚝 선, 말라퀴의 기묘한 중세 성채 말이다.

그 성채는 암반 위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다리의 아치 하나가 성을 길과 이어준다. 어두운 첨탑의 밑동은 그것을 떠받치는 화강암과 한 몸이 되어 있다. 알 수 없는 어느 산에서 떨어져 나와, 무시무시한 지각변동으로 이곳에 내던져진 듯한 거대한 바위 덩어리다.

주변은 큰 강의 잔잔한 물이 갈대 사이로 일렁이고, 물가 자갈의 축축한 꼭대기에서는 할미새들이 파르르 떤다.

말라퀴의 이야기는 이름처럼 거칠고, 외양처럼 차갑다. 이곳은 오직 싸움과 포위, 습격과 약탈, 학살로 가득했다.

코도 지방 사람들은 이 곳에서 자행된 범죄들을 떠올릴 때면 오한이 일었다. 신비로운 전설들이 여기서 전해져 내려왔고, 한때 쥐미에즈 수도원과 샤를 7세의 아름다운 연인 아녜스 소렐의 저택으로 이어졌다는 유명한 지하 통로에 대한 이야기도 떠돌았다.

이곳은 옛날 영웅과 도적들이 모이던 곳이다. 지금 여기에는 나단 카혼 남작이 산다. 그는 예전에 '사탄 남작'이라 불렸다. 증권가에서 그는 너무도 급격하게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파산한 말라퀴의 영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택을, 빵 한 조각 값에라도 팔아야 했다. 결국 카혼 남작이 그 집을 사들인 것이다. 그는 그곳에 놀라운 가구와 그림, 도자기와 조각 목공예품 수집품을 들여놓았다.

그는 세 명의 늙은 하인과 함께 혼자 산다.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가 가진 세 점의 루벤스, 두 점의 와토, 장 구죵의 설교단, 그리고 공공 경매장에서 가장 부유한 단골들로부터 거액의 지폐를 쏟아부어 빼앗아 온 수많은 걸작들을, 그 고풍스러운 방들 안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탄 남작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다. 그는 끈질긴 열정과 감식가의 안목으로 모아들인 보물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안목이 어찌나 뛰어난지, 제아무리 약삭빠른 상인들도 그를 속여 넘겼다고 으스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골동품들을 사랑한다. 인색한 구두쇠처럼 악착같이, 연인처럼 질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

해가 질 때마다, 다리의 양쪽 끝과 안마당 입구를 지키는, 쇠로 둘러댄 네 개의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린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정적 속에서 전기 벨이 울려 퍼질 것이다. 센 강 쪽은 걱정할 게 없다. 그쪽은 바위가 깎아지른 듯 솟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9월 어느 금요일, 우편배달부가 평소처럼 교두보에 나타났다. 매일의 관례대로, 무거운 문짝을 살짝 열어젖힌 사람은 남작이었다.

그는 이미 수년간 알고 지내온, 상쾌한 표정과 장난기 어린 눈매를 지닌 이 농부 같은 사내가 누구인지 확인이라도 하듯,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저입니다, 남작님. 제 작업복과 모자를 입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사에 정해진 건 없지." 카혼이 중얼거렸다.

우편배달부는 그에게 신문 더미를 건넸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이제 남작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편지 하나…… 게다가 등기우편입니다."

외톨이로, 친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도 없던 남작은 평소 편지라곤 받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곧바로 그에게 불안해할 만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은둔해 사는 자신을 다시 들쑤시러 온 이 정체불명의 발신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서명하셔야 합니다, 남작님."

그는 투덜거리며 서명했다. 그러고는 편지를 받아 들고, 우편배달부가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몇 걸음 왔다 갔다 한 뒤, 다리 난간에 기대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격자무늬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위쪽에는 '파리 상테 감옥'이라는 글귀가 손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서명을 보았다. '아르센 뤼팽.' 그는 깜짝 놀라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두 살롱을 잇는 복도에 필립 드 샹파뉴의 그림이 하나 있더군요. 기교가 뛰어나고 제 취향에도 꼭 맞습니다. 루벤스 그림들도 마음에 들었고, 가장 작은 와토 작품도 좋았습니다.

오른쪽 방에는 루이 13세 양식의 찬장, 보베 타피스리, 자코브가 서명한 앙피르 양식의 작은 원탁, 그리고 르네상스 양식의 장식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 방에는 보석과 세밀화를 담은 진열장 전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번에는 이 물건들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분하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이 물건들을 알맞게 포장해서, 일주일 안에 운임 선불로 제 이름 앞으로 바티뇰역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9월 27일 수요일에서 28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제가 직접 그것들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에 적은 물건들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끼쳐 드린 작은 폐를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무엇보다 가장 큰 와토 작품은 보내지 마십시오. 경매장에서 삼만 프랑을 주고 사셨겠지만, 그것은 모사본일 뿐입니다. 원본은 총재정부 시절, 어느 흥청대던 밤에 바라스가 불태워 버렸으니까요. 가라의 미간행 회고록을 참고하십시오.

진위가 의심스러운 루이 15세 양식의 샤틀렌(장신구)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카혼 남작을 뒤흔들어 놓았다. 다른 사람의 서명이었다면 이미 그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겠지만, 하물며 아르센 뤼팽의 서명이라니!

그는 신문 독서가였다. 세상의 모든 도둑질과 범죄 소식에 정통했다. 따라서 악명 높은 괴도 뤼팽의 활약상도 그가 모르는 바가 없었다.

물론 그는 뤼팽이 미국에서 적수 가니마르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 재판이 얼마나 고된 과정이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뤼팽이 언제든 뜻밖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성의 구조와 그림, 가구의 배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정황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사소한 것까지 누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을까?

남작이 고개를 들어 말라퀴의 험상궂은 윤곽과, 가파른 받침 바위, 그 주위를 감도는 깊은 물을 바라보고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니, 확실히 위험은 없었다.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수집품이 잠든, 침범할 수 없는 성역에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래, 아무도 못 한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이라면? 아르센 뤼팽에게 문이나 도개교, 성벽 따위가 무슨 소용이랴? 그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아무리 교묘하게 고안한 장애물도, 아무리 빈틈없는 예방책도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날 저녁, 그는 루앙의 검사에게 편지를 썼다. 협박장을 함께 보내며 도움과 보호를 요청했다.

답장은 곧바로 왔다. 아르센 뤼팽은 현재 상테 감옥에 구금되어 철저히 감시받고 있어 편지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편지는 사기꾼의 장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논리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또 실제 사실관계로 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나친 신중함에서, 한 명의 필적 전문가에게 글씨를 감정하게 했다. 전문가는 몇 가지 유사점은 있으나 이 필적은 그 수감자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일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남작은 이 섬뜩한 세 마디만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 그 말에는 의혹을 시인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사법 당국이 개입하기에 충분했을 터였다.

남작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그는 편지를 거듭 읽고 또 읽었다.

"내가 직접 옮기는 일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정확한 날짜. 9월 27일 수요일에서 28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

의심 많고 말수가 적었던 그는 하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인들의 충성심이 어떤 시련에도 끄떡없으리라고는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의 나라 법정에 버림받은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는 파리로 가서 어느 퇴직 경찰관의 도움을 간청할 생각까지 했다.

이틀이 흘렀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신문을 읽다가 기쁨에 몸을 떨었다. <코드벡의 여명> 지에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실린 것이다.

"우리 고장에 사법경찰국의 베테랑 가운데 한 사람인 가니마르 수석 형사가 머문 지도 어느덧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최근의 쾌거인 아르센 뤼팽 체포로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친 가니마르 씨는, 오랜 피로를 풀며 모샘치와 피라미를 낚는 재미에 빠져 한가로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니마르라니! 카혼 남작이 찾던 바로 그 조력자가 아닌가! 교활하고 끈기 있는 가니마르보다 뤼팽의 계략을 더 잘 무산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남작은 망설이지 않았다. 성에서 코드벡이라는 작은 마을까지는 6킬로미터. 구원의 희망에 들뜬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단숨에 그 길을 내달았다.

주요 형사인 가니마르의 주소를 알아내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결국 '르베유'지국으로 향했다. 지국은 강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짧은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났다. 기자는 창가로 다가가더니 외쳤다.

"가니마르요? 그분이라면 강변을 거닐 때 꼭 만나실 수 있어요. 낚싯대를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곳이기도 하고요. 우연히 그의 낚싯대 지팡이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그의 이름을 알았으니까요. 저기 산책로 나무들 아래 보이는 그 노인을 보세요."

"프록코트를 입고 밀짚모자를 쓴 분인가요?"

"맞아요! 참 특이한 분이십니다. 말수는 적고 좀 거친 성격이죠."

다섯 분 뒤, 남작은 유명한 가니마르 형사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형사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솔직하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형사는 움직이지도 않고 물고기를 노리고 있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듣더니, 고개를 돌려 남작을 향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보았다. 깊은 동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남들이 털릴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건 관례가 아닙니다. 특히 아르센 뤼팽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죠."

"그런데…"

"선생님,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이 귀여운 뤼팽을 다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기쁨이 다른 모든 고려를 압도할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젊은이는 이미 감금되어 있습니다."

"만약 탈출한다면요?"

"상테 형무소에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소."

"하지만…"

"좋소, 그가 탈출한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오. 내가 다시 붙잡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안심하고 푹 주무시오. 이 작은 물고기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마시오."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났다.

남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가니마르의 태연함 덕분에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졌다. 그는 집안의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인들을 감시했다. 다시 사십팔 시간이 흘러갔고, 그동안 그는 결국 자신의 불안은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거의 스스로를 납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가니마르가 말한 대로였다. 약탈하려는 상대에게는 미리 경고하지 않는 법이다.

날짜는 점점 가까워졌다. 화요일 아침, 이십칠일 전날.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오후 세 시, 한 소년이 초인종을 울렸다. 그는 전보 한 장을 건넸다.

'바티뇰 역에 도착한 소포는 없습니다. 내일 밤을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시오.'

다시 한 번 당황이 밀려왔다. 그 정도가 심해져, 그는 차라리 아르센 뤼팽의 요구에 굴복해 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카우데베크로 달려갔다. 가니마르는 같은 자리, 접이식 의자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 없이 전보를 건넸다.

"그래서요?" 형사가 말했다.

"그래서라니요? 내일 일이잖아요!"

"무슨 일?"

"강도 사건! 내 컬렉션이 약탈당하는 거요!"

가니마르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그는 성급한 어조로 외쳤다.

"아니, 도대체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일에 신경이나 쓸 거라고 생각하시오?"

"9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을 성에서 보내는 대가로 얼마를 원하시오?"

"한 푼도 안 받소. 나를 내버려 두시오."

"값을 정하시오. 나는 부자요. 정말로 부자랍니다."

그 제안의 거침없음에 가니마르는 당황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금 진정된 상태였다.

"저는 휴가 중이라서,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삼천 프랑.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니마르 형사는 담배를 한 줌 집어 들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곤 툭 내뱉었다.

"좋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돈은 물에 던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어쨌든 그 악마 같은 뤼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녀석은 온갖 무리를 거느리고 있을 테니까요. 집안 사람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럼 그들에 기대지 말자. 내 친구 두 명에게 전보를 보내겠네. 그들이 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이제 얼른 사라져라.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게 들키면 안 되잖아. 내일 아홉 시쯤에 보자."

다음 날은 아르센 뤼팽이 정해둔 날짜였다. 바론 카혼은 무기를 챙겨 들고 무장을 닦았다. 그리고 말라키 근처를 거닐었다. 하지만 수상쩍은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여덟 시 반, 그는 하인들을 물렸다. 하인들은 성의 앞쪽 날개방에 살았지만, 도로에서 약간 비켜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성의 가장 끝자락이었다.

혼자 남게 된 그는 네 개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잠시 후,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니마르는 자신의 두 보좌관을 소개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두 남자는 소의 목처럼 굵었고, 힘센 손이 특징이었다. 그는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인 뒤, 위태로운 방들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꼼꼼히 점검해 잠그고 막아섰다.

그는 벽을 살피고 벽지를 들춰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복도에 자신의 요원들을 배치했다.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여기서 잠자는 게 아니잖아.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안뜰 창문을 열고 나한테 연락해. 물쪽도 조심해. 10미터 절벽이긴 하지만, 저런 놈들은 높이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들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긴 뒤, 남작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제자리로 갑시다."

그는 밤을 보내기 위해 성벽 두께 속에 파인 작은 방을 골랐다. 두 개의 주요 문 사이에 자리한 이 방은 예전에는 파수꾼의 감시소였다. 한쪽에는 다리를 향한 작은 창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안뜰을 향한 창문이 있었다. 구석에는 마치 우물 구멍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다.

"바론 각하, 그 우물이 지하 통로의 유일한 진입로라고 하셨죠. 그리고 살아생전 그 통로는 막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아르센 뤼팽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출구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좀 의문스럽군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는 의자 세 개를 일렬로 늘어놓고 편하게 누웠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바론 각하, 제가 여생을 보낼 그 오두막에 한 층을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어지간히 간절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친구 뤼팽에게 들려주면, 배를 잡고 웃어 댈 겁니다."

바론은 웃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며 그는 점점 더 큰 불안감으로 침묵을 응시했다. 때때로 우물 가장자리로 몸을 숙여, 입을 쩍 벌린 구멍 속을 불안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열한 시, 자정, 한 시가 차례로 울렸다.

그때 갑자기 그는 가니마르의 팔을 잡았다. 잠에서 깬 가니마르는 깜짝 놀랐다.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요?"

"내 코고는 소리요!"

"아니에요, 들어 봐요…"

"아, 맞아요. 자동차 경적 소리군요."

"그래서요?"

"음, 뤼팽이 자동차를 공성 망치처럼 들이대 성을 무너뜨릴 리는 없지요. 그러니 바론 각하, 제가 당신이라면 자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그렇게 할 영광을 누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경보였다. 가니마르는 중단된 잠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고, 바론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오직 그의 깊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새벽이 밝자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다. 차가운 물가 아침의 고요한 평화가 성을 감싸고 있었다. 기쁨으로 빛나던 카혼과 여전히 평온한 가니마르, 그들은 계단을 올랐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수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론 각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저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죠…… 부끄럽습니다."

그가 열쇠를 들고 복도 안으로 들어섰다.

의자 두 개에 기대어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두 형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가니마르 형사가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그 순간, 남작이 비명을 질렀다.

"그림들!… 장식장도!"

그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빈 자리들을, 못과 쓸모없는 끈만 매달린 맨 벽을 향해 손을 떨며 뻗었다. 와토가 사라졌다! 루벤스 작품들도 떼어 갔다! 태피스트리는 벽에서 떼어졌고, 진열장은 보석이 모두 비워졌다!

"내 루이 16세 양식 촛대들은?… 섭정공의 촛대는?… 12세기 성모상은?"

그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뛰어다녔다.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사들일 때의 가격을 되뇌었고, 입은 손해를 계산했다. 숫자를 쌓아 올렸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뚜렷하지 않은 말로, 반쯤 끊긴 문장으로 외쳤다. 그는 발을 구르고 몸을 떨었다. 분노와 고통에 미친 듯이. 그는 파산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총으로 제 머리를 쏘고 죽이는 것뿐인 사람처럼.

그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가니마르의 경악을 보는 것이었다. 남작과는 달랐다. 형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듯했다.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문 잠금장치는? 손상되지 않았다. 천장에 구멍은 없었다. 바닥에도 구멍이 없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무자비하고 논리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분명했다.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

그가 쓰러진 듯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두 순경에게 달려들었다. 마침내 분노가 그를 뒤흔든 듯했다. 그는 그들을 거칠게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순경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 그가 말했다. "혹시…?"

그는 그들 위로 몸을 숙여, 차례로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잠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남작에게 말했다.

"누군가 이들을 잠재웠어요."

"누가?"

"그놈이죠, 뭐! 아니면 그 무리요. 하지만 지휘는 그놈이 했겠죠. 이건 그놈의 수법이에요. 확실히 그놈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끝장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끔찍해요. 악마 같은 짓이에요."

"고소장을 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 일단 해보세요… 사법 기관에도 방법이 있답니다…"

"법이라고요! 당신 스스로도 잘 보고 계시잖습니까…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단서를 찾고 뭔가 발견할 수 있을 법한데도 당신은 꼼짝도 하지 않잖습니까."

"아르센 뤼팽을 상대로 뭔가를 발견한다고요? 친애하는 선생님, 뤼팽은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뤼팽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저는 그가 미국에서 제 손에 체포된 것조차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림들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가 훔쳐간 건 제 수집품 중에서도 보배와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것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거액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그가 부르는 값을 말하라고 하십시오!"

가니마르 형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현명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철회하지 않으시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데 왜 그러시는 거죠?"

"내게 생각이 하나 있어서요."

"어떤 생각입니까?"

"수사가 꼬이면 그때 이야기하자. 하지만 내가 성공하려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도 없어야 해."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두 형사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가라앉았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리둥절해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가니마르가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해 내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를 봤을 텐데?"

"생각나니?"

"아니, 아니."

"술이라도 마셨나?"

두 사람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한 명이 대답했다.

"나? 물 한 잔 마셨어."

"그 물병에 있던 물?"

"나도 마셨어," 두 번째 형사가 말했다.

가니마르는 물병을 들어 냄새를 맡아 보았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셔 보았다. 특이한 맛도, 냄새도 없었다.

"자, 시간만 낭비하는군. 아르센 뤼팽이 던진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는 없지. 하지만 천만에, 내 기필코 그놈을 다시 잡고 말겠어. 이번 판은 그가 이겼군. 하지만 마지막 결승판은 내 거야!"

바로 그날, 상테 형무소에 수감된 아르센 뤼팽을 상대로 카혼 남작이 가중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카혼 남작은 그 고소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말라키 성이 헌병과 검사, 예심판사, 기자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곳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온갖 구경꾼들에게 내맡겨진 꼴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미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황이 너무 특이했고,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기이한 이야기들이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며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에코』지가 공개한 뤼팽의 첫 번째 편지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누가 그 내용을 흘렸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 편지에서 카혼 남작은 자신을 위협하는 일을 뻔뻔스러우리만치 대놓고 미리 통고받았던 것이다.

즉시 터무니없는 갖가지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지하 통로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고, 그에 휘둘린 검찰도 그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성 안을 위아래로 샅샅이 뒤졌다. 벽석 하나하나에 심문하듯 질문을 던졌다. 나무로 된 벽장들과 벽난로, 거울틀, 천장의 서까래까지 모두 세밀하게 살폈다. 횃불 빛에 비춰진 광활한 지하 저장고도 조사했다.

과거 말라퀴 영주들이 화약과 식량을 쌓아두던 곳이었다. 바위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결과는 헛수고였다. 숨겨진 통로라곤 단 한 점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비밀스러운 이동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렇다 치죠." 여기저기서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가구나 그림이 유령처럼 사라지지는 않아요. 물건은 문과 창문을 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친 자들도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빠져나갔을 테죠.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루앙 검찰청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파리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보안국장 뒤두아는 철권 특별반 소속 최고의 형사들을 보냈다. 본인도 말라키 성에서 사십팔 시간이나 머물며 직접 수사에 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뒤두아는 가니마르 수석 경위를 불러들였다. 그는 가니마르의 뛰어난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었다.

가니마르는 상사의 지시를 묵묵히 들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성채를 뒤지는 데 매달리는 건 잘못된 길이에요. 해법은 다른 데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아르센 뤼팽 근처에요."

"아르센 뤼팽? 그런 상상은 그의 개입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의 개입을 확신합니다."

"자, 가니마르. 말이 안 돼. 아르센 뤼팽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건 그렇다 치자. 감옥에 있다는 건 인정해. 감시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발에는 사슬, 손목에는 밧줄, 입에는 재갈까지 물려 있다 해도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왜냐하면, 아르센 뤼팽 혼자서야말로 이토록 거대한 작전을 구상하고, 그것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랬잖아."

"헛소리야, 가니마르!"

"하지만 그건 현실이야. 그런데 문제는, 지하실 통로나 회전하는 돌, 그런 구시대적인 수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상대는 그런 낡은 방식은 쓰지 않아. 그는 현재형이야. 아니, 오히려 미래형이지."

"그럼 결론은?"

"저는 그와 한 시간만 대화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감방에서요?"

"네.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해 내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잡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도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그는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도록 도와주려 할 겁니다."

정오를 약간 넘긴 시각, 가니마르 형사는 아르센 뤼팽의 감방으로 들어갔다. 누워 있던 뤼팽이 고개를 들고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아, 이건 정말 놀라워. 여기 가니마르라니!"

"바로 나입니다."

"저는 은둔 생활에서 수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간절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늘 말해 왔습니다. 가니마르 형사는 우리 최고의 형사라고요. 거의 헐록 숌즈 수준이죠. — 얼마나 솔직하게 말했는지 보셨죠? —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의자뿐이라니.

시원한 음료도, 맥주 한 잔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들른 길이라서요."

가니마르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죄수는 말을 잇기 좋아했다.

"주님, 정직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매일 열 번씩 제 주머니와 좁은 감방을 뒤져서 제가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찰병과 밀고자들의 얼굴은 지겹습니다. 젠장, 정부가 제게 얼마나 집착하는지요!"

"그 말이 맞지."

"아니야! 그냥 작은 구석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연금으로 말이야."

"그렇지! 그거면 얼마나 간단한가! 하지만 내가 수다를 떨고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군. 당신은 아마 바쁠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가니마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야?"

"카혼 사건입니다." 가니마르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먼저 제 머릿속에서 카혼 사건 파일을 찾아봐야겠네요. 아, 찾았습니다. 카혼 사건, 말라키 성, 센앵페리외르… 루벤스 그림 두 점과 와토 한 점,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

"잡동사니라고요?"

"아, 음. 사실 그 정도는 별 볼일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당신에게 관심거리가 된다면 충분하죠. 자, 가니마르, 말해보세요."

"우리가 현재 수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불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이미 읽었어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신들이 빨리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첫째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이 직접 맡아서 진행한 겁니까?"

"A부터 Z까지 모두 제가 처리했습니다."

"경고장? 전보?"

"다 제 솜씨죠. 영수증까지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아르센은 작은 흰색 나무 탁자의 서랍을 열었다. 그 탁자는 침대와 발판과 함께 그의 감방을 이루는 유일한 가구였다. 그는 거기서 두 장의 종이를 꺼내 가니마르에게 건넸다.

"아, 그렇군!" 가니마르가 외쳤다. "당신이 감시하에 있고, 언제라도 수색당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당신은 신문을 읽고 우편 영수증을 모으다니."

"하! 그들은 정말 멍청하죠. 제 재킷 안감을 뜯어내고, 부츠 밑창을 살피고, 이 방 벽을 두드려 보지만, 아르센 뤼팽이 그토록 쉬운 곳에 숨길 만큼 바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죠."

가니마르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녀석이로군. 당신 앞에서는 내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소. 어서,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시오."

"오호, 너무 과하시지 않소? 내 모든 비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 작은 속임수까지 모두 밝히라니?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일세."

"내가 당신의 호의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소?"

"아니오, 가니마르. 당신이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군요."

아르센 뤼팽은 방을 두세 바퀴 걷다가 멈춰 섰다.

"남작에게 보낸 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오."

"아, 바로 그거야! 관객을 압도하는 거지. 가니마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약하군. 내가 아르센 뤼팽이면서 그런 유치한 수단에 매달리겠나? 만약 편지를 쓰지 않고도 남작을 털 수 있었다면, 그 편지를 썼겠는가?

너희는 물론 다른 이들까지도 이해해야 해. 이 편지는 필수적인 시작점이고, 모든 장치를 가동시킨 스프링이야. 자, 차근차근 진행하자. 만약 원한다면 함께 말라키 저택 털이를 준비해 보자."

"들으마."

"자, 엄격하게 폐쇄되고, 마치 카혼 남작의 저택처럼 빗장을 걸어 잠근 성을 상상해 보자. 나는 성이 접근 불가능하다는 변명으로, 내가 탐내는 보물들을 포기하고 물러나겠는가?"

"물론 아니지."

"과거처럼 모험가들을 거느리고 정공법으로 돌격해 볼까?"

"아이 같은 발상이야."

"그럼, 은밀하게 침투해 볼까?"

"그건 불가능해."

"남은 수단이 하나 있어. 내 생각엔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 바로 성주의 초대를 받는 거야."

"꽤 독창적인 수법인데."

"그리고 얼마나 쉬운지 모르지. 예를 들어, 성주가 어느 날 편지를 하나 받게 된다고 상상해 보자. 그 편지에는 아르센 뤼팽이라는 유명한 도둑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꾀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러면 성주는 어떻게 할까?"

"검찰청에 보내겠지."

"그러면 검찰은 비웃을 거야. 뤼팽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편지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나 다름없으니까. 결국 성주는 당황해서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게 될 거야. 그렇지?"

"그건 틀림없어."

"만약 그 사람이 '유명한 경찰관이 근처 마을에 휴양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있다면?"

"그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겠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뤼팽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 중 한 명을 고드베크로 보내 두었다면요. 그 친구는 남작이 구독하는 『르에벨』지 기자와 연락을 취한 뒤, 자신을 그 유명한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르에벨』지에 그 경찰관이 고드베크에 왔다는 기사가 실리겠죠."

"완벽하군.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뿐이지. 첫째, 물고기, 즉 카혼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둘째,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지만, 그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나타나는 거야. 그럼 내 친구 한 명에게 카혼이 나를 상대로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날이 갈수록 참으로 독창적이시군요."

"물론, 가짜 경찰은 처음엔 제 역할을 거부합니다. 그때 아르센 뤼팽의 전보가 도착하죠. 남작은 또다시 제 친구에게 매달리며,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얼마든지 대가를 치르겠다고 애원합니다. 그 친구는 수락했고, 우리 무리에서 두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밤사이, 카혼이 자신의 보호자한테 감시받는 틈을 타서 창문으로 여러 물건을 꺼내어 로프를 이용해 전용으로 빌린 작은 보트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뤼팽답게 아주 간단한 수법이었죠."

"정말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가니마르가 외쳤다. "이 구상의 대담함과 세부 사항의 기발함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남작을 그렇게까지 사로잡고 영향을 미칠 만큼 유명한 경찰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뿐이죠."

"누구요?"

"아르센 뤼팽의 가장 저명한 적, 즉 뤼팽의 원수인 사람. 간단히 말해 가니마르 형사입니다."

"당신이지, 가니마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오? 당신이 그곳에 가서 남작과 대화하게 되면, 결국 당신의 임무가 당신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마치 당신이 미국에서 나를 체포했던 것처럼 말이지. 어때? 이 복수는 코믹하지 않소? 내가 가니마르 형사를 가니마르 형사에게 체포시키는 거야!"

아르센 뤼팽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다. 형사는 꽤나 언짢은 기색이 역력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장난이 그토록 큰 웃음을 자아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지 못한 모양이었다.

경비원이 들어오면서 그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아르센 뤼팽이 특별히 부탁해 근처 식당에서 가져온 식사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물러났다. 뤼팽은 자리로 돌아와 빵을 떼어 물고, 두 세 입 정도 먹은 뒤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친애하는 가니마르 형사님. 형사님은 저쪽으로 가지 않으실 겁니다. 형사님을 깜짝 놀라게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죠. 카혼 사건이 곧 종결될 예정입니다."

"뭐?"

"종결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방금 안전부 국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요? 뒤두아 씨가 저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가니마르, 죄송하지만 가짜 가니마르가 남작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작이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은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남작은 그에게 저와 거래를 협상하라는 매우 민감한 임무를 맡겼고, 현재로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작이 자신의 소중한 장신구를 되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고소를 철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둑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검찰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니마르는 죄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걸 어떻게 알죠?"

"내가 기다리던 전보를 방금 받았거든."

"전보를 받았다고?"

"바로 지금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예의상 당신 앞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나를 놀리는군요, 뤼팽."

"부디, 친애하는 친구. 이 삶은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가니마르는 무심코 그 말을 따라 칼날로 달걀을 깼다. 그의 입에서 놀란 탄성이 새어 나왔다. 속이 빈 달걀 껍질 안에는 파란색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르센의 청에 따라 그는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전보였다. 정확히는 우편 표시가 뜯겨 나간 전보의 일부였다. 그는 읽었다.

"합의 성립. 십만 프랑 전달 완료. 모든 것이 순조로움."

"십만 프랑?" 그가 말했다.

"네, 십만 프랑입니다! 적지만, 요즘 세상이 어렵잖아요… 게다가 고정비도 만만치 않아요. 제 예산을 아신다면요, 대도시의 예산이거든요."

가니마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불쾌감은 사그라들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사건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며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고는 정평 난 전문가다운 감탄이 솔직히 드러나는 어조로 말했다.

"다행히 당신 같은 사람이 몇십 명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장사를 접어야 했겠지."

아르센 뤼팽은 작은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하하, 뭐, 그래도 심심풀이는 해야죠. 여가도 때워야 하고… 게다가 그 작전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

"뭐라고요?" 가니마르가 소리쳤다. "당신의 재판, 당신의 변론, 예심… 이 모든 게 당신을 즐겁게 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오, 오!"

아르센 뤼팽은 차분하게 반복했다.

"저는 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아, 친애하는 친구여. 제가 젖은 짚 위에서 썩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욕이십니다. 아르센 뤼팽은 원할 때만 감옥에 머무르지, 그 이상은 단 1분도 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현명했을 텐데요." 형사가 비꼬는 어조로 반박했다.

"아, 나리께서 비웃으시는 겁니까? 나리께서 저를 체포하는 영광을 누리셨던 일을 기억하시는 모양이군요? 알아 두시오, 존경하는 친구여. 그 결정적인 순간에 훨씬 더 중대한 관심사가 나를 사로잡지 않았더라면, 당신이든 다른 누구든 내게 손을 댈 수 없었을 거요."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한 여인이 나를 보고 있었소, 가니마르.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 사랑하는 여인에게 시선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이해하겠소?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게 중요치 않았소. 맹세코 진심이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요."

"그것도 아주 오래되었지요. 한마디 지적하게 해 주시구려."

"일단 잊고 싶었소. 웃지 마. 그 모험은 정말 매력적이었고, 지금도 그 기억은 따뜻하게 남아 있거든. 그리고 나는 좀 신경이 예민한 편이야. 요즘 세상은 너무 분주하잖아. 때때로 '고립 요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해. 이곳은 그런 요양에 더할 나위 없이 좋소. 상테 요양을 철저히 실천하는 곳이지."

"아르센 뤼팽," 가니마르가 말했다. "저를 놀리시는군요."

"가니마르,"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금요일이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네 시, 페르골레즈 거리 당신 집으로 시가를 피우러 가겠소."

"아르센 뤼팽, 기다리고 있겠소."

그들은 서로를 충분히 인정하는 두 좋은 친구처럼 악수를 나누었고, 늙은 경찰관은 문 쪽으로 향했다.

"가니마르!"

형사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입니까?"

"가니마르, 시계를 두고 가시네요."

"내 시계?"

"네, 제 주머니에 잘못 들어갔네요."

뤼팽은 시계를 건네며 사죄했다.

"미안합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제 시계를 가져갔다고 해서 형사님 시계까지 빼앗을 이유는 없죠. 게다가 여기, 불만 하나 없는 정밀한 시계가 있어서 제 필요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묵직한 사슬이 달린, 큼직하고 두툼한 금시계를 꺼냈다.

"그럼 이 시계는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까?" 가니마르가 물었다.

아르센 뤼팽은 대수롭지 않게 시계의 이니셜을 훑었다.

"J.B... 대체 누구지?… 아, 맞다. 기억나네. 쥘 부비에, 제 예심판사지. 참으로 매력적인 분이셨어…."

아르센 뤼팽의 탈옥

아르센 뤼팽은 식사를 마치고, 금띠를 두른 멋진 시가를 꺼내 흐뭇하게 살펴보았다. 그때 감방 문이 열렸다. 그는 재빨리 시가를 서랍에 던져 넣고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간수가 들어왔다. 산책 시간이었다.

"기다리고 있었소, 친애하는 친구."

뤼팽은 언제나 그랬듯 기분 좋게 말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섰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감추자마자, 두 남자가 감방에 들어와 꼼꼼히 수색을 시작했다. 한 사람은 뒤지 형사, 다른 한 사람은 폴랑팡 형사였다.

끝내야 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르센 뤼팽은 바깥세상과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측근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어제만 해도 <그랑 주르날>은 이 신문의 사법 담당 기자 앞으로 보내는 다음 글을 실었다.

"최근 며칠 사이 실린 기사에서 당신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말로 나를 언급했소. 내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묻겠소.

삼가 인사를 전하며,

아르센 뤼팽"

글씨는 분명히 뤼팽의 것이었다. 그러니 그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니 편지를 받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그토록 오만하게 예고한 그 탈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수사판사와 의견을 같이한 사법경찰국 국장 뒤두아 씨가 직접 상테 형무소를 찾아, 교도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러 갔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두 명의 형사를 죄수의 감방으로 보냈다.

형사들은 바닥의 타일을 하나씩 들어 올리고, 침대도 분해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하는 일은 모두 해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려던 그때, 교도관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말했다.

"서랍을 보세요. 책상 서랍 말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서랍이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이 살펴보니, 뒤지 씨가 소리쳤다.

"세상에, 이번엔 정말 잡았군. 이놈을."

그러나 폴팡이 그를 말렸다.

"잠깐, 친구. 국장님이 직접 목록을 작성하실 거야."

"하지만 이건 고급 시가인데……."

"하바나는 놔두고, 국장님께 알리자."

2분 뒤, 뒤두아 씨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아르귀스 드라 프레스'가 오려 모은 아르센 뤼팽 관련 기사 더미를 꺼냈다. 이어 담배주머니, 파이프, 양파껍질처럼 얇은 종이, 그리고 책 두 권을 발견했다.

그는 책 제목을 확인했다. 하나는 칼라일의 『영웅 숭배』 영문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1634년 레이던에서 간행된 에픽테토스 『도덕강요』 독일어판이었다. 아름다운 엘제비르 판형에 당시의 제본이 그대로 남은 책이었다.

뒤두아 씨는 책을 넘겨보았다. 모든 페이지에 줄이 그어지고 주석이 달려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약속된 암호 표시였을까, 아니면 책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담긴 흔적이었을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뒤두아 씨가 말했다.

그는 담배주머니와 파이프를 살폈다. 그러곤 금띠를 두른 그 유명한 시가를 집어 들었다.

"이런, 우리 친구 호사가 대단하군. 앙리 클레잖아!" 그가 외쳤다.

그는 흡연자의 습관적인 동작으로 무심코 시가를 귀에 대고 바스락 소리를 내보았다. 그러자 곧 탄성이 새어 나왔다. 시가가 손가락 압력에 물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곧 담배 잎 사이에서 하얀 무언가를 알아보았다. 그는 핀으로 조심스럽게, 이쑤시개만큼이나 가느다란 얇은 종이 두루마리를 끄집어냈다. 쪽지였다. 그는 그것을 펼쳐, 작은 여성 필체로 적힌 다음 글을 읽었다.

"바구니가 다른 것의 자리를 차지했어. 열 칸 중 여덟 칸이 준비됐어. 바깥쪽 발로 누르면 판이 위에서 아래로 들려. 매일 정오부터 오후 네 시까지 H-P가 기다릴 거야. 하지만 어디에서? 즉시 답해 줘. 안심해, 네 친구가 널 지켜보고 있어."

뒤두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제법 명확하군. 바구니, 그리고 여덟 칸. 정오부터 오후 네 시까지, 말이지."

"그런데 기다린다는 그 H-P는 누구죠?"

"H-P는 여기서 자동차를 뜻해. H-P, 즉 마력(Horse Power)이지. 스포츠 용어에서 엔진의 힘을 그렇게 부르잖아. 24 H-P면 24마력짜리 자동차라는 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수감자는 점심 식사를 다 마쳐 가던 참이었나?"

"그가 아직 그 쪽지를 읽지 않았다는 건, 시가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러니 방금 막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어떻게요?"

"음식 속에 숨겨서였겠지. 빵 한가운데나 감자 속에 끼워 넣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겠나?"

"말도 안 돼요. 그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허락한 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잖아요."

"오늘 밤 뤼팽의 답장을 찾아보지. 당장은 그를 감방 밖에 붙잡아 둬. 내가 이걸 예심판사님께 가져갈 테니. 그분이 내 의견에 동의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을 거야. 한 시간 뒤면 자네가 서랍에 이 물건들과 함께, 원본 쪽지가 그대로 든 똑같은 시가 하나를 다시 넣어 둘 수 있을 거야. 죄수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뒤두아 씨는 그날 저녁, 뒤지 형사와 함께 상테 형무소 사무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구석 난로 위에는 접시 세 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다 먹었나?"

"네, 그렇습니다." 소장이 대답했다.

"뒤지, 이 마카로니 몇 가닥을 아주 얇게 잘라 보게. 그리고 이 빵 덩이도 열어 보고…. 아무것도 없나?"

"없습니다, 국장님."

뒤두아 씨는 접시와 포크, 숟가락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칼을 살폈다. 규격에 맞는 둥근 날의 칼이었다. 그는 손잡이를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보았다. 오른쪽으로 돌리자 손잡이가 풀리며 분리되었다.

칼은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은 종이 한 장을 넣는 칼집 구실을 하고 있었다.

"쳇." 그가 말했다. "아르센 같은 자에게는 그리 영리한 수법도 아니군. 하지만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뒤지, 자네는 그 식당으로 가서 조사를 해 보게."

그러고 나서 그는 쪽지를 읽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H-P가 매일 멀리서 따라갈 거예요. 제가 마중 나가겠어요. 곧 만나요, 사랑스럽고 놀라운 친구여.'

"드디어," 뒤두아 씨가 손을 비비며 외쳤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 가는 것 같군. 우리가 조금만 거들면 탈옥은 성공할 거야……. 적어도 공범들을 붙잡을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아르센 뤼팽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면 어쩌죠?" 소장이 반문했다.

"필요한 만큼 인력을 동원하면 돼. 그래도 그가 너무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면……. 뭐, 그땐 그가 운이 없는 거지. 패거리로 말하자면, 두목이 입을 열길 거부하니 다른 자들이 말하겠지."

사실 아르센 뤼팽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수개월 동안 예심판사 쥘 부비에는 그를 심문하려 헛되이 애썼다. 심문은 예심판사와 변호사 당발 사이의 무의미한 대화로 끝나곤 했다. 당발은 변호사계의 거물 중 한 명이었지만, 피고인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때때로 뤼팽은 예의로 이렇게 한마디씩 흘렸다.

"네, 판사님, 우리 의견은 같습니다. 리옹 신용은행 절도, 바빌론 거리 절도, 위조지폐 발행, 보험증권 사건, 아르므닐·구레·임블뱅·그로제예·말라키 성 도둑질…… 모두 제 소행입니다."

"그렇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쓸데없어요. 저는 모든 걸 고백할 겁니다. 다 말하고, 심지어 당신이 상상하는 것의 열 배는 더 털어놓겠어요."

지루한 심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판사는 그 일을 잠시 중단했다. 그리고 두 장의 가로챈 편지를 확인한 뒤, 다시 심문을 재개했다. 정오가 되면 아르센 뤼팽은 상테 형무소에서 유치장으로, 감옥 행 차량을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송되었다. 그들은 오후 세 시나 네 시쯤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이 귀환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상테 형무소의 다른 죄수들은 아직 심문을 받지 않았기에, 뤼팽을 먼저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만 차량에 올랐다.

이 감옥 행은 통상 '샐러드 바구니'라 불린다. 차체 중앙에 복도가 길게 뻗어 있고, 양옆으로 다섯 개씩, 총 열 개의 구획이 열려 있다.

각 구획은 앉은 자세로만 있을 수 있게 설계됐다. 그래서 죄인 다섯 명이 겹쳐 앉는 형국이 된다. 평행한 칸막이가 그들을 서로 분리하고 있을 뿐이다.

복도 끝에는 시립 경찰 한 명이 서서 전체를 감시한다.

아르센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감옥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무거운 감옥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오를로주 강변로를 떠나, 법원 정면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생미셸 다리 한가운데쯤에서 그는 늘 하던 대로 바깥쪽 발, 즉 오른쪽 발로 감방을 막고 있는 철판을 눌렀다.

순간 무언가가 작동했다. 철판이 서서히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두 바퀴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경계하며 기다렸다. 감옥차는 느린 걸음으로 생미셸 가도를 올랐다. 생제르맹 사거리에서 차는 멈췄다. 화물차의 말이 쓰러진 탓이었다. 교통이 끊기면서, 순식간에 삯마차와 합승마차들이 뒤엉켜 막혀 버렸다.

아르센 뤼팽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가 탄 감옥 행 차량 옆에는 또 다른 감옥 행 차량이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차체 판금을 더 들어 올리고, 큰 바퀴의 한 가닥에 발을 올린 뒤 땅으로 뛰어 내렸다.

마부에게 그가 발견되자, 마부는 크게 웃더니 곧바로 외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들의 굉음 속에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아르센 뤼팽은 이미 멀리 떨어진 뒤였다.

그는 몇 걸음 뛰어갔으나, 왼쪽 보도에서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바람을 가늠하는 사람처럼, 아직 정해진 방향이 없는 듯했다. 그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리거리를 거닐며 산책하는 사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불바르를 계속 올라갔다.

날씨는 포근했다. 가을 특유의 기쁨과 가벼움이 감도는 날씨였다.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는 어느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맥주 한 잔과 담배 한 갑을 주문했다. 그는 잔을 천천히 비우며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이어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종업원에게 매니저를 불러오라고 부탁했다.

매니저가 다가오자, 아르센은 모든 사람이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갑을 깜빡했군요.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며칠 동안 신용을 써도 될까요? 아르센 뤼팽입니다."

매니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뤼팽은 다시 말했다.

"뤼팽입니다. 상테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 현재 도주 중이죠. 이 이름이 선생님께 신뢰감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웃음바다 속에서 자리를 떠났고, 지배인은 돈을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뤼팽은 수플로 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생자크 거리로 들어섰다. 그는 평온하게 거리를 따라 걸었다. 진열창을 구경하듯 멈추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포르루아유 대로에 이르러 그는 방향을 확인하고 길을 물어본 뒤, 상테 거리로 곧장 향했다. 곧 감옥의 칙칙하고 높은 담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담장을 따라 걷던 그는 파출소 순경이 지키고 있는 곳 근처에 다다랐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물었다.

"여기가 상테 형무소 맞습니까?"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차가 중간에 내려주더군요.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순경이 투덜거렸다.

"이봐, 친구. 그냥 지나가. 빨리."

"미안합니다. 이 문으로 가야 해서요. 만약 제가 이 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건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아르센 뤼팽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명함이 없어서 유감스럽군요." 뤼팽이 말했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는 시늉을 하며 말했다.

경비는 그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굳어 있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억지로라도 종을 울렸다. 철문이 살짝 열렸다.

몇 분 후, 소장이 서기과 쪽으로 달려왔다. 그는 팔을 휘저으며 격분한 체하며 다가왔다. 뤼팽은 미소 지었다.

"자, 소장님. 저와 잔머리 굴릴 생각 마십시오. 아니, 일부러 저를 차에 혼자 태워 데려오고, 그럴듯한 교통 정체까지 꾸며놓고는, 제가 부리나케 도망쳐 친구들과 합류하리라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도보로, 삯마차로, 자전거로 호위하던 보안국 요원 스무 명은

요? 아니, 그자들이 저를 어떻게 손봐줬겠습니까! 살아서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소장님, 혹시 바로 그걸 노리신 건 아닙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덧붙였다.

"제발 소장님, 저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탈출하려 할 때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흘 뒤, 아르센 뤼팽의 활약상을 알리는 공식 소식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뤼팽이 그 신문의 주요 출자자 중 하나라는 소문까지 돌던—『에코 드 프랑스』지가, 이 탈출 미수 사건에 대한 가장 상세한 내용을 실었다.

수감자와 그 신비한 친구 사이에 오간 편지 내용, 그 통신 수단에 쓰인 방법, 경찰의 공모, 생미셸 대로의 산책, 그리고 수플로 카페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디우지 형사가 레스토랑 직원들을 조사해 봐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가 가진 무한한 자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를 이송하던 감옥 행 차량이 완전히 개조된 위장 차량이었고, 그의 무리가 교도소 소속 여섯 대의 차량 중 한 대와 바꿔치기했다는 것이었다.

아르센 뤼팽의 곧이어 있을 탈옥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미 명확한 어조로 그 사실을 예고했고, 사건 이튿날

부비에 판사와의 대화에서 그 증거를 남겼다. 판사가 자신의 실패를 비꼬자, 뤼팽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듣게나, 선생님.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번 탈옥 시도는 제 전체 탈옥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판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해가 안 가."

"당신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이 심문은 프랑스의 『에코 드 프랑스』 지에 온전히 실릴 만큼 길게 이어졌다. 판사가 다시 조사를 이어가려 하자, 뤼팽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외쳤다.

"세상에,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모든 질문은 아무런 중요도 없어!"

"어떻게요, 아무런 중요도도 없다니요?"

"하지만 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출석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네, 고집입니다. 한번 내린 결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법원을 짜증 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매일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정보 유출 때문이었다. 아르센 뤼팽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그 비밀이 새어나왔다면, 그 출처는 뤼팽밖에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 비밀들을 흘린 걸까?

뤼팽은 수용실을 옮겼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한편, 판사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심판부송치했다.

그때부터 두 달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아르센은 거의 내내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감방이 바뀌는 바람에 그는 완전히 위축된 듯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간수들과 오가는 말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재판을 보름 앞둔 무렵, 그는 다시 기운을 차리는 듯했다. 공기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던 것이다.

이른 아침, 그는 두 사람의 호위를 받으며 안뜰로 나왔다.

하지만 대중의 호기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렸다. 거의 그 탈출을 바랄 정도였다. 그의 재치와 낙천성, 다채로운 면모, 그리고 놀라운 발명력과 신비로운 삶이 군중을 얼마나 매료시켰는지 모른다.

아르센 뤼팽은 반드시 탈출해야 했다. 그것은 불가피했고,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느냐는 점이었다.

매일 아침, 경찰청장은 비서에게 물었다.

"그래, 아직 안 나갔나?"

"아니요, 청장님."

"그럼 내일쯤 되겠지."

재판 전날, 한 남자가 그랑 조르날 사옥에 나타났다. 법조 담당 기자를 찾아내더니 명함을 얼굴에 던지며 급히 자취를 감췄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아르센 뤼팽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관중은 압도적이었다. 누구나 그 유명한 아르센 뤼팽을 보고 싶어 했다. 판사를 어떻게 장난치며 넘길지, 미리부터 그 장면을 상상하며 설레었다. 변호사와 법관, 기자와 사교계 인사, 예술가와 귀부인들까지. 파리의 모든 이가 법정석으로 몰려들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하늘은 어두웠다. 감옥 간수들이 아르센 뤼팽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거

운 자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침묵은 그를 옹호해주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 즉 댄발 씨의 비서 중 한 명이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본래 댄발 씨는 이 역할을 자신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직접 나서지 않았다. 변호사는 여러 차례 뤼팽에게 말을 건넸다. 뤼팽은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서기가 기소장을 낭독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일어나시오. 이름, 성, 나이, 직업은?"

대답이 없자 재판장은 다시 물었다.

"이름이요? 당신의 이름을 묻는 것이오."

굵고 지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다.

"보드루, 데지레."

법정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곧이어 다시 말을 이었다.

"보드루, 데지레? 아, 그렇군요. 새로운 가명 하나 더군요. 당신이 주장하는 이름이 거의 여덟 번째쯤 되는데, 다른 이름들처럼 이 이름도 십중팔구 허구일 겁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더 잘 알려진 이름인 아르센 뤼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메모를 살펴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물론, 모든 수사를 다해 봤지만 당신의 신분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신처럼 과거가 전혀 없는 경우는 꽤 독특한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은 삼 년 전,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없게 불쑥 나타나, 순식간에 아르센 뤼팽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즉, 지성과 사악함, 비도덕성과 자비심이 뒤섞인 기이한 존재 말입니다. 그 시점 이전의 당신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여덟 해 전 마술사 딕슨의 조수로 일했던 로스타트가 바로 아르센 뤼팽일 것입니다. 또한 여섯 해 전 생루이 병원 알티에 의사의 실험실을 드나들며, 세균학에 대한 독창적인 가설과 피부병 실험에서의 과감함으로 스승을 놀라게 했던 러시아 학생 역시 뤼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센 뤼팽은 주짓수가 프랑스에서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파리에서 일본식 격투술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박람회 그랑프리에서 우승해 1만 프랑의 상금을 받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이클 선수도 뤼팽일 것입니다.

아마도 샤리테 자선 바자회의 작은 채광창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한 뒤, 정작 그들을 털어갔던 인물 역시 뤼팽일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판장이 결론지었다.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신이 사회를 상대로 벌인 싸움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단계, 당신의 힘과 에너지, 재주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체계적인 수련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들이 정확하다고 인정합니까?"

이 말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한쪽 다리로 다른 쪽 다리를 번갈아 받치며 몸을 흔들었다. 등은 굽었고 팔은 축 늘어져 있었다.

빛이 더 밝아지자 그의 극도로 마른 몸매가 드러났다. 볼은 패었고 뺨뼈는 유난히 튀어나왔으며, 얼굴빛은 흙빛에 작은 붉은 반점이 얼룩져 있었다. 고르지 않고 드문 수염이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다. 감옥 생활은 그를 크게 늙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신문에서 자주 보도했던 그 우아한 실루엣과 친근한 젊은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묻는 질문을 듣지 못한 듯했다. 질문은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때야 그는 고개를 들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극심한 노력 끝에 낮게 중얼거렸다.

"보드루, 데지레."

재판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채택한 방어 시스템의 정확한 실체를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르센 뤼팽. 어리석은 척하고 무책임한 척하며 노는 게 당신의

전략이라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기묘한 변덕에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뤼팽에게 씌워진 절도, 사기, 위조 혐의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뤼팽은 그저 투덜거리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었다. 무의미한 증언도 여러 건 있었고, 좀 더 중요한 증언도 있었지만, 모든 증언에는 서로 모순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모호함이 심리 전개를 감쌌지만, 수석 형사 가니마르가 출석하면서 흥미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초반부터 그 늙은 형사는 일종의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위축된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더 끔찍한 광경도 수없이 봐왔으니까. 대신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어딘지 불편해 보였다. 그는 여러 차례, 뚜렷이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며 피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럼에도 그는 양손을 법정의 난간 위에 괴고, 자신이 얽힌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유럽 전역을 누비며 쫓아다닌 추적,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었다. 청중은 그 이야기를 열렬히 들었는데, 마치 가장 스릴 넘치는 모험담을 듣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물쯤 다다랐을 때, 그는 아르센 뤼팽과의 대화에 대해 언급했다가 두 번이나 말을 멈췄다. 그는 산만해졌고, 망설임이 역력했다.

분명히 다른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렇다면 증언을 중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는 말을 멈추고 피고인을 오랫동안, 깊이 응시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을 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더 오래, 온 신경을 집중해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진술대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다소 엄숙한 어조로 선언했다.

"재판장님, 저는 여기서 저와 마주 서 있는 이 남자가 아르센 뤼팽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에 거대한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은 당황한 기색을 먼저 드러내며 외쳤다.

"뭐라고요! 당신은 미쳤소."

형사는 차분하게 단언했다.

"처음 보면 닮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코도, 입도, 머리카락도, 피부색도 다릅니다. 결국 뤼팽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눈이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눈을 뤼팽이 가졌던 적이 있나요?"

"잠시, 잠시. 설명부터 하시죠. 증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뤼팽은 자기 대신 처형될 뻔한 불쌍한 사람을 자기 자리에 세워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반전에 법정 안은 떠들썩해졌다. 비명, 웃음소리, 탄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재판장은 즉시 예심 판사와 상테 형무소장, 간수들을 불러들였고, 심문을 중단했다.

재심에서 부비에 씨와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면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했다. 아르센 뤼팽과 이 남자는 얼굴 생김새가 아주 희미하게 닮았을 뿐이라고.

"그렇다면,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 손에 잡힌 것인가?"

재판장은 소리쳤다.

그때 상테 형무소의 두 간수가 입장했다. 놀라운 모순이 일었다. 그들은 교대 근무로 감시해 온 이 수감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 간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분명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오? 당신은 확신하지 못하는 모양이오?"

"글쎄요. 저는 그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사람을 넘겨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달 동안 그는 항상 벽에 기대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두 달 전에는 어땠소?"

"아, 그전에는 이 사람이 24호 감방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장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한 뒤, 우리는 그 죄수를 다른 감방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당신, 교도소장님. 두 달 전부터 그를 직접 보셨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당신이 맡겨받은 죄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두 달 전에 누군가와 바뀐 셈이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대체?"

마지막 수단으로, 재판장은 죄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독이려는 어조로 물었다.

"자, 피고인. 당신을 어떻게, 언제부터 법정의 손아귀에 넣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정한 어조는 마치 그 남자의 경계심을 녹여내거나 이성을 깨우는 듯했다. 그는 대답해 보려 했다.

천천히, 부드럽게 질문을 이어가자 그는 겨우 몇 마디의 말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말속에는 이런 사정이 담겨 있었다. 두 달 전, 그는 유치장에 끌려왔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하룻밤과 오전 한때를 보낸 뒤, 75상팀의 돈을 지닌 채 풀려났다.

하지만 그가 안마당을 지나던 참이었다. 두 명의 경관이 그의 팔을 붙잡더니 구치소 차량까지 데려갔다.

그 후 그는 24호 감방에서 살아왔다. 불행하진 않았다. 음식도 괜찮았고, 잠도 나쁘지 않게 잤다. 그래서 그는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웃음소리와 격앙된 분위기 한가운데, 재판장은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었다.

조사는 곧바로 한 가지 사실을 규명했다. 구치소 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팔 주 전, 보드루 데지레라는 인물이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석방된 그는 오후 두 시에 유치장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두 시, 마지막 심문을 받던 아르센 뤼팽이 심문실을 나와 구치소 행 차량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간수들이 실수를 저질렀을까? 외모가 닮은 탓에, 잠시 부주의한 순간 그들 자신이 이 남자를 죄수와 바꿔치기한 것일까? 그러려면 정말이지 그들의 근무 경력으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묵인과 방조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 바꿔치기가 미리 짜인 일이었을까? 장소의 구조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 데다, 설령 그렇다 해도 보드루가 공범이어야 했고, 오로지 아르센 뤼팽의 자리를 대신할 목적으로 일부러 체포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터무니없이 불확실한 우연들과 뜻밖의 마주침, 믿기 힘든 실수들의 연속에만 전적으로 기댄 그런 계획이 대체 어떤 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단 말인가?

데지레 보드루를 인체측정과로 보냈지만, 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찾는 것은 쉬웠다. 쿠르브부아, 아니에르, 르발루아에서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구걸로 연명했고, 테른 성문 근처에 다닥다닥 모여 있는 넝마주이들의 오두막 중 하나에서 잠을 자곤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가 아르센 뤼팽의 지시를 받은 걸까? 그럴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 설령 그랬다 해도, 죄수의 도주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었을 것이다. 기적은 여전했다.

그 기적을 설명하려는 스무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도주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도주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웠다. 일반 대중이든 사법부든, 모두 긴 준비 과정의 산물임을 느꼈다. 서로 완벽하게 얽힌 일련의 행동들이었고, 그 결말은 아르센 뤼팽의 오만한 예언을 정당화했다.

"나는 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간 꼼꼼한 수사를 거듭했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이 불쌍한 바드루를 영원히 가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재판은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혐의를 씌울 수 있겠는가? 결국 예심판사가 그의 석방 명령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치안국장은 바드루 주변에 철저한 감시를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이 발상은 가니마르가 내놓은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우연도, 공모도 없었다. 바드루는 아르센 뤼팽이 놀라우리만치 능숙하게 다룬 도구에 불과했다. 바드루를 풀어주면, 그를 통해 뤼팽에게로, 적어도 그 무리 중 누군가에게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가니마르 형사에게 폴랑팡과 뒤지라는 두 형사가 보좌로 붙었다. 1월의 어느 안개 낀 아침, 상테 형무소의 문이 보드루 데지레 앞에서 열렸다.

그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뚜렷한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어정쩡한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상테 거리와 생자크 거리를 따라 걸었다.

헌 옷가게 앞에서 그는 재킷과 조끼를 벗더니, 조끼를 몇 수에 팔아치우고, 재킷만 다시 걸친 채 떠났다.

그는 센강을 건넜다. 샤틀레에서 옴니버스 한 대가 그를 지나쳤다. 그는 거기에 올라타려 했지만 자리가 없었다. 차장이 번호표를 받으라고 권하자, 그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때 가니마르 형사는 두 부하를 곁으로 불렀다. 사무실 창구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은 채, 그는 급하게 말했다.

"차 한 대를 세워라… 아니, 두 대가 더 안전하겠다. 너희 중 한 명과 내가 함께 저자를 따라가겠다."

두 사람은 즉각 따랐다. 하지만 보드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니마르가 앞으로 나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보 같으니," 그가 중얼거렸다. "두 번째 출구를 잊고 있었군."

실제로 그 사무실은 내부 복도를 통해 생마르탱 거리 쪽 사무실과 이어져 있었다. 가니마르가 재빨리 뛰쳐나갔다. 그는 마침 리볼리 거리 모퉁이를 돌고 있던 바티뇰-식물원 노선 옴니버스 이층에 올라탄 보드루를 가까스로 발견했다. 그는 달려가 옴니버스를 따라잡았다. 하지만 두 부하는 놓치고 말았다. 이제 추격은 그 혼자였다.

분노에 차오른 그는 절차고 뭐고 따지지 않고 당장 그놈의 멱살을 잡아채고 싶었다. 이 멍청이 행세를 하는 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교묘한 계략을 써서 자신을 동료들로부터 떼어놓은 게 아니었던가?

그는 보드루를 바라보았다. 보드루는 좌석에서 졸고 있었고,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다. 입을 살짝 벌린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멍청해 보였다. 아니, 이자가 노련한 가니마르를 속일 만한 상대는 결코 못 되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갈르리 라파예트 사거리에서 그 남자는 옴니버스에서 내려 라 뮈에트행 트램으로 갈아탔다. 그들은 오스만 대로와 빅토르 위고 거리를 따라 달렸다. 보드루는 라 뮈에트 역 앞에서야 내렸다. 그러고는 느긋한 걸음으로 불로뉴 숲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는 이 길에서 저 길로 옮겨 다니며 발길을 되돌리기도 하고 멀리 벗어나기도 했다. 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어떤 목적이 있기는 한 걸까?

이런 행동을 한 시간쯤 계속하자, 그는 몹시 지친 기색이었다. 마침내 벤치를 발견한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오퇴유에서 멀지 않은, 나무들 사이에 숨은 작은 호숫가에 자리한 그곳은 완전히 인적 없는 곳이었다. 반 시간이 흘렀다. 참다못한 가니마르는 결국 말을 붙여 보기로 했다.

그는 다가가 보드루 옆에 자리를 잡았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지팡이 끝으로 모래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날씨가 따뜻하진 않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쁨에 찬, 행복한 웃음이었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웃겨져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의 웃음처럼.

가니마르는 분명히, 실제로 느꼈다. 자신의 머리칼이 들썩이는 두피 위로 쭈뼛 서는 것을. 바로 그 웃음이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마 같은 그 웃음이!

그는 급작스러운 동작으로 남자의 재킷 깃을 잡았다. 그리고 그를 깊이, 격렬하게, 심지어 법정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

았다. 그리고 진실로, 이제 더 이상 그는 그저 한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남자를 보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람, 즉 진짜 그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의지라는 공모자의 도움을 받아, 그는 눈 속 뜨거운 생기를 되찾아 갔고, 야윈 가면 같은 얼굴을 메워 갔으며, 상한 피부 아래 진짜 살결을, 일그러진 입매 너머 진짜 입술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었고, 다른 사람의 입이었으며, 무엇보다 날카롭고 생기 넘치며 조롱기 어린, 재기발랄하고 그토록 또렷하고 젊은 그 표정이었다.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 그가 더듬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그의 목을 조르며 그를 쓰러뜨리려 했다. 쉰 살이 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남다른 기력을 지니고 있었고, 반면 상대는 상태가 꽤 안 좋아 보였다. 게다가 그를 다시 잡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공적이겠는가!

싸움은 짧았다. 아르센 뤼팽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가니마르는 공격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손을 놓아야 했다. 그의 오른팔이 감각을 잃은 채 축 늘어졌다.

"오르페브르 강변 경찰청에서 주짓수를 배워뒀더라면," 뤼팽이 말했다. "이 기술이 일본말로 우데시기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그러고는 차갑게 덧붙였다.

"1초만 더 있었으면 당신 팔을 부러뜨렸을 거고, 그래도 당신은 당해도 쌌을 거요. 아니, 당신은 내가 아끼는 오랜 친구이고, 내가 스스로 정체까지 드러내 보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믿음을 악용할 수 있소? 못된 짓이오… 그런데, 왜 그러시오, 어디 안 좋소?"

가니마르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탈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다. 자신의 충격적인 증언이 법원을 그릇된 판단으로 이끈 것이 아니던가? 이 탈옥은 그의 경력에 먹칠을 한 수치처럼 느껴졌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희끗한 콧수염 쪽으로 흘러내렸다.

"이런, 가니마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았더라도, 내가 다른 누군가가 말하도록 손을 써뒀을 거요. 자, 보드루 데지레가 유죄 선고를 받게 둘 수야 없는 노릇 아니겠소?"

"그럼," 가니마르가 중얼거렸다. "거기 있었던 게 당신이었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당신이고!"

"나요, 언제나 나, 오직 나뿐이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마법사가 될 필요까진 없소. 저 선량한 재판장이 말했듯, 어떤 일이 닥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열두 해쯤 준비하면 그만이오."

"그런데 당신의 얼굴은요? 눈은요?"

"제가 생루이 병원에서 알티에 박사와 함께 18개월을 보낸 게 예술을 사랑해서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저는 언젠가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면, 겉모습과 신원이라는 평범한 법칙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겉모습? 그거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소. 파라핀 피하 주사 한 방이면 원하는 자리만 골라 살을 부풀릴 수 있지요. 피로갈산은 당신 피부를 모히칸족처럼 검붉게 만들고, 큰애기똥풀 즙은 더없이 그럴듯한 부스럼과 종기를 만들어 줍니다.

어떤 화학적 처리는 수염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작용하고, 또 어떤 처리는 목소리의 울림을 바꾸지요. 여기에 24호 감방에서 두 달간 단식하고, 입을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고개를 이 각도로, 등을 이 곡선으로 두는 연습을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아트로핀을 다섯 방울 떨어뜨려 초점 없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으로 만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요."

"간수들이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변신이 서서히 진행됐으니까요.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걸 그들이 알아챌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진짜 보드루 데지레는요?"

"보드루는 존재해. 그는 아주 순진한 무고한 사람이지. 내가 작년에 우연히 만났는데, 나하고 외모가 꽤 비슷하더군. 언제든 체포될 수 있

다는 걸 미리 대비해서, 나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최대한 비슷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

내 친구들이 그를 유치장에 하루 밤 묵게 했어. 그래서 그가 나와 거의 같은 시각에 나올 수 있도록 했지.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출소한 정황이 쉽게 확인될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지나간 흔적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야. 만약 그가 없었다면, 법원은 '도대체 네가 누구냐'고 의문을 품었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훌륭한 '보드루'를 대신 내세우자,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지.

물론 신분 대체의 불가능한 난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보다 '무언가 대체된 것'이라고 믿는 편을 택했을 거야."

"네, 맞아요." 가니마르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게다가!" 아르센 뤼팽이 외쳤다. "나는 이미 초반부터 준비한 막강한 한 장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바로 모두의 기대가 내 탈출에 쏠려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 점, 여러분이 저지른 터무니없는 실수 말이다. 정의와 내가 벌인 이 치열한 게임에서, 내 자유를 건 이 판에서 말이다. 여러분은 또다시 내가 과시욕에 불탔다고, 성공에 도취된 풋내기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했다. 나, 아르센 뤼팽이 그런 약점을 보일 리가 없다!"

"카호른 사건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아르센 뤼팽이 지붕 위에서 탈출한다고 떠들고 있다면, 그에게 그럴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젠장, 이해해라! 탈출하지 않고 탈출하려면, 사람들이 이미 그 탈출을 믿어야 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어야 했고, 절대적인 확신이어야 했다. 해처럼 분명한 진실이어야 했다."

"그렇게 되었다. 내 의지대로 말이다. 아르센 뤼팽은 탈출할 것이다. 아르센 뤼팽은 자신의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 '이 남자는 아르센 뤼팽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가 아르센 뤼팽이 아니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심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 사람이 아르센 뤼팽이라면?'이라는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면, 그 순간 나는 끝장 났을 것이다."

"그냥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되었다. 여러분처럼 '내가 아르센 뤼팽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가 아르센 뤼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러면 나의 모든 대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은 나를 알아볼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평온했다. 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작은 생각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가니마르의 손을 잡았다.

"자, 가니마르. 상테 형무소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 내가 부탁한 대로 일주일 뒤 오후 네 시에 집에서 나를 기다렸다는 걸 인정하시오?"

"그럼 감옥 행 차량은요?" 가니마르는 대답을 피하며 물었다.

"속임수일 뿐이오. 내 친구들이 그 낡고 고장 난 차량을 수리해 대신 준비한 거요. 그들은 그 기회를 노렸지만, 나는 그 방법이 특별한 상황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소. 다만 그 탈출 시도를 완성하고 최대한의 주목을 끌 필요를 느꼈소. 대담하게 계획된 첫 번째 탈출이 두 번째 탈출을 미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시가르는…"

"내가 직접 파고 칼도 준비했소."

"쪽지는?"

"내가 직접 쓴 거야."

"그리고 신비로운 편지 상대는?"

"그녀와 나는 하나야. 나는 어떤 필적도 마음대로 흉내 낼 수 있어."

가니마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반문했다.

"인체측량국에서 보드루의 파일을 접수했을 때, 왜 아르센 뤼팽의 파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

"아르센 뤼팽의 파일은 존재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정확히 말하면, 위조된 거지. 이 문제는 내가 아주 깊이 연구했어. 베르티옹 방식은 먼저 시각적 특징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해. 하지만 그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도 알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머리, 손가락, 귀 등의 치수를 재는 과정이 따르지. 그쪽은 어쩔 수 없어."

"그럼 대체 어떻게?"

"그래서 결국 돈을 지불해야 했죠. 미국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측량국 직원 한 명이 내 신체 측정 첫 단계에 가짜 수치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조작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파일은 원래 가야 할 곳이 아닌 정반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드루 파일과 아르센 뤼팽 파일은 일치할 수 없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가니마르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나는 쉴 거야." 뤼팽이 외쳤다. "과식 요법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천천히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보드루가 되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되든, 셔츠를 갈아입듯 인격을 바꾸고 외모와 목소리, 눈

빛, 필체까지 선택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정작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건 정말 슬픈 일이 되지."

"지금 나는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나를 다시 찾아나설 거야. 그리고 다시 나를 발견하지."

그는 안을 오가며 거닐었다. 낮빛이 희미해지며 어스름이 섞이고 있었다. 그는 가니마르 앞에 멈춰 섰다.

"우리 할 말은 다 끝난 것 같아?"

"아니요." 형사가 대답했다. "당신이 탈옥 사실을 모두 폭로할지, 내가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싶어요."

"아, 아무도 내가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을 거야. 난 내 주변에 가장 신비로운 어둠을 쌓아 올리는 게 내 이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탈옥이 거의 기적 같은 사건으로 남게 놔둔 거지. 그러니 걱정 마, 내 친구. 이제 작별인사야. 오늘 저녁 외식 약속이 있어서 옷을 입을 시간이 딱 이 정도밖에 없어."

"당신이 그렇게 쉬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야. 사회적 의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법이지. 내일은 분명 쉴 수 있을 거야."

"그럼 저녁은 어디에서 먹는 거지?"

"영국 대사관에서."

수수께끼의 여행자

전날, 나는 내 자동차를 루앙으로 도로를 통해 보냈다. 기차로 그곳에 합류한 뒤, 세느 강변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파리에서 출발 직전, 일곱 명의 신사가 내 좌석 칸으로 몰려들어왔다. 그중 다섯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급행 열차의 짧은 여정이라지만, 그런 동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은 불쾌했다. 더구나 낡은 형식의 객차는 복도도 없었다.

나는 코트와 신문, 시간표를 챙겨 근처 칸 중 하나로 피신했다.

그곳에는 한 부인이 앉아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마도 남편일 터였다. 그는 그녀를 역까지 배웅하러 온 듯했다.

남자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내 나를 인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그는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은 모양이었

다. 그는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엇이라 속삭였다. 아이를 달래주듯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부인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친근한 눈빛을 보내왔다. 마치 내가 무해한 신사임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내가 여섯 제곱피트짜리 좁은 객차에서 두 시간이나 함께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사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남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사랑. 급한 약속이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

그는 그녀를 다정하게 입맞춤했다. 그리고는 자취를 감췄다.

그의 부인은 창문 너머로 은밀한 키스를 날리며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때, 휘파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우리 칸으로 불쑥 나타났다.

그때 일어서서 짐을 그물 선반에 정리하고 있던 내 동행자는 비명을 지르며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지만 이런 마지막 순간의 습격은 언제나 불편하기 마련이다.

그것들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만 새로 나타난 남자의 모습과 태도는, 그가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생겼을 나쁜 인상을 오히려 누그러뜨릴 만했다. 그는 단정했고, 거의 우아할 정도였다. 품위 있는 넥타이, 깨끗한 장갑, 단단한 인상의 얼굴…… 그런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었을까?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분명 본 적이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런 종류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여러 번 본 초상화 속 인물인데, 정작 본체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남기는 그런 기억이었다.

동시에 나는 기억을 더듬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 기억이 너무도 허술하고 희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시선을 다시 그 여인에게로 돌렸을 때,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일그러진 표정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옆자리 남자—두 사람은 같은 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한 손이 심하게 떨리며, 무릎에서 불과 스무 센티미터 떨어진 벤치 위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그녀는 그 가방을 움켜쥐고는, 초조하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지극한 당황과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마담, 몸이 편찮으신가요? … 창문을 좀 열어 드릴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두려운 눈길로 그 남자를 가리켰다. 나도 그녀의 남편처럼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손짓으로 그녀에게 안심하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 아무 걱정도 없으며, 저 남자는 전혀 무해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때 그가 우리를 돌아보았다. 한 명씩,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보더니 다시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부인은 마치 모든 기운을 모아 절망적인 행동을 하려는 듯,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가 우리 기차에 탔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은, 제가 장담합니다."

"누구요?"

"아르센 뤼팽!"

그녀는 그 여행객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고, 그 두려운 이름의 음절들을 나에게가 아니라 바로 저 여행객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코까지 눌러썼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반박했다.

"아르센 뤼팽은 어제 궐석재판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그가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상테 형무소 탈출 이후, 이번 겨울 내내 터키에 있었다는 신문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열차 안에 있어요."

부인은 점점 더 또렷하게 우리 동승객에게 들리게 하려는 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제 남편은 교정국 차관보예요. 그리고 역 경찰서장이 직접 우리에게 뤼팽을 찾고 있다고 말해줬답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죠…"

"대합실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루앙행 1등석 표를 끊었죠."

"그 정도면 붙잡기 쉬웠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사라졌습니다. 대합실 입구의 검표원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교외선 승강장을 통해 빠져나가 우리보다 십 분 뒤에 출발하는 급행열차에 탔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럼 그 급행열차에서 잡혔겠죠."

"만약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급행열차에서 뛰어내려 우리 열차로 들어왔다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잡히겠네요. 역무원과 경찰들이 열차 간 이동을 분명 봤을 테니까요. 루앙에 도착하면 깔끔하게 체포할 겁니다."

"그는 절대 안 잡혀요! 또다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요."

"그럼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그전까지,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뭐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죠!"

그녀는 매우 초조해했다. 사실 그 상황은 그녀의 이런 신경질적인 흥분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만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 흥미로운 우연들이 있긴 하지… 하지만 안심하세요. 아르센 뤼팽이 이 객차들 중 하나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아주 얌전히 있을 거예요. 새로운 말썽을 자초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 말은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지, 결국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신문을 펼쳐 아르센 뤼팽의 재판 기사를 읽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밖에 없었기에, 그다지 흥미가 일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피곤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저절로 기울어졌다.

"하지만 선생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부인은 내 신문을 잡아채며 분개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건 더없이 무모한 짓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더없이 무모하죠." 나는 따라 말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풍경에 매달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에 손을 뻗었다.

그런데 이내 모든 것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흔들리는 여인의 모습과 졸고 있는 남자의 얼굴은 내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내 안에는 깊고도 깊은 잠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곧 얇고 허망한 꿈들이 그 고요함을 채웠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과 역할을 떠안은 인물이 꿈속에 등장했다.

그는 지평선 너머를 맴돌았다. 등에는 보물 같은 물건들을 가득 실은 채, 벽을 뚫고 성을 비워버렸다.

하지만 그 인물의 실루엣은 또렷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르센 뤼팽이 아니었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점점 커지더니, 놀라운 재주로 객차 안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정면으로 내 가슴에 떨어졌다.

격렬한 통증… 찢어질 듯한 비명… 나는 깨어났다. 그 남자, 그 여행객이 무릎으로 내 가슴을 누른 채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눈에 핏발이 서서 모든 것이 아주 흐릿하게 보였다. 구석에서 신경 발작을 일으키며 몸부림치는 부인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게다가 그럴 힘도 없었을 것이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숨이 막혀왔다… 신음 소리만 새어 나왔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 그대로 질식이었다.

남자도 그것을 느꼈는지 조르던 손을 늦췄다. 그는 물러서지 않은 채 오른손으로 올가미 매듭을 만들어 둔 밧줄을 내밀더니, 단호한 손짓으로 내 두 손목을 묶었다. 순식간에 나는 결박당하고, 입이 틀어막히고, 꼼짝 못 하게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 일을 해냈다. 그 능숙함에는 도둑질과 범죄의 전문가, 즉 거장의 솜씨가 드러나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초조하게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오직 냉정함과 대담함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미라처럼 꽁꽁 묶인 채 좌석에 놓여 있었다. 바로 나, 아르센 뤼팽이!

사실, 웃음이 나올 만했다. 상황이 엄중했음에도, 나는 이 처지가 지닌 아이러니와 묘한 재미를 충분히 음미하고 있었다. 아르센 뤼팽이 풋내기처럼 당하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털리다니. 물론 그 강도는 내 돈주머니와 지갑까지 챙겨갔다! 이 아르센 뤼팽이 이번엔 피해자가 되어 속고 패배하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모험인가!

이제 부인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저 카펫 위에 떨어진 작은 손가방을 주워, 그 안에 든 보석과 동전 지갑, 금은 장신구를 꺼낼 뿐이었다. 부인은 한쪽 눈을 떴다가 공포에 흠칫 떨더니, 그에게 쓸데없는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는 듯 반지를 빼서 남자에게 내밀었다. 그는 반지를 받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말없이 차분하게, 더는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자신이 손에 넣은 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검토는 그를 완전히 만족시킨 듯했다.

나는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부당하게 빼앗긴 만 이천 프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 손실은 잠시 받아들일 뿐, 나는 그 만 이천 프랑이 머지않아 다시 내 손에 들어오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아주 중요한 서류들, 즉 계획서, 견적서, 주소, 연락책 명단, 그리고 발각되면 곤란해질 편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당장은 더 시급하고 심각한 걱정이 나를 괴롭혔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론 생라자르 역을 지날 때 일어난 소동이 내 눈에 띄지 않았을 리 없다. 나는 기욤 베르라라는 이름으로 드나들던 친구들 집에 초대받은 처지였는데, 그들에게 내가 아르센 뤼팽을 닮았다는 건 정겨운 농담거리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변장할 수가 없었고, 결국 내 존재가 신고되고 말았다. 게다가 사람들은 한 남자가, 분명 아르센 뤼팽일 그자

가 급행열차에서 우리가 탄 특급열차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따라서 전보로 미리 연락받은 루앙의 경찰서장이 상당수의 경찰관을 거느리고 열차 도착 시각에 맞춰 나와, 수상한 승객들을 심문하고 객차들을 샅샅이 수색하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모든 걸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다지 동요하지도 않았다. 루앙 경찰이 파리 경찰보다 더 예리할 리 없고, 나라면 충분히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출구에서 의원증을 슬쩍 내보이기만 하면 됐다. 생라자르 역 검표원도 그 덕분에 이미 나를 완전히 믿지 않았던가? 하지만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다. 평소처럼 한 수를 부려볼 수도 없었다. 어느 객차에선가 경찰서장은, 운 좋은 우연이 손발을 묶어 보내준 아르센 뤼팽 씨를, 양처럼 순한 데다 포장까지 끝나 만반의 준비가 된 채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저 인수만 하면 된다. 마치 역으로 배달된 우편 소포를, 사냥한 짐승이 든 바구니나 과일·채소 바구니를 받듯이.

이 곤란한 결말을 막으려 한들, 붕대처럼 칭칭 감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특급열차는 다음이자 유일한 정차역인 루앙을 향해 내달리며 베르농과 생피에르를 정차 없이 지나쳤다.

또 다른 문제가 내 흥미를 끌었다.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었지만, 그 해답은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내 동승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약 나 혼자였다면, 그는 루앙에서 느긋하게 내릴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부인은? 객차 문이 열리자마자, 지금은 저토록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도움을 청할 텐데!

그래서 나는 더욱 의아했다. 어째서 그는 그녀를 나처럼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자신의 두 가지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사라질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망설이듯 내리던 비가 허공에 굵고 비스듬한 줄을 긋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은 그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번 그는 고개를 돌려 내 기차 시간표를 집어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쪽 부인은 적을 안심시키려 의식적으로 실신한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배 연기에 자극받은 기침이 그녀의 연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나는 몹시 불편했다. 온몸이 쑤셨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머리를 굴렸다.

퐁드라슈, 오이젤……. 급행 열차는 기쁨에 차, 속도에 취한 듯 달리고 있었다.

생테티엔……. 그 순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두 발짝 걸어왔다. 이에 부인은 새된 비명과 진짜 실신으로 즉각 대응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린 걸까?

그가 우리 쪽 유리창을 내렸다. 빗줄기가 이제야 거세게 쏟아졌다. 우산도 외투도 없는 게 귀찮았는지, 그의 동작에서 짜증이 역력했다.

그가 짐 선반을 힐끔 보았다. 부인의 간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내 외투도 함께 챙겨 입었다.

우리는 센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는 바지 끝단을 걷어 올린 뒤, 몸을 구부려 바깥쪽 잠금장치를 들어 올렸다.

그는 선로 위로 뛰어내릴 생각인가? 그 속도로는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열차는 생트카트린 언덕 아래 뚫린 터널로 쑥 들어갔다. 남자는 차 문을 살짝 열고, 발끝으로 첫 번째 계단을 더듬어 찾았다.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캄캄한 어둠, 짙은 연무, 시끄러운 굉음. 이런 조건에서 그런 모험을 시도한다는 건 기이한 환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열차가 속도를 줄였다. 웨스팅하우스 제동이 바퀴의 추진력을 막아섰다. 단 일분 만에 속도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 느려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터널의 이 구간에는 보강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아마 며칠 전부터 열차를 서행시켜야 했을 것이고,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발을 계단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두 번째 계단으로 내려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전에 잠금을 걸고 문도 닫아 두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연기가 더 희게 빛났다. 우리는 계곡으로 빠져나왔다. 터널이 하나 더 지나자, 우리는 루앙에 도착했다.

즉시 그 여자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보석 분실에 대한 한탄이었다. 나는 눈으로 그녀를 간청했다. 그녀는 이해했고, 내 목을 조르던 천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내 묶인 손도 풀려주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아니요, 아니요. 경찰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악당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비상벨을 당기면 어때요?"

"너무 늦었어요. 그가 나를 공격했을 때 그렇게 해야 했죠."

"하지만 그가 날 죽였을 거예요! 아, 선생님, 그가 이 열차에 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초상화를 보고 바로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가 내 보석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르센 뤼팽을요? 절대 못 잡아요."

"그건 당신께 달렸죠, 마담. 잘 들으십시오. 내리자마자 차문 쪽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세요. 경찰과 직원들이 달려올 테니까요. 그때 당신이 본 일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제가 당한 습격과 뤼팽의 도주 사실을요. 그의 인상착의를 말하십시오. 부드러운 모자, 우산—당신의 우산이죠—허리선이 있는 회색 외투."

"당신의 외투 말이죠."

"뭐, 내 거? 아니, 그의 외투야. 나는 외투를 입지 않았어."

"그가 올라탈 때도 외투를 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면 선반에 두고 잊은 옷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려올 때는 분명 입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허리선 있는 회색 외투, 기억하세요… 아, 깜빡했네요. 우선 당신 이름부터 대세요. 남편의 직위를 들으면 이 사람들 모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열차가 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차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 내 말이 선명하게 새겨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조금 높여 거의 명령조로 말했다.

"내 이름도 말해 줘. 기욤 베르라. 필요하면 나를 안다고 해도 돼… 시간이 아까워요. 예비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해요… 중요한 건 아르센 뤼팽을 쫓는 거죠. 당신의 보석은… 틀림없죠? 기욤 베르라, 당신 남편의 친구라고요."

"알았어요… 기욤 베르라."

그녀는 이미 목소리를 높이며 팔을 휘저었다. 기차가 멈추기도 전에 한 신사가 올라탔고, 그 뒤를 여러 남자들이 따라붙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부인이 헐떡이며 소리쳤다.

"아르센 뤼팽… 그가 우리를 습격했어요. 보석을 훔쳐갔죠. 저는 레노 부인입니다. 남편은 교정국 부국장이에요. 아, 마침 저기 제 동생 조르주 아르델이 있네요. 루앙 신용은행의 이사죠. 당신도 아시겠지요…"

그녀는 우리 곁으로 다가온 젊은 남자를 끌어안았고, 경찰서장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또다시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르센 뤼팽… 이분이 잠든 사이, 그가 목을 조르더군요. 베르라 씨, 제 남편의 친구예요."

경찰서장이 물었다.

"그런데 아르센 뤼팽은 어디 있소?"

"센강을 지난 뒤, 터널 안에서 기차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그가 맞다고 확신하시오?"

"물론 확신합니다. 분명히 봐뒀거든요. 게다가 생라자르 역에서도 목격됐다고 해요. 부드러운 모자를 쓰고 있었죠…"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 모자처럼 단단한 펠트 모자였습니다."

경찰서장이 내 모자를 가리키며 정정했다.

"부드러운 모자라니까요, 단언합니다."

레노 부인이 다시 말했다. "회색 외투도 입었죠. 허리선이 있는."

"그렇군요."

경찰서장이 중얼거렸다. "전보에 회색 외투, 허리선, 그리고 검은 벨벳 칼라가 있다고 적혀 있네요."

"바로 그 검은 벨벳 칼라요!"

레노 부인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나는 숨을 돌렸다. 아, 정말 고마운, 더없이 훌륭한 친구였다!

경찰관들이 내 결박을 풀어주었다.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피가 흘렀다.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로 있어 몸이 굽었고, 입에는 손수건을 대고 있었다. 얼굴에는 재갈의 흔적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불편한 자세를 오래 견디고 입가에 재갈 자국이 남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나는 약한 목소리로 경찰서장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건 아르센 뤼팽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둘러 쫓아간다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조사에 쓰일 객차는 분리되었다. 기차는 르아브르로 계속 달렸다. 우리는 승강장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사이를 지나 역장실로 향했다.

그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적당히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 자동차를 찾아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했다. 만약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파리에서 전보라도 도착하면, 나는 끝장이었다.

그렇지만 내 도둑은 어찌 되지? 낯선 지역에서 혼자 남은 처지로는 그를 따라잡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머물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승산은 낮지만, 그만큼 해볼 만한 게임이지. 게다가 판돈도 만만치 않아.'

우리가 진술을 잠시 더 이어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나는 소리 내어 말했다.

"경찰서장님, 지금 아르센 뤼팽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자동차가 마당에 기다리고 있죠. 기꺼이 타 주신다면, 우리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찰서장이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요. 아니, 어찌나 좋은 생각인지 이미 실행에 들어갔답니다."

"네, 선생님. 제 부하 두 명이 이미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좀 전부터요."

"어디로요?"

"바로 터널 출구 쪽으로요. 거기서 단서와 증언을 수집하고, 아르센 뤼팽의 발자취를 쫓을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부하들은 단서도 증언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정말요?"

"뤼팽은 터널에서 나오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손을 써 뒀을 겁니다. 곧장 가장 가까운 도로로 나갔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루앙으로 가서, 우리가 그를 잡는 거죠."

"그는 루앙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근처에 머물겠지요. 그럼 우리가 더 확실히 잡을 수 있고요…"

"그는 근처에도 머물지 않을 겁니다."

"오, 오! 도대체 어디에 숨는단 말이오?"

나는 시계를 꺼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아르센 뤼팽은 다르네탈 역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 즉 22분 뒤면 그는 루앙 북역에서 아미앵으로 가는 열차를 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어떻게 그걸 아셨소?"

"아주 간단합니다. 객실에서 뤼팽은 제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봤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라진 곳 근처에 다른 노선이나 그 노선의 역, 그리고 그 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있는지 확인하려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표를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답이 나왔죠."

"정말이지, 선생님," 경찰서장이 말했다. "놀라운 추리입니다. 대단한 실력이군요!"

내 확신에 이끌려, 나는 지나친 능란함을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의심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의심은 미미했다. 검찰이 사방으로 보낸 사진들이 너무 불완전했고, 그 사진 속의 아르센 뤼팽은 지금 눈앞에 있는 나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알아보기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당황해 있었다. 영문 모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엇인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말을 막아섰다. 나조차도 어색한 떨림에 몸을 떨었다. 운이 나를 등지려는 걸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지갑을 잃고 되찾고자 하는 마음만큼 이해를 빠르게 열어주는 것도 없죠. 만약 형사님께서 제 부하 두 명을 보내주신다면, 저와 함께라면 아마도…"

"오, 제발요, 형사님." 레노 부인이 외쳤다. "베르라 씨의 말을 들어주세요."

훌륭한 친구의 개입은 결정적이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의 아내인 그녀가 입에 담은 '베르라'라는 이름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이름이 되었다. 그 이름은 어떤 의심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정체성을 부여해주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르라 씨,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아르센 뤼팽의 체포에 그 누구보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차까지 안내했다. 그가 소개한 두 명의 형사, 오노레 마솔과 가스통 델리베도 차에 올랐다. 내가 핸들을 잡았다. 내 정비원이 시동을 걸었다. 몇 초 후, 우리는 역을 떠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 고백하건대, 노르망디의 오래된 도시를 둘러싼 대로 위를 내 35마력 모로-레탕의 강력한 속도로 달릴 때, 나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엔진이 조화롭게 울렸다. 좌우로 나무들이 우리 뒤로 사라져 갔다. 자유롭고 위험에서 벗어난 나는, 이제 공권력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성실한 일꾼의 협력을 받아 내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었다. 아르센 뤼팽이 아르센 뤼팽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사회 질서를 받치는 조그만 보좌관들, 델리베 가스통과 마솔 오노레. 너희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너희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너희가 없었다면, 아르센 뤼팽은 길을 잘못 들었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먼저 그 남자를 따라잡아야 했고, 그 다음에는 그가 훔쳐간 내 문서를 내가 직접 되찾아야 했다. 어떤 경우에도 두 동료가 그 문서에 손을 대거나, 더구나 그것을 가져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을 이용하면서도 그들 몰래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르나타르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지나간 지 3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었다. 회색 외투를 입고 허리가 잘록하며 검은 벨벳 깃이 달린 차림의 한 남자가, 아미앵행 표를 들고 2등 칸에 올랐다는 것이다.

확실히 경찰로서의 내 출발은 제법 그럴듯했다.

델리베가 말했다.

"이 기차는 급행이야. 19분 뒤 몬테로리에-뷔시에만 멈춰. 우리가 뤼팽보다 먼저 도착하지 못하면, 그는 아미앵으로 계속 가거나 클레르로 갈라져 디에프나 파리로 갈 수 있어."

"몬테로리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23킬로미터."

"23킬로미터를 19분 안에? 우리가 저보다 먼저 도착하겠군요."

흥미진진한 여정이었다! 내 충실한 모로-레퇑은 내 조급함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한결같이 화답했다. 나는 레버나 핸들을 거치지 않고 내 의지를 직접 기계에 전달하는 것만 같았다. 그 차는 나의 열망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나의 집념에 동의했고, 저 악당 아르센 뤼팽에 대한 나의 적대감을 이해하는 듯했다. 음흉한 놈! 배신자! 내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 그가 또다시 권위를, 바로 내가 그 화신인 그 권위를 농락할 것인가?

"오른쪽!" 델리베가 외쳤다. "왼쪽! … 직진!"

우리는 지면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이정표 돌들은 우리가 다가가면 사라지는 작은 겁쟁이 동물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길이 꺾이는 곳에서 연기가 소용돌이쳤다. 북행 특급 열차였다.

한 킬로미터 동안 우리는 나란히 달렸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평한 경주였고,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결승선에서 우리는 그보다 스무 차 길이 차로 앞섰다.

삼 초 만에 우리는 2등석 객차 앞 플랫폼에 내려섰다. 문이 열리자 몇몇 승객이 내렸다. 하지만 내 도둑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객차 안을 샅샅이 뒤졌다. 아르센 뤼팽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기랄!" 내가 외쳤다. "우리가 나란히 달릴 때 자동차 안의 나를 알아보고 뛰어내린 거야."

열차 차장이 내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역에서 이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흙둑을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저기, 저쪽… 건널목을 건너는 저 사람 말이오."

나는 두 동료를 데리고 달려 나갔다. 아니, 정확히는 한 명만 따라왔다. 다른 한 명인 마솔이 지구력과 속도를 겸비한 보기 드문 달리기 선수였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마솔과 도망자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남자는 마솔을 발견하자 울타리를 넘어 비탈로 재빨리 달아나기어올랐다. 우리는 그가 더 멀리, 작은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그 숲에 도착했을 때, 마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놓칠까 봐 더 이상 따라 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참 잘했네, 친애하는 친구."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만큼 달렸으니 그자도 숨이 턱까지 찼을 거야. 이제 우리가 그를 잡았네."

나는 주변을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도망자를 혼자 체포해, 내가 직접 압수품을 회수할 방법을 말이다. 사법 당국이 불쾌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만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동료들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쉽습니다. 마솔, 당신은 왼쪽에 서 계십시오. 델리베,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그곳에서 수풀 뒤쪽 전체를 감시하십시오. 도망자가 그쪽에서 빠져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골짜기 길뿐인데, 저는 거기에 위치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 테고, 필연적으로 그는 저쪽이나 이쪽 중 하나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총을 한 발 쏘십시오."

마솔과 델리베는 각기 다른 쪽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갔다. 발각되지도,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다.

숲은 사냥용으로 정비된 울창한 덤불로 가득했다. 그 사이로 매우 좁은 길이 나 있어, 마치 푸른색 지하도를 걷듯 허리를 굽혀야만 통과할 수 있었다.

그 길 중 하나가 끝나는 곳에는 작은 개활지가 나왔다. 젖은 풀밭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덤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그 발자국을 쫓았다.

발자국은 작은 언덕 기슭으로 이어졌다. 언덕 위에는 반쯤 허물어진 석고 벽돌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 저기 있을 거야. 관측소로선 아주 좋은 자리야.'

나는 건물 가까이까지 기어갔다. 가벼운 소리가 그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실제로 나는 틈새로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두 번 도약해 그를 덮쳤다. 그는 손에 쥔 권총을 겨누려 했지만, 나는 그럴 틈을 주지 않고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의 두 팔은 몸 아래로 꺾여 꼼짝할 수 없었고, 나는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봐, 꼬마." 나는 그의 귀에 대고 말했다. "나는 아르센 뤼팽이다. 너는 지금 당장 순순히 내 지갑과 그 부인의 가방을 내놔라. 그러면 경찰의 손아귀에서 너를 빼내 내 친구로 삼아 주지. 한 마디면 돼. 그래, 아니야?"

"네." 그가 속삭였다.

"잘 생각했어. 오늘 아침 네 수법은 제법 잘 짜여 있더군. 우린 잘 통할 거야."

내가 일어서자, 그는 주머니에서 큰 칼을 꺼내 나를 찌르려 했다.

"멍청한 놈!" 내가 외쳤다.

나는 한 손으로 공격을 막고, 다른 손으로 그의 경동맥을 세게 가격했다. 이른바 '경동맥 후크'라는 기술이었다. 그는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내 지갑에서 서류와 지폐를 되찾았다. 호기심에 그의 지갑도 집어들었다. 그에게 온 봉투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읽었다. '피에르 온프리'.

나는 흠칫 놀랐다. 피에르 온프리, 오퇴유 라퐁텐 거리의 살인범이 아닌가! 델부아와 그 두 딸의 목을 베어 죽인 자, 바로 그 피에르 온프리였다. 나는 그에게 몸을 굽혔다. 그렇다, 객차 안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내게 떠올리게 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백 프랑짜리 지폐 두 장을 봉투에 넣고, 명함과 함께 이런 말을 적었다. "아르센 뤼팽이 그의 훌륭한 동료 오노레 마솔과 가스통 델리베에게, 감사의 표시로." 나는 그 봉투를 방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그 옆에는 르노 부인의 가방을 두었다. 나를 구해 준 그 훌륭한 친구에게 가방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고백하건대, 나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것은 모두 꺼내고, 거북 등딱지 빗 하나와 도랭 립스틱, 그리고 빈 동전지갑만 남겨 두

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일은 일이니까. 게다가 그녀의 남편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으니!

남은 것은 그 남자였다. 그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구할 권한도, 심판할 권한도 내게는 없었다.

나는 그의 무기를 빼앗고 총을 공중으로 한 발 쏘았다.

'나머지 두 명도 곧 올 거야.' 나는 생각했다. '저놈이 알아서 빠져나가겠지! 일은 그의 운명대로 흘러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카베 길을 따라 달려 멀어졌다.

스무 분 뒤, 추격하던 중에 눈여겨봐 두었던 샛길이 나를 다시 자동차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었다.

오후 네 시, 루앙에 있는 친구들에게 뜻밖의 사건 때문에 방문을 미뤄야 한다고 전보를 쳤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들이 지금쯤 알게 되었을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그 방문을 영영 미뤄야 할까 봐 몹시 걱정스럽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실망이 될 것이다!

오후 여섯 시, 나는 릴아당과 앙기엔, 비노 문을 거쳐 파리로 돌아왔다.

저녁 신문들을 통해 마침내 피에르 옹프레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다음 날 — 영리한 홍보의 이점을 무시할 수야 없으니 — 『프랑스의 메아리』지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단신을 실었다.

"어제 부시 인근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르센 뤼팽이 피에르 옹프레를 체포했다. 라퐁텐 거리의 살인범은 방금 파리-르아브르 선에서 교도행정국 차장의 부인인 르노 부인의 보석이 든 가방을 턴 참이었다. 아르센 뤼팽은 르노 부인에게 보석이 든 가방을 돌려주었고, 이 극적인 체포를 도운 두 명의 보안국 요원에게 후하게 보상했다."

왕비의 목걸이

일 년에 두세 번,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무도회나 빌링스턴 부인의 야회 같은 중요한 행사 때면, 드뢰수비즈 백작 부인은 하얀 어깨 위에 '왕비의 목걸이'를 둘렀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목걸이, 전설적인 목걸이였다. 왕실 보석상 뵈메르와 바생이 뒤바리 부인에게 주려고 만들었고, 로앙수비즈 추기경이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바치는 줄로 믿었으며, 모험가 잔 드 발루아, 곧 라 모트 백작 부인이 1785년 2월 어느 밤 남편과 그들의 공범 레토 드 빌레트의 도움을 받아 산산이 해체해 버린 그 목걸이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진품인 것은 받침대(틀)뿐이었다. 레토 드 빌레트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라 모트 씨와 그의 아내는 거칠게 빼낸 보석들, 뵈메르가 그토록 정성껏 골랐던 그 훌륭한 보석들을 사방으로 흩어 팔아 버렸다. 훗날 이탈리아에서 그는 그 받침대를 추기경의 조카이자 상속인인 가스통 드 드뢰수비즈에게 팔았다. 가스통은 로앙

게메네의 떠들썩한 파산 사건 때 추기경 덕분에 파멸을 면했던 사람으로, 삼촌을 기리며 영국 보석상 제프리스가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다이아몬드를 다시 사들였고, 거기에 크기는 같지만 가치는 훨씬 떨어지는 다른 돌들을 보태어, 뵈메르와 바생의 손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대로의 그 놀라운 '노예 목걸이'를 다시 완성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역사적인 보석을 드뢰수비즈 가문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다. 여러 사정으로 가문의 재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그들은 그 왕실의 귀중한 유물을 처분하느니 차라리 살림 규모를 줄이는 편을 택했다. 특히 현재의 백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저택을 아끼듯 그 보석에 애착을 가졌다. 그는 신중을 기해 크레디 리오네에 금고를 하나 빌려 그곳에 보관해 두었다. 아내가 그것을 걸치고자 하는 날이면 오후에 직접 가서 찾아왔고, 이튿날 직접 다시 갖다 두었다.

그날 밤, 카스티야 궁전 연회에서 백작 부인은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연회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티안 왕도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그녀의 우아한 목덜미에는 보석들이 흐르듯 둘러져 있었다. 수천 개의 면을 지닌 다이아몬드들이 불빛 아래 불꽃처럼 빛나고 반짝였다.

그녀만큼 그토록 화려한 장신구의 무게를 가뿐하고 기품 있게 걸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이중의 승리였고, 드뢰 백작은 그것을 깊이 음미했다. 생제르맹 구의 오래된 저택 침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일을 스스로 흐뭇해했다.

그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고, 어쩌면 그에 못지않게 4대에 걸쳐 가문을 빛내 온 그 보석도 자랑스러워했다.

아내는 그 보석으로 다소 어린아이 같은 허영심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녀의 오만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쉽다는 듯 목걸이를 어깨에서 벗겨내 남편에게 건넸다. 남편은 마치 처음 보는 듯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살폈다.

그리고는 붉은 가죽 상자에 다시 넣었다. 상자에는 추기경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남편은 옆 방으로 들어갔다. 침실과 완전히 분리된, 마치 작은 방처럼 쓰이던 곳이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침대 발치에 있는 한 곳뿐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다른 때처럼, 높은 선반 위에 숨겼다. 모자 상자들과 쌓아 둔 빨래들 사이에 말이다.

그는 문을 닫고 옷을 벗었다.

아침이 밝아 오자, 그는 아홉 시쯤 일어났다. 점심을 먹기 전에 크레디 리오네에 다녀올 생각이었다.

옷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그는 마구간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말 한 마리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 말을 뜰에서 자기 앞으로 걷게도 하고 속보로 달리게도 하며 살폈다.

그러고는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아직 방을 떠나지 않은 채 하녀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나가는 거야?"

"응… 그 일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게 더 안전하겠지."

그는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물었다.

"그걸 당신이 꺼냈어, 여보?"

그녀가 대답했다.

"뭐라고? 아니, 난 아무것도 안 꺼냈어."

"당신이 그걸 건드렸잖아."

"전혀… 그 문은 열지도 않았는걸."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나타났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당신이 안 가져간 거지?… 당신도 아닌 거지?… 그럼…"

그녀가 달려왔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모자 상자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쌓아 둔 빨랫감 더미를 헤집으면서. 백작은 거듭 말했다.

"소용없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여기, 바로 이 선반 위에 내가 올려놨단 말이야."

"잘못 보신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 선반 위라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방이 꽤 어두웠으므로 두 사람은 촛불을 켰다. 그리고 골방을 어지럽히던 빨랫감과 물건을 모두 들어냈다. 골방이 텅 비자, 두 사람은 절망 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유명한 목걸이, '왕비의 노예 목걸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결단력 있는 성품의 백작 부인은 헛된 한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발로르브 경위에게 알렸다. 그들은 이미 발로르브 경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민함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알렸고, 그는 곧바로 물었다.

"백작님, 밤사이 아무도 침실을 지나갈 수 없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잠귀가 매우 밝습니다. 게다가 이 방문은 빗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벨을 울려 하녀를 부를 때에야 내가 그것을 풀었으니까요."

"그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창문도요?"

"있긴 합니다만, 막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촛불을 켜자마자 발로르브 경위는 창문이 절반 높이까지만, 그것도 큰 궤(찬장) 하나로 막혀 있을 뿐이며, 게다가 그 궤가 창틀에 정확히 맞닿아 있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닿을 만큼은 닿아 있습니다." 드뢰 백작이 반박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는 그것을 옮기기가 불가능하죠."

"그 창문은 어디로 통합니까?"

"안쪽의 작은 뜰로 납니다."

"그 층 위로도 또 층이 있습니까?"

"두 층이 더 있습니다. 다만 하인들이 쓰는 층 높이에서 그 작은 뜰은 촘촘한 철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렇게 들지 않는 거죠."

게다가 궤를 치워 보니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들어왔다면 그러지 않았을 터였다.

"아니면," 백작이 지적했다. "누군가 우리 방을 지나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이 방의 빗장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겠죠."

경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백작 부인 쪽으로 돌아섰다.

"부인, 어제저녁 그 목걸이를 거실 거라는 걸 주변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 골방에 넣어 둔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요?"

"아무도요… 아니, 혹시…"

"부탁드립니다, 부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점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앙리에트가 생각났어요."

"앙리에트? 그 사람도 다른 이들처럼 그 일은 모를 텐데."

"정말 그렇게 확신해요?"

"그 부인은 누구입니까?" 발로르브가 물었다.

"수녀원 시절 친구였어요. 가족과 다투고는 노동자 같은 남자와 결혼했죠. 남편이 죽자 제가 그 아들과 함께 거두어, 이 저택 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듯 덧붙였다.

"저를 좀 도와주기도 해요. 손재주가 아주 좋답니다."

"그녀는 몇 층에 삽니까?"

"우리와 같은 층이에요, 그리 멀지도 않죠… 이 복도 끝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집 부엌 창문이…"

"이 작은 뜰로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창문과 바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발로르브 경위는 앙리에트에게로 안내해 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그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옆에는 여섯 일곱 살쯤 된 아들 라울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경감은 그녀에게 마련해 준 비참한 거처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난로도 없는 방 하나와 부엌으로 쓰는 작은 골방이 전부인 초라한 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도둑맞은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날 저녁, 그녀가 직접 백작부인에게 옷을 입혀 주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던 것이다.

"오, 맙소사!" 그녀가 외쳤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짐작 가는 게 전혀 없소? 의심스러운 점도 하나 없단 말이오? 하지만 범인이 당신 방을 거쳐 들어왔을 수도 있소."

그녀는 자신에게 의심이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진심으로 깔깔 웃었다.

"하지만 전 제 방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전 밖에 나가는 법이 없는걸요. 게다가 직접 보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골방의 창문을 열었다.

"보세요, 맞은편 가장자리까지 족히 삼 미터는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절도가 이루어졌으리라 보고 있다고 누가 그럽디까?"

"하지만…… 목걸이가 서재에 있지 않았나요?"

"그걸 어떻게 아시오?"

"아니, 밤이면 그걸 거기에 넣어 둔다는 걸 전 늘 알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슬픔에 시들었지만 아직 젊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온화함과 체념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마치 어떤 위험이 그녀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을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둘만 남게 되자 드뢰 씨가 경감에게 말했다.

"설마 그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녀를 보증합니다. 그녀는 정직함 그 자체예요."

발르보 씨가 동의했다.

"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기껏해야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공모했을 가능성을 떠올려 봤을 뿐이죠. 하지만 그 설명도 버려야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부딪힌 문제를 전혀 풀어 주지 못하니까요."

경감은 이 조사를 더 밀고 나가지 않았고, 며칠 뒤 예심판사가 조사를 이어받아 보강했다.

하인들을 심문했고, 빗장의 상태를 점검했다. 서재 창문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는지 실험해 보았으며, 작은 안마당을 위아래로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빗장은 멀쩡했다. 창문은 밖에서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었다.

특히 조사는 앙리에트에게 집중되었다. 아무리 따져 봐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 결과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저택을 나선 것은 단 네 번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네 번 모두 행선지가 분명한 심부름 때문이었다.

사실상 그녀는 드뢰 부인의 하녀이자 재봉사 노릇을 했다. 드뢰 부인은 그녀에게 몹시 엄격했는데, 모든 하인들이 은밀히 그 사실을 증언했다.

예심판사는 일주일 만에 경감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설령 우리가 범인을 안다 해도—사실 거기에도 이르지 못했지만—도둑이 어떻게 절도를 저질렀는지는 더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막혀 있습니다. 하나는 문, 다른 하나는 창문, 둘 다 닫혀 있었죠. 수수께끼는 이중입니다.

대체 어떻게 들어왔고, 또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빗장 채워진 문과 닫힌 창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네 달에 걸친 조사 끝에 판사가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은 이러했다. 드뢰 부부가 금전적 궁핍에 시달렸고—실제로 그 궁핍은 상당했다—그래서 왕비의 목걸이를 팔아넘겼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드뢰수비즈 가문은 그 값진 보석을 도난당해 깊은 타격을 입었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다.

그런 보물이 받쳐 주던 신용의 밑천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까다로운 채권자들과 더 인색한 대금업자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살을 도려내듯 재산을 처분하고 저당을 잡혀야 했다. 요컨대 먼 친척에게서 큰 유산을 두 번 물려받지 못했다면 파산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귀족의 한 계통을 잃은 듯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작부인이 화풀이한 대상은 다름 아닌 옛 기숙학교 친구였다. 백작부인은 그녀에게 진짜 원한을 품고 대놓고 그녀를 비난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하인들이 쓰는 층으로 내쫓았다가, 이내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렸다.

그렇게 별다른 사건 없이 세월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행을 많이 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일은 단 하나였다. 앙리에트가 떠난 지 몇 달 뒤, 백작부인은 그녀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내 주신 분이 바로 마님이시죠? 마님 말고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작은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제 거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잘못 짚은 거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지난날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한 제 감사만은 받아 주십시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백작부인이 그녀에게 베푼 친절이라고는, 지난날이든 지금이든 대부분 부당한 처사뿐이었다. 이 감사의 말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해명을 요구받자 그녀는 우편으로 천 프랑짜리 지폐 두 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등기도 가액등기도 아니었다. 답장과 함께 내놓은 봉투는 파리 소인이 찍혀 있었고 주소만 적혀 있었는데, 필체는 한눈에 봐도 일부러 위장한 것이었다.

이 이천 프랑은 어디서 온 돈이었을까? 누가 보낸 걸까?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어떤 단서를 좇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일 년 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렇게 6년 동안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다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해에는 액수가 두 배로 늘었고, 덕분에 갑작스레 병석에 누운 앙리에트는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었다. 우정국이 '가액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편지 한 통을 압수하자, 마지막 두 통은 규정에 맞게 부쳐졌다. 하나는 생제르맹, 다른 하나는 쉬렌에서 부친 것이었다. 발신인은 처음엔 안케티라고 서명했다가 나중엔 페샤르라고 썼다. 그가 적은 주소는 모두 가짜였다.

6년 만에 앙리에트가 죽었다. 수수께끼는 고스란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았다.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여론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였고, 이 목걸이의 운명은 참으로 기이했다. 18세기 말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이 목걸이가 한 세기가 지난 뒤에도 다시금 그토록 많은 이의 마음을 들끓게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주요 당사자들과 백작이 절대 비밀을 당부한 몇몇 사람을 빼면 아무도 모른다.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는 그 약속을 어길 게 분명하니, 나로서는 이 베일을 벗기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수수께끼의 열쇠와 더불어, 그저께 아침 신문에 실린 그 기이한 편지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얻게 될 것이다. 그 편지는 가뜩이나 어둠에 싸인 이 비극에, 가능하다면 더, 한층 짙은 그림자와 신비를 더해 주었다.

닷새 전의 일이다. 드뢰수비즈 백작의 집에서 점심을 든 손님들 가운데에는 그의 조카딸 둘과 사촌 누이가 있었고, 남자들로는 에사빌 재

판장, 보카스 의원, 백작이 시칠리아에서 알게 된 플로리아니 기사, 그리고 사교 클럽의 오랜 벗인 루지에르 후작 장군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부인들은 커피를 따랐고, 신사들은 살롱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젊은 여인 중 한 명이 카드로 운세를 봐 주며 흥을 돋우었다. 그러다 화제는 유명한 범죄 사건들로 옮겨 갔다.

바로 그때, 백작을 놀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루지에르 후작이 드뢰 씨가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해하던 '목걸이 사건'을 끄집어냈다.

곧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누구나 제 나름대로 수사를 다시 펼쳐 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온갖 가설은 서로 모순되었고 하나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 당신은요, 플로리아니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작부인이 기사에게 물었다.

"오, 저는 의견이랄 게 없습니다, 부인."

사람들이 항의하듯 소리쳤다. 방금 전까지 기사는 팔레르모의 법관이던 아버지와 함께 얽혔던 여러 사건을 아주 멋들어지게 들려주며, 그 방면에 대한 판단력과 취향을 한껏 드러냈던 터였다.

"솔직히," 그가 말했다. "더 노련한 이들이 포기한 일을 제가 풀어낸 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셜록 홈즈쯤으로 여기시다니요…… 게다가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조차 거의 모릅니다."

사람들이 집주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마지못해 사건의 경위를 간추려 들려주었다.

기사는 귀 기울여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중얼거렸다.

"이상하군요…… 언뜻 보기엔 그리 알아맞히기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요."

백작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사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는 다소 단정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나 절도의 범인을 밝혀내려면, 그 범죄나 절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적어도 어떻게 저질러질 수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 생각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나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뿐이고 엄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방의 문이나 서재의 창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빗장이 채워진 문을 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범인은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채로 발견되었죠."

"그걸 위해서는요," 플로리아니는 백작이 끼어드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주방 발코니와 창문 테두리 사이에 널판이나 사다리로 다리를 놓기만 하면 됐죠. 그리고 상자가……"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소!" 백작이 성급하게 외쳤다.

이번에는 플로리아니가 답해야 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런 사소한 이의제기는 전혀 동요시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닫혀 있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만, 작은 창문은 없었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선 그 시대 호텔에서는 거의 관례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절도가 설명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작은 창문이 있었죠. 하지만 창문처럼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잘못 짚으신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그것이 열린 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챘을 테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작은 창문도 끝에 고리가 달린 꼰 철사로 여는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리는 창틀과 찬장 사이에 매달려 있었을 테고요?"

"그렇소.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소."

"이렇게 된 겁니다. 유리창에 낸 틈으로 갈고리가 달린 철봉 같은 도구를 집어넣어 고리를 걸고, 눌러서 작은 창문을 열었을 겁니다."

백작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이 모든 걸 아무렇지도 않게 짜 맞추시는군요.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어요, 친애하는 선생. 유리창에는 아무런 틈도 없었습니다."

"틈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틈이 있었다면 누구나 봤을 테니까요."

"보려면 봐야지.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소. 틈은 분명히 존재해. 유리창 가장자리, 밀봉재 맞은편에 말이야. 물론 수직 방향으로 말이오."

백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몹시 흥분한 기색이었다. 초조한 발걸음으로 거실을 두세 바퀴 돌다가, 플로리아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위쪽은 조금도 변한 게 없소. 아무도 그 방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단 말이오."

"그렇다면, 각하. 제 설명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건 법정이 확인한 어떤 사실과도 맞지 않소.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 당신이 말하는 건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정반대야."

플로리아니는 백작의 노여움을 눈치채지 못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각하. 저는 그저 진실을 명확히 보고자 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당장 그러겠소… 솔직히 말하지만, 갈수록 당신의 그 자신감이…"

드뢰 씨는 몇 마디를 더 우물거리며 중얼거리더니, 이내 갑자기 문 쪽으로 향해 나가 버렸다.

방 안은 말없이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마치 진실의 한 조각이 곧 드러날 것처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침묵은 극도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마침내 백작이 문턱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평소와는 달리 심히 초조한 기색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의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라… 저로서는 결코 생각조차 못 했던…"

그의 부인이 간절하게 물었다.

"말해 주시오. 간곡히 부탁하오. 무슨 일이란 말이오?"

그는 더듬거렸다.

"틈이 있었소… 정확히 지목하신 바로 그 자리, 유리창을 따라서 말이오…"

그는 갑자기 기사의 팔을 꽉 쥐며 명령조로 말했다.

"이제부터 말씀하세요, 선생. 지금까지는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대답하시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시오?"

플로리아니는 부드럽게 팔을 빼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 남자는 드뢰 씨가 목걸이를 차고 무도회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는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널판 다리를 걸쳐 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당신을 지켜보다가, 보석을 숨기

는 장면을 목격했죠. 당신이 떠나자마자 유리를 베어내고 고리를 당겼을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가 작은 창문을 통해 창문 손잡이에 닿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 작은 창문 자체를 통해 들어온 셈이죠."

"말도 안 됩니다. 저렇게 좁은 구멍으로 몸을 통과시킬 만한 마른 남자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남자가 아닐 겁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말입니다. 남자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다면, 그건 아이일 수밖에요."

"아이요?"

"당신 친구 앙리에트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셨나요?"

"맞아요… 라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범인이 바로 그 라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다고요…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다.

"예를 들어, 이 다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밖에서 가져왔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가져갔다고는 믿기 어렵죠. 아이는 가까이에 있던 것을 이용했을 겁니다. 앙리에트가 요리를 하던 구석방에는, 냄비를 올려놓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맞다면 두 개였어."

"그 판자들이 받침대에 실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못을 빼서 판자들을 서로 이어 붙였다고 볼 수 있죠. 또 난로가 있었으니, 그가 작은 창문을 여는 데 썼을 난로 갈고리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백작은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석자들 중 누구도 처음에 느꼈던,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작은 불안감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플로리아니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의 기운이 너무도 단호해서, 사람들은 그가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곧바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경청했다.

그리고 백작이 돌아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분명 그 아이야. 틀림없어.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목판들을 보셨나요? 갈고리도요?"

"목판들을 봤소. 못을 빼냈더군. 갈고리는 아직 그대로 있소."

그러자 드뢰수비즈 백작이 소리쳤다.

"그 아이가 한 짓이죠. 아니, 오히려 그 어머니의 소행일 겁니다. 앙리에트야말로 유일한 범인이죠. 아들을 시켰을 테고요."

"아닙니다."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둘이 같은 방에서 잤는데, 앙리에트 모르게 아이가 일을 벌일 수 있겠소?"

"같은 방에서 잤지만, 사건은 옆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밤중에 말이죠."

"그리고 목걸이는요?" 백작이 물었다. "아이 소지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이는 밖으로 나다녔으니까요. 당신이 아이의 책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바로 그날 아침에도, 아이는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무고한 어머니를 향해 모든 힘을 쏟기보다, 아이의 책상 서랍, 그중에서도 교과서들 사이를 샅샅이 뒤졌더라면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건 그렇소. 하지만 앙리에트가 매년 받던 이천 프랑이야말로 그녀가 공범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오?"

"공범이었다면 그 돈을 받고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감시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 아이는 자유로웠죠. 아이는 얼마든지 이웃 도시까지 달려가 아무 장물아비나 만나, 경우에 따라 다이아몬드 한 개, 혹은 두 개를 헐값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곧 돈은 파리에서 부쳐져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됐죠. 그렇게만 하면 이듬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정체 모를 불안감이 드뢰수비즈 가문과 그 손님들을 짓눌렀다. 플로리아니의 어조와 태도에는, 처음부터 백작을 격분하게 했던 그 단호함 너머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적대적인, 아니 우호적이거나 친근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먼 냉소적인 조롱처럼 들렸다.

백작은 웃음을 억지로 끌어냈다.

"참으로 기발하십니다. 감탄할 따름이군요. 뛰어난 상상력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플로리아니는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피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소환할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아이의 삶을 다시금 상상해 봅니다. 멀리 지방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병들

고, 작은 아이가 보석들을 팔아 어머니를 구하거나 적어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 주려고 꾀를 부리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이는 자라나 한 남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때—이번만큼은 제 상상이 자유롭게 날아간다고 치겠습니다—그 남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곳을 다시 보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 낡은 집 안에서 일어난 비극의 모든 일이 펼쳐졌던 곳에서, 그런 만남이 얼마나 가슴 저리는 긴장감을 줄지 생각해 보시죠."

그의 말이 불안한 침묵 속에 몇 초간 울려 퍼졌다. 드뢰 부부의 얼굴에는 이해하려는 절박한 노력과 함께 두려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 안달하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백작이 속삭였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말입니까? 팔레르모에서 만나셨던 플로리아니 경입니다. 친절하게도 여러 번 댁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지요."

"그럼 이 일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작은 장난일 뿐이죠."

그는 반쯤 몸을 일으키며 백작부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억눌린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앙리에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당신에게 어떤 기쁨을 느끼며 말할까 하고요. '저 혼자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살아가기 위해 일하던 하녀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불행한 어머니를 보며 아이는 가슴이 찢어졌을 테니까요.'"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플로리아니 경은 바로 앙리에트의 아들이었다. 그의 태도, 그의 말,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백작은 잠시 망설였다. 그 대담한 인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초인종을 울려 하인을 부를까? 소동을 일으킬까? 과거에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폭로할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오래전 일이었다. 게다가 어린아이가 저지른 짓이라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 주겠는가? 아니, 차라리 그 진의를 모르는 척하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다. 백작은 플로리아니에게 다가가 쾌활하게 외쳤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소설이군요. 맹세컨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대로라면, 그 착한 젊은이, 아들의 귀감 같던 그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멋진 출발을 했으니 거기서 멈추진 않았겠지요."

"아, 물론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겠지요! 그런 시작을 했으니 말입니다. 여섯 살에 왕비의 목걸이를, 마리 앙투아네트가 탐내던 그 유명한 목걸이를 손에 넣었으니!"

"게다가 그걸 손에 넣는 일이라니." 플로리아니가 백작의 장난에 맞장구치며 말했다. "아무런 성가신 일도 치르지 않고, 누구도 유리창 상태를 살펴볼 생각을 않고, 창틀이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말이죠. 두껍게 쌓인 먼지 위에 남은 제 흔적을 지우려고 닦아 둔 바로 그 창틀을요……. 그 또래 아이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기에 충분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토록 쉬운 일일까요? 그저 원하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정말이지, 그 아이는 원했고—"

"—손을 내밀었지요."

"두 손으로 말입니다." 기사가 웃으며 덧붙였다.

한기가 스쳤다. 이 자칭 플로리아니라는 사내의 삶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을까? 여섯 살에 이미 천재적인 도둑이었던 이 모험가의 일생은 얼마나 기이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그는 자극을 좇는 딜레탕트의 세련된 취향에서, 혹은 기껏해야 묵은 원한을 풀려는 마음에서, 자신의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찾아와 당당하게, 미친 듯이, 그러면서도 방문한 신사다운 더없는 예의를 갖추고 맞서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백작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움찔 물러서려는 몸짓을 억눌렀다. 그가 미소 지었다.

"아, 부인, 겁이 나셨군요! 응접실 마술사 흉내를 너무 지나치게 냈나 봅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살짝 비아냥대는 듯한 무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착한 아들의 전설은 오히려 저를 무척 흥미롭게 했습니다. 제 목걸이가 그토록 화려한 운명의 계기가 되었다니 기쁘군요. 하지만 그 여자, 그러니까 앙리에트의 아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타고난 소명을 따랐던 것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가 그 가시 돋친 말을 느끼고 흠칫하며 받아쳤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구나 그 아이가 중도에 단념하지 않으려면 그 소명이 어지간히 진지해야 했을 겁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보석 대부분은 가짜였으니까요. 진짜라곤 영국인 보석상에게서 되사들인 다이아몬드 몇 개뿐이었고, 나머지는 고된 생활고에 따라 하나씩 팔려 나갔지요."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왕비의 목걸이였습니다, 선생님." 백작부인이 도도하게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제 생각엔, 앙리에트의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군요."

"그는 이해했을 겁니다, 부인. 가짜든 진짜든 그 목걸이는 무엇보다 과시용 장식이자 하나의 간판이었다는 것을요."

드뢰 씨가 무슨 몸짓을 하려 했다. 그러자 부인이 곧바로 그를 가로막았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그녀는 플로리아니의 차분한 시선에 기가 눌려 말을 멈췄다.

그가 그 말을 되뇌었다.

"그 사람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해 봤자 아무 소용 없으리란 걸 느꼈고, 분노와 의분에도 불구하고, 짓밟힌 자존심에 온몸을 떨면서도, 본의 아니게 거의 정중하게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전설에 따르면 레토 드 빌레트는 왕비의 목걸이를 손에 넣어 잔 드 발루아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모조리 떼어 냈을 때도 받침대만큼은 감히 손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이아몬드란 그저 장식이자 부속에 불과하고 받침대야말로 본질적인 작품, 곧 예술가의 창조물 그 자체임을 깨닫고 그것을 존중했던 거죠.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점을 이해했을까요?"

"받침대가 남아 있으리란 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존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그를 만나게 되신다면 이렇게 전해 주세요. 그가 어떤 가문들의 재산이자 영광인 그런 유물 하나를 부당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비록 거기서 보석을 떼어 냈다 해도 왕비의 목걸이가 드

뢰-수비즈 가문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름처럼, 우리 명예처럼 우리의 것입니다."

기사는 그저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부인."

그는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백작에게도 인사한 뒤,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명씩 차례로 인사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나흘 뒤, 드뢰 부인은 자기 방 탁자 위에서 추기경의 문장이 새겨진 붉은 가죽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왕비의 에스클라바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통일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모든 일이 같은 목표를 향해 모여야 하는 법이고—약간의 선전은 결코 해롭지 않은 법이라—이튿날 『레코 드 프랑스』지는 다음과 같은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실었다.

"왕비의 목걸이. 예전에 드뢰-수비즈 가문에서 도난당했던 그 유명한 역사적 보석을 아르센 뤼팽이 되찾아 냈다. 뤼팽은 서둘러 그것을 정당한 소유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섬세하고 기사도적인 배려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하트 7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사람들이 내게 자주 던졌던 물음이기도 하다.

"나는 어떻게 아르센 뤼팽을 알게 되었는가?"

누구도 내가 뤼팽을 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인물에 대해 내가 쌓아 올린 세세한 정보들, 내가 제시하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 내가 내놓는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남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았을 뿐 그 은밀한 까닭이나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는 꿰뚫지 못했던 어떤 행위들에 대해 내가 내놓는 해석—이 모든 것은, 뤼팽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 법한 친밀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정 어린 관계와 꾸준한 속내의 교환이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그를 알게 되었을까? 그의 전기 작가가 되는 영광은 어디서 내게 온 것일까? 어째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였을까?

답은 간단하다. 내 공로라곤 전혀 없는 그 선택을, 오로지 우연이 주재했을 뿐이다. 나를 그의 길 위에 데려다 놓은 것도 우연이었다. 그의 가장 기이하고 가장 신비로운 모험 가운데 하나에 내가 휘말린 것도 우연이었으며, 결국 그가 그 놀라운 연출가였던 한 드라마에서 내가 한 배우가 된 것도 우연이었다. 어둡고 복잡한, 그리고 온갖 우여곡절이 빽빽이 들어찬 그 드라마는, 막상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지금 나에게 적잖은 곤혹스러움을 안긴다.

이 첫 막은 사람들 입에 그토록 오르내린 6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던 그 유명한 밤에 펼쳐진다. 그리고 내 쪽 이야기를 바로 하자면, 그날 내가 보인 꽤 비정상적인 행동은 집으로 돌아가던 때의 매우 특별한 심리 상태 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카스카드 식당에서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었고, 저녁 내내 담배를 피우고 집시 악단이 우수에 찬 왈츠를 연주하는 동안, 오직 범죄와 도둑질, 그리고 무시무시하고 음침한 음모 이야기만 나누었다.

그런 것은 언제나 잠들기에 좋지 않은 준비다.

생마르탱 부부가 자동차로 떠났다. 장 다스프리—여섯 달 뒤 모로코 국경에서 그토록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될 그 매력적이고 근심 없는 청년—그 장 다스프리와 나는 어둡고 더운 밤거리를 걸어서 돌아왔다.

우리가 뉴이, 마이요 대로에 있는, 내가 일 년째 살고 있는 작은 호텔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내게 말했다.

"겁이 안 나요?"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저 집은 너무 외떨어져 있잖아요! 이웃도 없고…… 주변은 빈터뿐이고……. 정말이지 전 겁쟁이가 아닌데도, 그래도 좀……."

"이런, 당신 참 유쾌하군요!"

"아니, 그냥 해 본 말이에요. 생마르탱 부부가 들려준 도적단 이야기가 좀 인상 깊어서요."

그는 내 손을 꽉 쥐고는 멀어져 갔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 그렇군. 안토안이 촛불을 켜 두지 않았나 보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안토안은 자리에 없었다. 내가 그에게 휴가를 주었던 것이다.

순간 어둠과 정적이 견딜 수 없이 괴롭게 느껴졌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어둠 속을 더듬어 방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는 즉시, 평소와 달리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을 걸었다.

촛불의 불꽃이 다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나는 만일을 대비해 권총집에서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큰 권총을 꺼내 침대 옆에 놓아두었다. 이 조치가 나를 완전히 안심시켰다. 나는 침대에 누웠고, 평소처럼 잠을 청하려고 침대 곁 탁자 위에 매일 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책을 집어 들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제 책갈피 삼아 끼워 둔 종이칼 대신, 빨간 밀랍으로 다섯 군데나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들었다. 봉투에는 내 이름과 성이 적혀 있었고, 거기에 '긴급'이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다.

편지였다! 내 이름으로 된 편지! 누가 이걸 저기에 놓아두었을까? 조금 긴장한 나는 봉투를 찢어 읽었다.

"이 편지를 연 순간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더는 움직이지 말고, 손짓 하나 하지 말고, 비명도 지르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이다."

나도 겁쟁이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실제 위험 앞에서는 당당히 맞설 줄 알고, 상상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공포에는 웃어넘길 줄도 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 나는 평범하지 않은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쉽게 동요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에는, 아무리 대담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뒤흔들 만큼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던가?

손가락은 열에 들뜬 듯 종이를 꽉 쥐고 있었고, 눈은 끊임없이 그 위협적인 문장들을 되읽었다……. "손짓 하나 하지 마라…… 비명도 지르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이다……." 에이, 설마! 나는 생각했다. 이건 무슨 장난이야, 멍청한 농담이지.

나는 웃고 말 뻔했다. 소리 내어 웃으려 했을 정도다. 하지만 무엇이 나를 막았을까?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목을 조여왔을까?

적어도 촛불만은 끌 수 있겠지. 아니, 끌 수 없었다. '아무 동작도 취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이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가장 명백한 사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자기 암시에 왜 맞서야 한단 말인가? 그냥 눈을 감으면 그만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고요 속으로 가벼운 소리가 스쳐 지나갔고, 이어 무언가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내가 서재로 쓰던 옆 큰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 방은 대기실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내 방과 떨어져 있었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흥분으로 몸이 떨렸다. 곧장 일어나 권총을 쥐고 그 방으로 돌진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내 눈앞, 왼쪽 창문의 커튼 한 장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커튼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또렷이 보았다. 커튼과 창문 사이의 좁은 틈새에 사람 모양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 두꺼운 형체가 천을 곧게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있었다. 천의 성긴 올 사이로 나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다른 자들이 약탈한 물건을 들고 나르는 동안, 그자의 임무는 나를 꼼짝 못 하게 붙

잡아 두는 것이었다. 일어선다? 권총을 잡는다? 불가능했다……. 그가 저기 있으니! 조금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질러도 나는 끝장이었다.

집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큰 소리가 한 번 울렸고, 이어 두세 개씩 묶인 작은 소리들이 잇따랐다. 마치 못을 내리치고 튕겨 오르는 망치 소리 같았다. 적어도 혼란에 빠진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떠올랐다. 또 다른 소리들이 뒤섞였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아주 안전하게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진짜 소란이었다.

그는 옳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비겁함이었을까? 아니,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이었다.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했다. 어차피 왜 싸워야 하겠는가? 그 남자 뒤에는 열 명의 동료가 더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가 신호만 보내면 그들은 곧장 달려올 것이다. 몇몇 벽걸이 천과 소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참을 수 없는 괴로움, 끔찍한 공포였다. 소음은 멈췄지만, 나는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기를 멈추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 남자! 나를 감시하며 무기를 든 그 남자! 놀란 눈으로 나는 그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이마와 온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나를 뒤덮었다. 내가 잘 아는 우유 배달 마차의 구르는 소리가 대로 위를 지나갔고, 동시에 아침 빛이 닫

힌 블라인드 틈으로 슬며시 들어와, 밖의 희미한 햇살과 실내의 그림자가 섞이는 것을 느꼈다.

하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마차들이 지나갔다. 밤의 모든 유령들이 사라졌다.

그때 나는 천천히, 그러나 교활하게 침대에서 한 팔을 빼냈다. 맞은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눈으로 커튼의 주름, 정확히 조준해야 할 지점을 확인했다. 내가 취해야 할 동작의 수를 정확히 세고 나서, 재빨리 권총을 잡았다. 그리고 쏘았다.

나는 해방감에 찬 외침과 함께 침대에서 뛰쳐나와 커튼을 향해 몸을 날렸다. 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유리창에도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맞히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기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밤새 커튼 주름 하나에 홀려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도둑들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분노에 차서, 나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돌리고 문을 열었다. 대기실을 가로질러 또 다른 문을 열고는, 그 큰 방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문턱에 선 나는 경악해 발이 묶였다. 숨이 턱 막히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남자가 없다는 사실에 이미 놀랐지만, 이번 충격은 그 이상이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가구는 물론, 그림들, 오래된 벨벳 천과 실크 원단들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눈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토록 시끄럽고 이사하는 듯한 소음이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벽을 살피고, 내가 잘 아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범인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단서 하나 없었다. 의자가 어지럽게 넘어진 곳도, 발자국 자국도 없었다.

"잠깐만, 잠깐."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나는 가장 꼼꼼한 조사 방법으로 방 안을 한 치 한 치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지만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한 걸까?

바닥에 깔린 작은 페르시아 카펫 아래서, 나는 한 장의 카드를 주워 들었다. 하트 7이었다. 일반적인 프랑스산 카드와 똑같이 생겼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트 모양을 이루는 일곱 개의 붉은 점 각각 끝부분에, 뾰족한 송곳으로 뚫은 듯 정확하고 둥근 구멍이 나 있는 것이었다.

이게 전부였다. 카드 한 장과, 책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만으로 내가 한낱 꿈에 놀아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기에 충분했을까?

나는 종일 응접실에서 수색을 이어갔다. 이 방은 작은 호텔치고는 유난히 넓었고, 그 장식은 이곳을 설계한 사람의 기이한 취향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바닥은 다채로운 작은 돌들로 만든 모자이크로, 큼직한 대칭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벽면도 같은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는데, 판으로 나뉘어 폼페이풍의 알레고리, 비잔틴풍의 구성, 중세의 프레스코화가 펼쳐져 있었다. 바쿠스가 술통에 올라타 있었다. 금관을 쓰고 꽃이 핀 듯한 수염을 기른 황제가 오른손에 검을 쥐고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는, 마치 작업실처럼, 유일하고 커다란 창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창문은 밤마다 늘 열려 있었기에, 남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이곳으로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 역시 단정할 수는 없었다. 사다리를 세웠다면 마당의 다져진 흙바닥에 그 다리 자국이 남았어야 했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저택을 둘러싼 공터의 풀도 방금 밟힌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설명해야 할 사실들이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고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틀 후가 마침 당시 내가 글을 쓰던 <질 블라> 지에 칼럼을 싣는 날이었다. 그 사건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써 내려갔다.

이 기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실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공상으로 여겼다. 생마르탱 가문 사람들은 나를 조롱했다.

다스프리라는 인물은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사연을 자세히 들은 뒤, 사건을 연구해 보았다. 하지만 그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아침, 대문의 종소리가 울렸다. 안토인이 한 남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마흔 살가량의 남자였다. 피부는 매우 가무잡잡하고 얼굴은 단호해 보였다. 그의 옷차림은 깨끗했지만 낡아 있었다. 이는 그가 우아함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 점은 다소 천박한 그의 행동거지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서론 없이 내게 말했다. 쉰 목소리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억양으로.

"선생님, 여행 중 카페에서 <질 블라>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기사를 읽었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와 이야기하러 오셨군요."

"선생님이 쓰신 사실들이 모두 정확합니까?"

"물론입니다.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선생님이 지어낸 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께 알려드릴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말씀해 보시죠."

"네? 그건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들이 맞는지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방에 저 혼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이 아이디어는 당신의 기사를 읽다가 떠올랐습니다. 몇 가지 디테일이 우연히 제가 겪은 다른 사건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거든요.

제가 잘못 추측했다면, 침묵을 지키는 게 낫겠죠.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혼자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제안 뒤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었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빛도 초조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조금 놀랐을 뿐, 그의 요구가 특별히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의 말에 이끌려 호기심이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좋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 삼 분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삼 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죠."

나는 방을 나섰다.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시계를 꺼냈다. 1분이 흘렀다. 2분……. 왜 나는 답답함을 느꼈을까? 왜 이 순간들은 다른 때보다 더 엄숙하게 느껴졌을까?

2분 30초……. 2분 45초……. 그리고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다.

나는 몇 걸음에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소름 끼치는 비명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

방 한가운데, 남자가 그대로 누워 있었다. 왼쪽 옆으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뇌조각이 섞여 있었다. 주먹 옆에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이 놓여 있었다.

한 번의 경련이 그의 몸을 흔들었을 뿐,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끔찍한 광경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즉시 도움을 부르지도, 남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 무릎을 꿇지도 못하게 만든 무언가였다.

그의 두어 걸음 옆 바닥에 하트 7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붉은 무늬 일곱 개의 끝부분마다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삼십 분 후, 뇌이 경찰서장이 도착했고, 이어 법의관, 그리고 치안국장 뒤두아 씨가 왔다. 나는 시신에 손대지 않으려 각별히 조심했다. 그래서 초기 조사는 어느 것 하나 왜곡되지 않았다.

조사는 짧게 끝났다. 더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혹은 거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했다. 시신의 주머니에는 종이 한 장 없었고, 옷에는 이름이 없었으며, 속옷에도 이니셜 하나 새겨져 있지 않았다. 요컨대 그의 신원을 밝혀낼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방 안은 이전과 똑같은 상태였다. 가구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물건들은 제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오로지 자살하기 위해, 그것도 내 집이 다른 어느 곳보다 자살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를 이 절망적인 행동으로 몰고 간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동기 자체도 그가 혼자 보낸 삼 분 동안 직접 확인한 새로운 사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무슨 사실일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포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간파한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어떠한 추측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일이 벌어졌다. 두 경관이 시신을 들어 올려 들것에 옮기려 몸을 굽혔을 때, 그들은 그때까지 꽉 쥔 채 굳어 있던 왼손이 풀리면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르주 안데르마트, 베리 거리 37번지.

이건 무슨 뜻일까? 조르주 안데르마트는 파리의 거물 은행가였다. 프랑스 제철 산업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었던 '금속 교환소'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다. 그는 화려한 사치를 누렸고, 마차와 자동차, 경주마 마구간까지 소유할 정도였다. 그가 주최하는 모임은 늘 인파로 가득 찼고, 안데르마트 씨는 그 우아함과 미모로 널리 알려졌다.

"그건 죽은 사람의 이름인가요?" 내가 속삭였다.

치안국장이 몸을 기울였다.

"아닙니다. 안데르마트 씨는 창백하고 조금은 흰머리가 섞인 사내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명함이 있는 거죠?"

"전화기가 있습니까, 선생님?"

"네, 현관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지며 415.21번을 걸었다.

"안데르마트 씨가 집에 계신가요?"

"두두아 씨가 급히 마요 대로 102번지로 오라고 하십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이십 분 후, 안데르마트 씨가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렸다. 그의 출동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이어졌고, 그는 곧 시체 앞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그는 마치 억지로 입이 떨어지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에티엔 바랭."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굴만 본 적 있습니다. 그의 형제가…"

"형제가 있습니까?"

"네, 알프레드 바랭입니다. 그 형제가 예전에 저를 찾아와 무언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은 어디에 삽니까?"

"두 형제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프로방스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시겠소?"

"전혀요."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그 카드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카드, 당신의 주소가 적혀 있던 것이 아니었소?"

"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만한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니. 하지만 그 우연은 어딘지 기묘했다.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신문들과 이 일을 두고 이야기한 친구들 모두에게서 그 느낌을 다시금 확인했다. 일곱 번 뚫린 하트 7, 그리고 내 집에서 일어난

두 가지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 그 모든 미스터리 속에서 이 명함은 드디어 조금의 빛을 보여줄 것만 같았다. 이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안데르마트는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다.

"저는 아는 만큼만 말했습니다. 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 명함이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가장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점이 명확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수사를 통해 바랭 형제가 스위스 출신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쓰며 격동적인 삶을 살아왔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도박장을 드나들었고, 경찰이 주시하던 일단의 외국인 무리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 무리는 일련의 절도 사건을 저지른 뒤 흩어졌는데, 그들의 가담 사실은 한참 뒤에야 밝혀졌다.

바랭 형제가 실제로 여섯 해 전까지 살았던 프로방스 거리 24번지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나로서는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당시 자주 만났던 장 다스프리는 정반대였다. 그는 날이 갈수록 이 일에 더욱 열중했다.

그가 내게 일러준 것은 외신 기사였다. 온갖 언론이 그대로 받아 싣고 논평하며 떠들썩하게 다룬 기사였다.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에 부쳐질 장소에서, 미래의 해전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잠수함의 첫 시험이 거행될 예정이다. 새어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 잠수함의 이름은 '하트 7'이다.」

하트 7!

이것은 우연한 일치일까? 아니면 앞서 말한 사건들과 이 잠수함 이름 사이에 무언가 연관이 있는 걸까? 하지만 대체 어떤 성격의 연관이란 말인가. 여기서 벌어지는 일과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이어질 수 없을 듯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다스리가 말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결과들도 흔히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곤 하죠."

그 이틀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시험을 앞둔 잠수함 '하트 7'의 설계도가 프랑스인 기술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 기술자들은 자국민들에게 지원을 호소했으나 헛수고였고, 이어 영국 해군성에도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 전한다.」

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민감하고, 기억하다시피 당시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깊이 파고들기는 망설여진다.

하지만 더 이상 복잡한 사태로 번질 위험은 사라진 터라,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코 드 프랑스』의 기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는 사람들이 '하트 7' 사건이라 부르던 그 일에, 다소 혼란스럽긴 해도 몇 가지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것은 살바토르라는 서명으로 실린 글로, 다음과 같았다.

「하트 7 사건. 베일의 한 귀퉁이가 걷히다.」

「우리는 간결하게 말하겠다. 10년 전, 젊은 광산 기사 루이 라콤브는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연구에 바치고자 사직하고, 마이요 대로 102번지에 작은 저택을 임대했다. 이 저택은 얼마 전 어느 이탈리아 백작이 지어 장식해 둔 것이었다.

그는 로잔 출신의 바랭 형제라는 두 사람을 매개로, 막 금속거래소를 설립한 H. 조르주 안데르마트와 인연을 맺었다. 형제 중 한 사람은 실험 보조자로서 그를 도왔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위해 출자자를 구해 주는 일을 했다.」

여러 차례 만난 끝에 그는 안데르마트가 자신이 연구 중이던 잠수함 계획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발명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즉시, 안데르마트 씨가 해군성으로부터 일련의 시험을 얻어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되었다.

두 해 동안 루이 라콤브는 안데르마트 저택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자기 계획에 더한 개량점들을 은행가에게 제시했다. 그러다 마침내 스스

로 작업에 만족하고 그토록 찾던 결정적 공식을 손에 넣은 날, 그는 안데르마트 씨에게 본격적으로 나서 달라고 청했다.

그날 루이 라콤브는 안데르마트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는 그날 밤 11시 30분쯤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당시의 신문들을 다시 읽어 보면, 그 젊은이의 가족이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검찰도 우려를 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끝내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별나고 변덕스러운 청년으로 통하던 루이 라콤브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행을 떠난 것이라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이 가설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설령 믿기 어렵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나라에 더없이 중대한 의문이 하나 떠오른다. 잠수함 설계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루이 라콤브가 그것을 가져갔는가? 아니면 파기되었는가?

우리가 벌인 매우 면밀한 조사 결과, 그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랭 형제가 그것을 손에 넣었다. 어떻게? 그 경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그들이 왜 더 일찍 그것을 팔려 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혹시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는 추궁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일까? 어쨌든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루이 라콤브의 설계도는 어느 외국 세력의 소유라

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관해 바랭 형제와 그 세력 대표 사이에 오간 서신을 공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루이 라콤브가 고안한 '하트 7'은 우리 이웃 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배신에 가담한 자들의 낙관적인 예상을 현실이 그대로 실현해 줄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반대를 바랄 만한 근거가 있으며, 우리는 정말이지 사태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추신이 이렇게 덧붙어 있었다.

긴급 속보. — 우리의 기대는 옳았다. 우리가 입수한 독자적인 정보에 따르면, '하트 7'의 시험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바랭 형제가 넘긴 설계도에는 마지막 문서 한 건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루이 라콤브가 실종되던 날 밤 안데르마트 씨에게 건넨 그 문서다. 이 문서는 계획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다른 서류들에 담긴 최종 결론과 평가, 수치가 정리된 일종의 요약본이다.

이 문서가 없으면 설계도는 불완전하다.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없으면 그 문서도 쓸모가 없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우리 것을 되찾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이 몹시 어려운 일을 위해 우리는 안데르마트 씨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건다. 그는 처음부터 보여 온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을 해명해야 마땅하다. 에

티엔 바랭이 자살했을 때 자신이 알던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서류들이 사라진 사실을 왜 끝내 밝히지 않았는지도 말해야 한다. 또 6년 전부터 왜 자기 돈으로 고용한 요원들을 시켜 바랭 형제를 감시해 왔는지도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에게서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러지 않으면…….”

위협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기사의 익명 필자 살바토르는 안데르마트 씨에게 대체 어떤 협박 수단을 쥐고 있었던 것일까?

기자들이 떼 지어 은행가에게 몰려들었고, 열 건의 인터뷰가 그가 이 최후통첩에 보인 경멸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에코 드 프랑스』의 기고자는 다음 세 줄로 응수했다.

“안데르마트 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이미 우리가 벌이는 이 일의 협력자다.”

이 반박문이 실린 날, 다스리와 나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저녁이 되자 탁자 위에 신문을 펼쳐 놓고, 우리는 이 사건을 온갖 각도에서 따져 보았다. 끝없이 어둠 속을 걷다 늘 같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 느끼는 그런 짜증을 안은 채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알려 오지도 않았고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더니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들어섰다.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여기 사시는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접니다. 하지만 실은……."

"대로 쪽 철문이 잠겨 있지 않더군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럼 현관문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하인용 뒷계단으로 돌아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집 길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스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응접실에서 하듯 그를 소개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앉기를 권하며 방문 목적을 말해 달라고 청했다.

그녀가 베일을 벗자, 갈색 머리에 이목구비가 단정한 얼굴이 드러났다. 대단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한없는 매력이 있었는데, 그 매력은 무엇보다 두 눈에서, 진지하고 슬픔 어린 눈빛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짤막하게 말했다.

"저는 안데르마트 부인입니다."

"안데르마트 부인이라고요!"

나는 점점 더 놀라며 되뇌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는 더없이 차분한 태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일 때문에 왔어요. 선생님도 아시는 그 사건 말이에요. 혹시 선생님께 무언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맙소사, 부인, 저는 신문에 난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제야 나는 그녀의 침착함이 꾸며 낸 것이며, 그 완벽해 보이는 평정 아래 큰 동요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우리는 서로 똑같이 어색해진 채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줄곧 그녀를 살피던 다스리가 다가와 말했다.

"부인,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렇게라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루이 라콤브를 아셨습니까?"

"네, 남편을 통해 알고 지냈어요."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인가요?"

"그가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왔던 날 밤이었죠."

"그날 밤, 그를 다시는 못 보게 되리라 짐작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나요?"

"없었어요. 러시아 여행 얘기를 슬쩍 비치긴 했지만, 아주 막연하게요!"

"그럼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이셨군요?"

"네, 이틀 뒤 저녁 식사 때요."

"그런데 이 실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안데르마트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세요."

"『에코 드 프랑스』 기사를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겠소. 바랭 형제가 이 실종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요."

"당신의 생각도 그렇소?"

"당신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 거요?"

"루이 라콤베가 우리를 떠날 때, 그는 자신의 계획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든 서류가방을 지니고 있었소. 이틀 뒤, 내 남편은 살아남은 바랭 형제 중 한 명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서류들이 두 형제의 손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얻었소."

"그런데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소?"

"왜 그랬겠소?"

"서류가방 안에는 루이 라콤베의 서류 말고도 다른 것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오."

"무엇이요?"

그녀는 망설였다. 대답하려다 말다가, 결국 침묵을 지켰다. 다스프리가 계속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두 형제를 감시하게 했던 거군요. 남편은 문서들과, 두 형제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던 그 '위험한 것'까지 한꺼번에 되찾기를 바랐던 겁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도요."

"아! 당신에게도요?"

"주로 저에게요."

그녀는 그 세 마디를 낮고 먹먹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다스프리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몇 걸음 걷더니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당신은 루이 라콤베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물론이죠… 남편은 그와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런 공식적인 서신 말고, 루이 라콤베에게 보낸 다른 편지는 없었습니까? 계속 캐묻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편지는 없었습니까?"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속삭였다.

"그 편지들이 바로 바랭 형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군요?"

"안데르마트 씨도 그걸 아셨나요?"

"그 편지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알프레드 바랭이 남편에게 그 존재를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 자기들에게 맞선다면 그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요. 제 남편은 겁을 먹었습니다…… 스캔들이 두려워 물러섰죠."

"하지만 그는 그 편지를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모든 수단을 다 썼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알프레드 바랭과 마지막으로 면담을 한 뒤, 남편이 그 일을 아주 격한 몇 마디로 제게 전한 그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친밀함도 신뢰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잃을 게 없으실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그에게 아무리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어도, 저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고, 다시 사랑할 수도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타올랐다.

"그건 확신해요. 그가 그 저주받은 편지들을 손에 넣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도 저를 사랑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성공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두 형제는 경계하고 있었을 텐데요?"

"네, 오히려 그들은 안전한 은닉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까지 했다더군요."

"그럼 대체……?"

"제 남편이 그 은닉처를 찾아냈다고 봐요."

"설마! 그게 대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맞아요. 저는 늘 그러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었어요. 루이 라콤베는 무척 재주가 뛰어나고 기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틈만 나면 금고나 자물쇠를 만들며 즐기곤 했거든요. 바랭 형제는 그 은닉처 가운데 하나를 우연히 알아냈다가, 나중에 그걸 이용해 편지를…… 아마 다른 것들까지 숨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기 살지도 않았잖소!" 나는 소리쳤다.

"넉 달 전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 별장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곳에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모든 서류를 빼내야 할 때가 와도 당신이 있다는 게 방해가 되지는 않으리라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남편을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죠. 남편은 6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에 금고를 부수고…… 찾던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더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고 명함을 남겼죠. 이틀 뒤, 《질블라》지의 기사를 보고 에티엔 바랭이 당신 집으로 급히 찾아와, 이 거실에 혼자 남았다가 텅 빈 금고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잠시 후, 다스프리가 물었다.

"그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죠? 안데르마트 씨가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당신 앞에서의 그의 태도가 변한 적이 없나요? 더 어둡고, 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그가 편지를 찾아냈다면, 그가 그런 모습을 보였겠어요? 제 생각엔 그는 편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그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요."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모든 줄을 쥐고 있는 그 수수께끼의 인물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그 목적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지만, 그 인물은 첫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전능한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바로 그 인물과 그의 동조자들이 6월 22일 이 호텔로 들어왔고, 그 인물이 숨겨진 곳을 찾아냈으며, 안데르마트 씨의 명함을 남겼으며, 바랭 형제들의 배신 증거인 편지와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누구 말이오? 그 사람?" 나는 참다못해 끼어들었다.

"《에코 드 프랑스》 지의 통신원, 바로 그 살바토르 말입니다!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자의 기사에는 두 형제의 비밀을 꿰뚫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데르마트 부인이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그자가 내 편지들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이번엔 그자가 제 남편을 협박하는 거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맙소사!"

"그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다스프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숨김없이 그를 믿고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것, 또 앞으로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이익은 그의 이익과 같습니다. 그가 두 형제 중 살아남은 자를 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가 노리는 건 안데르마트 씨가 아니라 알프레드 바랭입니다. 그를 도우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이 루이 라콤베의 설계도를 보완하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살바토르에게 그 사실을 알리세요. 필요하다면 그 문서를 그에게 구해다 주도록 애써 보세요. 요컨대 그와 서신을 주고받으시라는 겁니다.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뜻 보기엔 대담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한 조언이었지만, 안데르마트 부인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다스프리의 말마따나, 그녀가 무엇을 무릅쓴단 말인가?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적이라 해도 이 시도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일은 없었다. 만약 특별한 목적을 좇는 제삼자라면, 그 편지들은 그에게 부차적인 의미밖에 없을 터였다. 어쨌든 거기엔 하나의 묘안이 있었고, 혼란에 빠져 있던 안데르마트 부인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틀 뒤, 그녀가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

"편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모든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S."

내가 그 종이를 받아 들었다. 6월 22일 밤, 내 침대맡 책 사이에 끼어 있던 그 메모의 필체였다.

다스프리가 맞았다. 살바토르가 바로 이 사건의 주모자였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줄기를 분간하기 시작했고, 어떤 부분들은 뜻밖의 빛으로 환해졌다. 하지만 두 장의 하트 7이 발견된 일처럼, 여전히 캄캄하게 남은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나로서는 늘 그 문제로 되돌아오곤 했고, 그토록 불안한 상황에서 내 눈을 사로잡았던 그 두 장의 카드에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 카드에는 구멍이 뚫린 일곱 개의 작은 하트 무늬가 있었다.

그 카드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어떤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까? 그리고 루이 라콤베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잠수함이 '하트 7'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끌어내야 할까?

다스프리는 두 장의 카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더 시급해 보이는 다른 문제가 온통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유명한 은닉처를 지칠 줄 모르고 찾아다녔다.

"누가 알겠어, 어쩌면 살바토르가 부주의로 그곳에서 못 찾고 지나친 편지를 내가 찾아낼지."

그가 말하곤 했다.

"바랭 형제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여기던 곳에서,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걸 자기들도 알던 무기를 굳이 치웠다는 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

그는 계속 찾았다. 큰 방은 머지않아 그에게 더는 감출 비밀이 없게 되자, 그는 별장의 다른 방들로까지 조사를 넓혀 갔다. 그는 안팎을 샅샅이 살피고, 벽의 돌과 벽돌을 일일이 들여다보았으며, 지붕의 슬레이트까지 들어 올려 보았다.

어느 날, 그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타났다. 나에게는 삽을 건네고 곡괭이는 자기가 챙긴 뒤, 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자."

나는 별다른 흥미 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는 빈터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폈다. 그러다 이웃한 두 집의 담이 맞닿아 이룬 구석에서, 가시덤불과 잡초에 덮인 채 쌓여 있는 잡석과 자갈 더미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거들었다. 한 시간 동안 뙤약볕 아래에서 우리는 헛수고를 했다. 하지만 치워 낸 돌들 밑으로 땅바닥까지 파 내려가 그

것을 파헤치자, 다스프리의 곡괭이가 뼈들을 드러냈다. 아직도 옷조각이 너덜너덜 매달려 있는, 해골의 잔해였다.

그 순간,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땅바닥에 작은 철제 판이 박혀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각형으로 잘려 있었으며, 그 위에 붉은 얼룩이 있는 듯했다. 나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맞았다. 그 판은 트럼프 카드만 한 크기였다. 붉은 얼룩은 부분적으로 벗겨진 광명단(붉은 납)의 붉은빛이었고, 모두 일곱 개였다. 일곱 개의 점은 하트 7처럼 배열되어 있었고, 일곱 꼭짓점마다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었다.

"들어봐요, 다스프리. 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긋지긋합니다. 당신에게 흥미로운 일이라면 다행이죠.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감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을 해낸 피로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틀거렸고, 결국 침대에 누워 사십팔 시간이나 꼼짝하지 못했다. 열이 치솟고 온몸이 타올랐으며, 내 주위를 맴도는 해골들이 피투성이 심장을 서로의 머리에 던지는 환상에 시달렸다.

다스프리는 나에게 충실했다. 그는 매일 서너 시간을 내게 내주었는데, 사실 그 시간을 큰 방에서 여기저기 뒤지고 두드리고 톡톡 치며 보냈다.

"편지는 여기, 이 방 안에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장담해요." 그가 가끔 내게 와서 말하곤 했다.

"나를 좀 내버려 둬." 나는 진저리를 내며 대답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아직 몸이 나른했지만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며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오후 다섯 시쯤 도착한 한 통의 전보는 내 회복을 완성해 주었다. 무엇이 나를 더 강하게 자극했을까. 호기심이 다시금,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에 일어난 이 비극의 첫 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사태의 필연이 이 비극의 두 주요 인물을 서로 마주 세우기를, 또 그 대면이 당신 집에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니, 오늘 밤 당신의 거처를 빌려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하인을 멀리 보내 두는 것이 좋겠고, 두 적수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께서도 부디 자리를 비워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던 밤, 당신이 보셨다시피 나는 당신께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나칠 만큼 세심히 존중했다. 한편 나로서는, 이 편지에 서명하는 자에 대한 당신의 절대적인 신중함을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라 여길 것이다

편지 속에는 정중한 아이러니가 서려 있었고, 그 부탁에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장난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마음에 흠뻑 빠졌다.

그 태도는 매력적일 만큼 거리낌이 없었다. 상대방은 내 승낙이 이미 결정된 줄로만 알았다.

나는 그 신뢰를 배신하거나, 그 호의에 배은망덕으로 답하는 무례한 짓을 절대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여덟 시, 내가 극장 표를 사 주었던 하인이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다스프리가 도착했다. 나는 작은 파란색 쪽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물었다.

"정원 철문을 열어 두겠어. 그리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넌 안 남는 거야?"

"절대로!"

"하지만 부탁한 게 있잖아…"

"그건 신중함을 요구한 거야. 난 신중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꼭 보고 싶어."

다스프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음, 당신 말이 맞소. 나도 남겠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구려."

그때 종소리가 났다.

"벌써 그들이?" 그가 중얼거렸다. "게다가 이십 분이나 빨리 왔잖아! 그럴 리가."

현관에서 나는 철문을 여는 줄을 당겼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안데르마트 부인이었다.

그녀는 크게 동요한 듯 숨을 헐떡이며 더듬거렸다.

"제 남편이… 오십니다. 약속이 있어서… 남편에게 편지를 주기로 돼 있대요…"

"어떻게 알았소?" 내가 물었다.

"우연이었어요. 저녁 식사 중 남편이 받은 쪽지 한 장 때문이죠."

"작은 파란 쪽지요?"

"전화 메시지였어요. 하인이 실수로 저에게 건넸죠. 남편이 바로 그것을 집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읽어 버렸거든요."

"당신이 읽어 버렸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밤 아홉 시, 마요 대로에서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 대가로 편지를 드리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방으로 올라갔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데르마트 씨 모르게요?"

다스프리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안데르마트 씨는 소환된 상대방 중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목적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곧 알게 될 일입니다."

나는 그들을 큰 방으로 데려갔다.

우리 셋은 그럭저럭 벽난로 갓 아래로 들어가 벨벳 휘장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안데르마트 부인이 우리 둘 사이에 앉았다. 휘장 틈새로 방 전체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아홉 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몇 분 뒤, 정원의 철문이 경첩에서 삐걱였다.

솔직히 나는 어떤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로운 열기가 나를 들뜨게 했다. 드디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몇 주째 내 눈앞에서 우여곡절을 펼쳐 온 그 당혹스러운 모험이 마침내 참뜻을 드러낼 참이었고, 바로 내 눈앞에서 한바탕 격전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다스프리가 안데르마트 씨의 손을 쥐며 속삭였다.

"무엇보다,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엇이 들리든 무엇이 보이든 차분히 계세요."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에티엔 바랭과 너무도 닮은 그의 형제 알프레드였다. 똑같이 무거운 걸음걸이에, 수염이 뒤덮은 똑같은 흙빛 얼굴이었다.

그는 함정이 숨어 있을까 늘 경계하며 냄새 맡듯 그것을 살피고 피하는 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불안한 기색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눈에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벨벳 휘장으로 가려진 그 벽난로가 그에게 거슬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가 우리 쪽으로 세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분명 더 강렬한 어떤 생각이 그의 발길을 돌려놓았다. 그는 벽 쪽으로 방향을 틀어, 수염이 무성하고 불꽃 같은 검을 든 낡은 모자이크 왕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오래도록 그것을 응시했다. 의자에 올라서서 손가락으로 어깨와 얼굴의 윤곽을 더듬었고, 그림의 일부분을 만져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벽에서 물러섰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턱에 안데르마트 씨가 나타났다.

은행가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당신! 당신! 나를 부른 게 당신이오?"

"나? 천만에." 형을 떠올리게 하는 갈라진 목소리로 바랭이 항변했다. "나를 오게 한 건 당신의 편지였소."

"내 편지라니!"

"당신이 서명한 편지요. 거기서 당신이 나에게……"

"난 당신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소."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바랭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은행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 함정으로 끌어들인 정체 모를 적을 향해서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향했고, 그는 재빨리 문 쪽으로 향했다.

안데르마트 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체 뭘 하는 거요, 바랭?"

"여기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작이 숨어 있어. 나는 가겠소. 그럼 이만."

"잠깐!"

"이보세요, 안데르마트 씨,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 말이 많소. 이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오."

"길을 비켜주시오."

"아니오, 아니요, 당신은 지나갈 수 없소."

바랭은 은행가의 단호한 태도에 위축되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빨리 말하고 끝내자고!"

나는 의아했다. 내 두 동료도 같은 실망을 느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째서 살바토르가 그 자리에 없는 걸까? 개입하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었던 걸까? 은행가와 바랭의 대면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여긴 걸까? 나는 묘하게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가 자리에 없는 탓에, 그가 짜고 그가 바란 이 결투는 운명의 엄정한 질서가 불러내고 명령하는 사건과도 같은 비극적 양상을 띠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그 힘은, 그것이 그들 바깥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잠시 후, 안데르마트 씨가 바랭에게 다가가, 정면으로 눈과 눈을 마주했다.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당신도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지. 솔직하게 답해 줘, 바랭. 루이 라콩브는 어찌 됐나?"

"설마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제가 어떻게 그의 행방을 알 수 있겠어요?"

"당신은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당신과 형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았고, 거의 그의 집에서, 정확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에서 살다시피 했잖아. 그의 모든 작업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바랭, 마지막 밤에 내가 루이 라콩브를 내 집 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올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개의 실루엣을 봤어. 그건 단언할 수 있어."

"그리고서요? 당신이 그렇게 맹세한다고 해서요?"

"그건 바로 당신과 형이었지, 바랭."

"그걸 증명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이틀 후, 당신은 스스로 라콤브의 서류가방에서 건진 서류와 도면을 저에게 보여 주며, 그것들을 팔겠다고 제안했죠. 그 서류들이 어떻게 당신의 손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안데르마트 씨. 라콤브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바로 그 루이 라콤브의 책상 위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사법 기관이라면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법 기관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 왜 그랬을까…"

그는 얼굴을 어둡게 하며 말을 멈췄다. 그러자 상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보십시오, 안데르마트 씨. 만약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우리가 했던 작은 협박이 당신을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떤 협박이요? 그 편지들 말입니까? 제가 그걸 단 한 순간도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편지를 믿지 않았다면, 왜 그 편지를 돌려받겠다며 거액을 내걸었소? 그리고 그 이후로, 왜 우리 형제를 짐승처럼 쫓아다녔소?"

"내가 꼭 필요로 했던 도면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것은 편지를 위한 것이었소. 편지를 손에 넣은 당신은 우리를 고발하려던 거요. 내가 그걸 손에서 놓았다고? 꿈도 꾸지 마시오."

그가 갑자기 터져 나온 웃음을 멈췄다.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어. 같은 말만 되풀이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러니 이쯤에서 끝내자."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편지에 대해 말했으니, 그 편지를 돌려주기 전에는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은행가가 말했다.

"나는 나갈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들으세요, 안데르마트 씨. 제가 권고합니다…"

"당신은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건 두고 볼 일이오." 바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 안데르마트 씨는 작은 비명을 삼켰다.

바랭은 그 비명을 들었던 게 틀림없다. 억지로 빠져나가려 했으니까. 안데르마트 씨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때 나는 그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먼저 편지를 주세요."

바랭이 권총을 꺼내 안데르마트 씨를 조준했다.

"예, 아니면 아니오?"

은행가는 급히 몸을 숙였다.

총성이 터졌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총성이 내 바로 옆에서 터졌기 때문이다. 다스프리가 권총 탄환으로 알프레드 바랭의 손에서 권총을 떨어뜨린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두 적수 사이에 불쑥 일어서서, 바랭을 마주 보며 비웃듯 빈정거렸다.

"운이 좋으시네요, 친구. 정말 운이 좋으세요. 저는 손을 노렸는데 권총을 맞히다니."

두 사람은 그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다스프리는 은행가를 향해 말했다.

"제게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정말이지 당신은 너무 서툴게 판을 벌이고 계시는군요. 제가 카드를 잡게 해 주십시오."

그는 다른 쪽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 둘이서 해봅시다, 동지. 그리고 부디 빠르게. 으뜸패는 하트요, 나는 7을 내겠소."

그는 코에서 세 치(약 8센티미터) 거리까지 그 남자에게 철제 판을 들이댔다. 판 위에는 붉은 점 일곱 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 전체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남자는 마치 그 앞에 펼쳐진 형상에 홀린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더듬거렸다.

"이미 말했잖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주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지."

"무엇을 원합니까?"

"네가 가져온 모든 것."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안 가져왔다면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오늘 아침, 아홉 시에 여기로 오라고, 가지고 있는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는 쪽지를 받았지. 그런데 이렇게 왔군. 서류는 어디 있나?"

다스프리의 목소리에는, 그의 태도에는,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어떤 위엄이 서려 있었다. 평소 나른하고 온화하던 그 남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태도였다.

완전히 제압된 바랭은 주머니 중 하나를 가리켰다.

"서류는 여기 있소."

"다 있나?"

"네가 루이 라콤브의 가방에서 찾아내 폰 리벤 소령에게 팔아넘긴 것들 전부 말이야."

"사본이냐, 원본이냐?"

"원본이야."

"얼마에 팔 거야?"

"십만 프랑."

다스프리는 크게 웃었다.

"너 미쳤나? 소령이 너한테 준 건 고작 이만이야. 이만을 물에 던진 셈이지.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그 도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야."

"도면이 불완전해."

"그럼 왜 나한테 달라는 거요?"

"내가 필요하거든. 너한테 오천 프랑을 주마.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일만 프랑입니다. 한 푼도 깎지 마세요."

"합시다."

다스프리는 안데르마트 씨에게로 돌아왔다.

"수표 한 장 써 주시겠소, 선생님."

"하지만… 제가…"

"수표장? 여기 있습니다."

안데르마트 씨는 당황한 나머지 다스프리가 건네는 수표장을 더듬거렸다.

"내 수표장이 맞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시죠, 친애하는 선생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은행가는 자기 펜을 꺼내 서명했다. 바랭이 손을 내밀었다.

"손은 대지 마시오." 다스프리가 일갈했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가에게 말을 돌렸다.

"편지 건도 있었죠. 당신이 찾아내라고 했던 그 편지 말입니다."

"네, 편지 한 뭉치요."

"그건 어디에 있소, 바랭?"

"저는 모릅니다."

"어디 있소, 바랭?"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형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 편지는 분명히 여기, 이 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가 어디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군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숨겨진 곳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보도 살바토르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편지는 그 곳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죠."

"열어보시오."

바랭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스프리와 살바토르는 정말로 한패였을까? 모든 정황이 그렇게 추측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한패라면, 이미 알려진 장소를 보여준다고 해서 위험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관계라면, 그건 무의미한 일일 뿐이었다.

"열어보라고 했어요," 다스프리가 다시 말했다.

"하트 7은 없습니다."

"있어요. 이거요," 다스프리가 쇠판을 내밀며 말했다.

바랭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아니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스리는 흰 수염을 가진 옛 군주 쪽으로 다가가 의자 위에 올랐다. 그리고 하트 7을 칼날 아래, 칼받이에 딱 붙였다. 카드 가장자리가 칼날 양옆을 완벽히 덮도록 말이다.

그리고 뾰족한 도구 하나를 꺼내, 하트 7의 구멍 하나하나에 번갈아 끼워 넣으며 작은 돌들을 눌러댔다. 일곱 번째 돌을 꾹 누르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왕의 흉상이 빙글 돌아갔다. 그러자 철제 내벽과 빛나는 강철 막대 두 개가 드러난, 금고 같은 넓은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잖아, 바랭. 금고는 비어 있어."

"그래요… 그렇다면 제 형이 편지를 가져갔겠죠."

다스리는 다시 그 남자 쪽으로 돌아와 말했다.

"나랑 속임수를 부리지 마. 다른 숨겨진 곳이 있을 거야. 어디 있느냐고?"

"없어."

"돈이 필요하냐? 얼마를 원하느냐?"

"만 프랑."

"안데르마트 씨, 그 편지들이 당신에게 만 프랑의 가치가 있습니까?"

"네." 은행가가 힘차게 말했다.

바랭은 금고 뚜껑을 닫았다. 하트 7을 꺼내 들 때, 그는 뚜렷한 꺼림칙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 카드를 칼날의 날밑 부분에 정확히 같은 위치에 대었다. 그리고 하트 일곱 개 점 끝부분에 뾰족한 도구를 차례로 꽂아 넣었다.

두 번째 장치가 작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금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빙글 돌아갔다. 그러자 큰 금고의 문 두께 속에 파여 있던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편지 더미가 거기 있었다. 끈으로 동여매고 봉인까지 되어 있었다. 바랭이 그것을 다스프리에게 건넸다. 다스프리가 물었다.

"안데르마트 씨, 수표는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루이 라콤브에게서 받아 온 마지막 문서도 있군요. 잠수함 설계도를 완성해 주는 그 문서 말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했다. 다스프리는 문서와 수표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안데르마트에게 편지 더미를 건넸다.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은행가는 잠시 주저했다.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쫓아다녔던 저주받은 그 페이지들을 만지는 게 두려운 듯했다. 그러곤 신경질적인 손길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내 곁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데르마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스프리가 은행가를 향해 말했다.

"저는, 선생님, 우리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 감사의 말은 사양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안데르마트 씨는 물러나갔다. 그는 아내가 루이 라콤브에게 보낸 편지들을 챙겨 들고 갔다.

"훌륭하군!" 다스프리가 환한 표정으로 외쳤다. "모든 것이 더없이 잘 풀렸어. 이제 우리 일만 마무리하면 되겠군, 동지. 서류는 가지고 있나?"

"다 여기 있습니다."

다스프리는 서류들을 뒤적이며 꼼꼼히 살펴보더니,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완벽하군. 약속을 지켰구나."

"그런데요?"

"수표 두 장은요? 돈은요?"

"허, 너 참 배짱 좋구나, 친구. 어떻게 감히 요구를 하나!"

"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럼 네가 훔친 서류 값을 우리가 너한테 치러야 한다는 거냐?"

하지만 그 남자는 미친 듯이 흥분하고 있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돈이요… 이만 프랑이요…" 그가 더듬거렸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쓸지 다 정해 놨으니까요."

"돈이요!"

"자,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칼은 내려놓는 게 좋겠어."

그가 갑자기 그 남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남자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뤼팽이 덧붙였다.

"가자, 친구.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좋겠어. 내가 길 안내해 줄까? 빈터로 빠져나가자. 거기 돌무더기 밑에 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 빨간 점 일곱 개가 새겨진 작은 철판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건 루이 라콤브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죠, 기억나시죠? 당신 형과 당신이 그 철판을 시체와 함께 묻었잖아요. 그리고 사법당국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질 다른 것들과 함께 말이죠."

바랑은 분노에 찬 주먹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좋아요. 제가 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하지만 한 마디만… 오직 한 마디만…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금고 안에, 두 개 중 더 큰 금고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나요?"

"6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던 밤에 당신이 이곳에 왔을 때, 그게 거기 있었나요?"

"그 안에는 무엇이…?"

"바랑 형제가 넣어둔 모든 것이었습니다. 꽤 멋진 보석 수집품이었는데, 다이아몬드와 진주들을 형제가 여기저기서 그러모은 것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그걸 가져갔나요?"

"원 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작은 상자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내 형이 자살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죠. 폰 리벤 소령과의 서신만 사라졌다면 형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자가 사라졌으니… 그게 당신이 묻고 싶은 전부인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요."

"보복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요."

"물론이죠. 운은 돌고 도는 법이죠. 오늘은 당신이 이기고 있지만, 내일은…."

"내일은 당신이 이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당신의 이름은?"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

남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몽둥이로 강타라도 당한 듯했다. 그 두 단어는 그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다스프리는 비웃듯 웃었다.

"아, 그러고 보니. 뒤랑이나 뒤퐁 같은 평범한 신사가 이 모든 일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나? 말이 안 되지. 최소한 아르센 뤼팽쯤은 되어야 했지. 이제 네가 사정을 알았으니, 꼬마야, 가서 네 보복을 준비해라. 아르센 뤼팽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다스프리, 다스프리!"

나는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를 알고 지내던 이름으로 불러버렸다.

벨벳 커튼을 젖혔다.

그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 있소?"

"안데르마트 부인이 편찮으십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각성제를 맡게 했고, 간호하는 와중에도 나에게 물었다.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편지들입니다, 다스프리 씨. 당신이 그녀의 남편에게 건넨, 루이 라콤브의 편지들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마를 때렸다.

"그녀가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래, 어쨌든 그녀가 그렇게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안데르마트 부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그의 말을 간절히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소포를 꺼냈다. 안데르마트 부인이 가져갔던 것과 외형상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여기, 마담. 진짜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지들은요?"

"다른 편지들도 내용만 같을 뿐, 글씨는 제가 오늘 밤 직접 베껴 써서 꼼꼼히 손본 것입니다."

"남편께서 읽으시면 더 기뻐하실 겁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 테니까요. 편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니 말입니다."

"글씨가……"

"따라 쓰지 못할 글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말투와 태도는 마치 자신의 계급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바랑과 아르센 뤼팽 사이에 오갔던 마지막 대화는 들었을 리 없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다.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난 옛 친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뤼팽! 바로 뤼팽이었다! 동호회에서 함께 어울리던 동료가 실은 그 뤼팽이라니. 나는 믿기지 않아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여유가 넘쳤다.

"장 다스프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장 다스프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모로코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그에게 어울리는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그게 그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르센 뤼팽은 우리 곁에 남는 건가요?"

"오,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르센 뤼팽은 아직 커리어의 시작일 뿐이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안데르마트 부인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당신은 두 번째 숨겨진 장소, 즉 편지 더미가 있던 곳을 찾아낸 거군요?"

"정말 고생했어요. 어제 오후, 당신이 누워 계실 때야 비로소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다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마지막에야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그가 하트 7장을 꺼내 내보이며 말했다.

"큰 금고 열쇠가 이 카드라는 건 금방 알았어요. 모자이크로 만든 인형의 검에 이 카드를 대면 금고 문이 열리더군요."

"어떻게 그걸 알아냈나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미리 알아둔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밤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를 떠나고 나서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과 나눈 대화를 통해 당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조종했죠. 신경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당신이라면, 절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제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논리는 타당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저는 비밀 잠금장치가 달린 금고 안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트 7이 그 잠금장치의 열쇠이자 비밀번호라는 것도요. 남은 일은 그 하트 7을, 그것을 대도록

분명히 정해진 자리에 갖다 대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시간만 살펴보면 충분했죠."

"한 시간이라니!"

"모자이크로 만든 인물상을 자세히 보시오."

"그 늙은 황제 말이오?"

"그 늙은 황제는 모든 트럼프 카드에서 하트 킹을 상징하는 샤를마뉴를 정확히 재현한 것입니다."

"그렇군… 그런데 왜 하트 7은 때로는 큰 금고를, 때로는 작은 금고를 열게 되는 거요? 그리고 왜 당신은 처음에 큰 금고만 열었소?"

"왜냐고요? 그냥 제가 하트 7을 늘 같은 방향으로만 놓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카드를 뒤집어서, 즉 일곱 번째 점인 가운데 점을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 하면, 일곱 개 점의 배치가 달라진다는 걸요."

"아, 그렇군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걸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 이야기는, 안데르마트 씨가…"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몰랐냐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작은 상자 말고는 두 형제의 서신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서신 덕분에 그들의 배신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결국 우연히, 먼저 두 형제의 사연을 재구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잠수함의 설계도와 문서들을 찾아내게 된 거군요?"

"우연이었죠."

"그런데, 대체 무슨 목적으로 찾으신 거죠?"

다스프리가 웃으며 내 말을 끊었다.

"세상에, 이 사건이 당신을 그렇게도 흥미롭게 만드는군요."

"저는 이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안데르마트 부인을 배웅하고, 프랑스 에코 지에 보낼 짧은 글을 쓰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그는 자리에 앉아, 특유의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짧고 날카로운 메모를 하나 쓰기 시작했다. 이 메모가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있겠는가?

"아르센 뤼팽이 살바토르가 최근 던진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술자 루이 라콤브의 원본 문서와 도면을 모두 손에 넣은 그는 이를 해군 장관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이 도면으로 건조한 첫 번

째 잠수함을 국가에 기증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그 모금 운동의 1번 기부자로, 이만 프랑을 내겠다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데르마트 씨의 수표에서 나온 이만 프랑 말인가요?"

내가 종이를 받아 읽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바랑이 자신의 배신을 부분적으로나마 갚는 것이 마땅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아르센 뤼팽을 알게 되었다.

모임에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이자 사교계의 인물이었던 장 다스프리가, 실은 괴도신사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위대한 인물과 매우 즐거운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가 나를 믿어주신 덕분에, 나는 그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는 기록자가 되었다.

앵베르 부인의 금고

자정이 지나 세 시. 베르티에 대로 한쪽편에 붙어 있는 작은 화가들의 주택가 앞에는 아직 여섯 대의 마차가 멈춰 있었다.

그 주택의 문이 열리자, 남자와 여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네 대의 마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쏜살같이 사라졌고, 거리에는 두 남자가 남았다. 그들은 코르셀 거리 모퉁이에서 헤어졌다. 그중 한 명의 집이 바로 그쪽이었다.

나머지 한 남자는 발걸음을 재촉해 마요 문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는 빌리에 대로 너머를 가로질러 성벽 쪽 반대편 보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맑고 차가운 겨울 밤이었다.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공기가 맑아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상쾌했다.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보니,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테르느 세관으로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달려나왔다. 불안해진 그는 맞서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에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남자가 그를 맹렬히 덮쳤다. 한적한 대로에서 곧장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곧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움을 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돌무더기 옆으로 쓰러뜨려졌고, 목이 조여왔다. 상대가 손수건을 그의 입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멍멍해졌다. 의식을 잃으려던 찰나, 갑자기 조르던 힘이 풀렸다. 그를 짓누르던 남자가 뒤이어 닥친 예기치 못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지팡이로 손목을 내리찍고, 구두로 발목을 차는 소리.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두 번 내뱉고는 절뚝거리며 욕설을 퍼붓고 달아났다.

새로 온 남자는 그를 쫓아갈 생각도 없이 몸을 굽혀 물었다.

"다치셨습니까, 선생님?"

그는 다친 게 없었다. 하지만 어지러움에 정신이 아뜩했고,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다행히 세관 직원 한 명이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 마차가 불렸다. 그는 구원자와 함께 마차에 올라, 그랑다르메 거리(avenue de la Grande-Armée)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완전히 기운을 차린 그는 감사의 말을 쏟아냈다.

"선생님,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바로 그녀가 직접 제 감사 인사를 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점심을 함께 먹자고 권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루도빅 앵베르였다. 그는 덧붙여 물었다.

"제가 누구와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상대가 말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때의 아르센 뤼팽은 카호르 사건, 상테 형무소 탈출,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화려한 활약으로 훗날 얻게 될 명성을 아직 누리지 못했다. 아니, 그는 아예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다. 훗날 그 이름을 빛나게 할 그 호칭은, 앵베르 씨를 구한 인물을 지칭하기 위해 특별

히 고안된 가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전장'이었다.

비록 전투 준비를 완벽히 갖추고 무장도 했지만, 그에게는 밑천도 없고 성공이 가져다주는 권위도 없었다. 아르센 뤼팽은 아직 이 직업의 초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분야에서 대가가 될 인물이었다.

잠에서 깨어 지난밤의 초대가 떠오르자, 그는 얼마나 큰 기쁨의 전율을 느꼈던가! 드디어 목표에 다다른 것이다. 드디어 자신의 힘과 재능에 걸맞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앵베르 가문의 수백만 프랑은 그의 식욕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냥감이었다.

그는 특별한 차림새를 갖췄다. 닳은 프록코트, 헐렁한 바지, 약간 붉게 바랜 실크 모자, 그리고 올이 드러난 소맷동과 탈부착식 가짜 옷깃이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했지만, 어딘지 궁핍한 냄새가 풍겼다. 넥타이 대신 호두 모양의 싸구려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검은 리본을 매고 있었다.

이렇게 차려입은 그는 몽마르트르에 있는 자신의 거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3층에 다다르자 그는 멈추지 않고 지팡이 손잡이로 닫힌 문을 두드렸다. 밖으로 나가 외곽 대로로 향했다. 전차 한 대가 지나가자 그는 올라타 앉았고, 뒤를 따르던 3층의 한 주민이 그 옆에 함께 앉았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물었다.

"자, 보스?"

"다 됐어."

"어떻게?"

"내가 거기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

"당신이 거기서 점심을?"

"당신은 내가 내게 이렇게 귀중한 날들을 아무 대가 없이 내몬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나는 루도빅 앵베르 씨를 당신이 준비해 둔 확실한 죽음에서 구해냈어. 루도빅 앵베르 씨는 감사하는 성품이야. 그는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지."

잠시 침묵이 흐르자, 다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친구야," 아르센이 말했다. "내가 오늘 밤의 작은 습격을 꾸몄고, 새벽 세 시에 성벽 근처에서 네 손목에 지팡이로 한 대, 정강이에 발차기 한 대를 가해, 내 유일한 친구를 다치게 할 위험까지 무릅썼던 건, 이제까지 이렇게 잘 조직된 구출 작업의 혜택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 재산에 대한 나쁜 소문이…"

"그런 소문은 떠돌게 놔둬. 나는 여섯 달째 이 일을 쫓고 있다. 여섯 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물을 치고, 하인들과 대부업자, 그리고 앞잡이들을 심문했다. 여섯 달 동안 나는 그 부부와 그림자처럼 함께 지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잘 안다. 그 재산이 그들이 주장하듯 브로우퍼드 영감에게서 온 것이든, 다른 곳에서 온 것이든, 나는 그 재산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장담한다. 그리고 그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다."

"허, 1억 프랑!"

"1천만 프랑으로 치자. 아니 5백만 프랑이라도 괜찮다. 금고 안에는 거대한 분량의 유가증권이 들어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쇠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트램이 에투알 광장에 멈췄다.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럼, 당분간은?"

"당장은 할 일이 없어. 내가 알려줄 테니 걱정 마. 시간도 충분해."

5분 뒤, 아르센 뤼팽은 앵베르 저택의 화려한 계단을 올라갔다. 루도빅이 그를 아내에게 소개했다.

제르베즈는 작고 통통하며 무척 수다스러운 선량한 부인이었다. 그녀는 뤼팽을 더없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우리 구원자를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부터 그들은 '구원자'를 오랜 친구처럼 대했다.

디저트 자리에는 이미 친밀감이 가득 찼고,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는 말도 거침없이 오갔다.

아르센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삶, 청렴한 법관으로서의 삶, 어린 시절의 슬픔, 그리고 현재 직면한 어려움들까지.

제르베즈도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결혼 생활, 그리고 브로우퍼드 영감의 자비로움. 그녀가 상속받은 1억 프랑의 거액, 그리고 그 돈을 실제로 쓰게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

그녀는 고리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던 사정, 브로우퍼드의 조카들과 끝없이 이어진 다툼,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압류 조치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글쎄 말이에요, 뤼팽 씨. 증서들이 바로 옆, 남편의 서재에 있거든요. 만약 쿠폰 하나라도 떼어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요. 금고 안에 있는데, 우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뤼팽은 그것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생각에 가볍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선량한 부인과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고매한 영혼은 결코 지니지 못하리라는 것을 또렷이 느꼈다.

"아, 거기에 있군요." 그가 목이 말라 중얼거렸다.

"네, 있어요."

이처럼 좋은 인연으로 시작된 관계는 더욱 끈끈한 결속으로 이어졌다.

세심하게 묻는 질문에 아르센 뤼팽은 자신의 궁핍함과 절박한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불쌍한 청년은 부부에게 특별 비서로 임명되었다. 월급은 백오십 프랑.

그는 여전히 자택에 머물되, 매일 출근해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다.

편의를 위해 2층의 한 방을 그의 서재로 제공했다.

그는 그 방을 선택했다.

어떤 훌륭한 우연인지, 그 방은 루도빅의 사무실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르센은 곧 자신이 맡은 비서 자리가 실은 한가한 자리임을 깨달았다.

두 달 동안 그가 복사해야 할 것은 하찮은 편지 네 통에 불과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사무실로 불려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금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이 한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의회 의원 안케티나 변호사 협회 회장 그루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챘다. 그들은 그를 유명한 사교계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늘진 곳의 작은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냈다. 게다가 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일단 루도빅의 사무실을 여러 번 몰래 찾아가 둘러보았다. 금고에 인사도 드렸다. 하지만 금고는 여전히 단단히 닫힌 채였다. 거대한 주철과 강철 덩어리로 외관부터 위압적이었다. 줄칼도, 송곳도, 쇠지렛대도 그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아르센 뤼팽은 고집이 없었다.

'힘으로 안 되는 건 꾀로 풀어야지. 핵심은 그 안에 눈과 귀를 하나 심어 두는 거야.'

그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방 마루를 뚫어 정밀하고도 고된 탐침 작업을 한 끝에, 납으로 된 관을 집어넣었다. 이 관은 서재 천장의 코니스 장식 두 줄 사이로 빠져나왔다. 관은 청음관이자 망원경 구실을 했고, 그는 이것으로 보고 듣기를 바랐다.

그때부터 그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지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앵베르 부부를 자주 목격했다. 그들은 금고 앞에서 회의를 하거나, 장부를 뒤적거리며 서류를 다루곤 했다. 그들이 금고 자물쇠를 여는 네 개의 다이얼을 차례로 돌릴 때면, 그는 숫자를 알아내려 애썼다. 다이얼이 멈출 때마다 돌아가는 톱니의 수를 세어, 그 숫자를 추정해 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몸짓을 살피고 그들의 말을 엿들었다. 그들은 열쇠를 어떻게 했을까? 숨겨두었을까?

그날,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방에서 나가는 두 사람을 보고도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저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있었다.

"아, 실례합니다. 방을 잘못 들어왔군요."

하지만 제르베즈가 재촉하듯 달려나와 그를 끌어당겼다.

"어서 오십시오, 뤼팽 씨. 여기가 당신 집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증권을 팔아야 할까요? 외채를 팔까요, 국채를 팔까요?"

"하지만 지급정지(이의) 신청이 걸려 있는데?" 뤼팽은 매우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다.

"아니요, 모든 증권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선반 위에는 가죽 끈으로 동여맨 서류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반대했다.

"아니, 제발요, 제르베즈. 외채를 판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오를 거예요. 반면 국채는 이미 정점에 달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애하는 친구?"

친애하는 친구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하지만 국채를 매도하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뭉치를 하나 집어 들고, 그중에서 아무거나 한 장을 뽑아 들었다. 1,374프랑어치의 3% 국채 증권이었다. 루도비크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오후가 되어, 그는 비서와 함께 증권 중개인을 시켜 그 증권을 팔게 했고, 46,000프랑을 받아냈다.

제르베즈가 뭐라든, 아르센 뤼팽은 이곳을 자기 집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앵베르 저택에서의 그의 처지는 그를 놀라게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는 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그냥 '므슈'라고 불렀다. 루도비크 역시 항상 그렇게 불렀다. "므슈께 알리게. 므슈는 도착하셨나?"

이렇게 묘한 호칭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초반의 열정이 식자, 앵베르 부부는 그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은인으로서 예우는 갖추되, 정작 그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남이 귀찮게 구는 것을 싫어하는 기인(奇人)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고독을 마치 그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자 일종의 변덕인 양 존중해 주었다.

어느 날 현관을 지나가던 그는, 제르베즈가 두 신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정말 야만인 같은 사람이라니까!"

'좋아, 그럼 내가 야만인이라 이거지.'

그렇게 생각한 그는 이 사람들의 기묘한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기를 그만두었다. 대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우연이나 제르베즈의 방심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르베즈는 금고 열쇠를 잠시도 몸에서 떼어 놓지 않았고, 설령 열쇠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미리 자물쇠의 글자판을 뒤섞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갔다. 일부 신문들이 앵베르 부부를 향해 거세게 공세를 퍼부은 것이다. 그들은 사기 혐의로 몰렸다.

아르센 뤼팽은 이 사건의 격랑과 그 가정의 동요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면 모든 것을 잃으리란 것을 직감했다.

그는 평소처럼 저녁 여섯 시쯤 나가는 대신, 닷새 동안 연이어 방에 틀어박혔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드러누워 루도비크의 서재를 감시하고 있었다.

닷새 밤 내내 기다리던 호기는 오지 않았고, 그는 자정 무렵 안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문 열쇠를 그는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섯째 날,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앵베르 부부가 적들의 악의적인 비방에 맞서, 금고를 열어 내용물의 목록을 작성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이다.’ 뤼팽은 생각했다.

과연 저녁 식사 후, 루도비크는 서재에 자리를 잡았다. 제르베즈도 그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금고의 장부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 흘렀다. 또 한 시간이 지나갔다.

그는 하인들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2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정이 되었다.

앵베르 부부는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가자.” 뤼팽이 속삭였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창문은 안마당을 향해 나 있었고, 달도 별도 없는 밤이라 바깥은 캄캄했다.

그는 옷장에서 매듭이 달린 밧줄을 꺼내 발코니 난간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난간을 넘어, 빗물 홈통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가 자기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창문에 이르렀다. 그것은 서재의 창문이었고, 두꺼운 솜 커튼이 방 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발코니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은 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며 동정을 살폈다.

고요한 정적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두 짝의 창문을 살짝 밀어 보았다.

누군가 확인해 두지 않았다면 창문은 힘을 주는 대로 열릴 터였다. 오후 내내 그가 크레모네 걸쇠를 돌려서 더 이상 걸쇠받이에 걸리지 않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창문은 스르르 열렸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더 넓게 벌렸다. 머리를 슬쩍 들이밀 수 있을 만큼 틈이 생기자, 그는 멈칫했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두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사이로 그는 제르베즈와 루도비크가 금고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드문드문 낮은 목소리로만 말을 나누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르센은 그들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틈도 없이 한 명씩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동작을 계산했다. 그리고 막 덤벼들려던 찰나, 제르베즈가 말했다.

"방이 갑자기 많이 식었네. 나 이제 자러 갈게. 당신은?"

"난 다 끝내고 싶어."

"끝낸다고? 밤새 걸릴 텐데."

"아니, 길어야 한 시간이면 돼."

그녀는 물러갔다. 스무 분, 서른 분이 흘렀다. 아르센은 창문을 조금 더 밀었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그는 다시 밀었다. 루도비크가 몸을 돌리더니, 바람에 부풀어 오른 커튼을 보고는 창문을 닫으려 일어섰다…

비명 한 번 없었다. 저항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르센은 정확한 동작 몇 번으로, 조금도 다치게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그를 기절시켰다. 그는 커튼으로 상대의 머리를 감싸 단단히 묶었는데, 루도비크는 공격자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재빨리 금고로 다가가 서류철 두 개를 집어 팔 밑에 끼고, 서재를 나와 계단을 내려가 안뜰을 가로질러 뒷문을 열었다. 거리에는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우선 이것부터 받아. 그리고 날 따라와." 그가 마부에게 말했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두 번 오가며 그들은 금고를 비웠다. 그런 다음 아르센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밧줄을 거두고, 자신이 다녀간 흔적을 모두 지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몇 시간 뒤, 아르센 뤼팽은 동료의 도움을 받아 서류철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대로, 앵베르 가문의 재산이 세간에 알려진 만큼 대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수백만은 수백 개는커녕 수십 개 단위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래도 총액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액수였고, 모두 철도 채권, 파리시 채권, 국채, 수에즈 주식, 북부 광산 주식 등 아주 우량한 유가증권이었다.

그는 만족스럽다고 했다.

"물론이지. 나중에 이걸 현금화할 때가 오면 손실이 꽤 클 거야. 지급정지에 부딪칠 테고, 헐값에 처분해야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닐 테지. 하지만 상관없어. 이 첫 밑천이면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마음속에 품어 온 몇 가지 꿈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그건 태워버려도 돼, 친구. 그 많은 서류들은 금고 안에서나 그럴듯해 보였지, 우리한테는 쓸모없어. 증권들은 조용히 벽장에 넣어두고,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이튿날 아르센은 앵베르 저택으로 다시 돌아가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문을 읽고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루도비크와 제르베즈가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금고 개봉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사법관들은 그 안에서 아르센 뤼팽이 남겨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건의 전모이며, 그중 일부에 대해 아르센 뤼팽의 개입이 내놓는 설명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자신에게서 들었다. 그가 어느 날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 하던 때였다.

그날 그는 내 서재 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평소 보지 못하던 작은 열기가 감돌고 있었다.

"결국, 그게 당신 최고의 걸작이지요?"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사건에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해설을 듣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의문점이 많지요! 왜 도망쳤을까요? 제가 본의 아니게 가져다준 도움을 왜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1억 프랑이 금고에 있었는데, 도둑맞아 사라졌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을 텐데요."

"그들은 정신을 잃었던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실이라뇨?…"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머뭇거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분명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을 입에 올리기 꺼리는 눈치였다. 나는 호기심이 일었다. 이런 사람에게 망설임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사안이 어지간히 중대한 게 틀림없었다.

나는 무턱대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그들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까?"

"그 두 불쌍한 이들을 보고는 조금도 동정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가 흠칫 놀라며 내뱉었다.

그의 발끈하는 반응에 나는 놀랐다. 내가 정확히 짚은 걸까? 나는 거듭 캐물었다.

"당연하죠. 당신만 없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위험에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주머니를 두둑이 채워 떠날 수 있었을 테고요."

"후회라니, 그게 바로 당신이 내게 덮어씌우려는 거지, 그렇지?"

"그럼요!"

그가 내 책상을 세게 두드렸다.

"그래서 당신 말로는, 내가 후회를 해야 한다는 거요?"

"후회든 아쉬움이든, 뭐든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무슨 감정을…"

"당신이 재산을 털어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어떤 재산?"

"음… 그 두세 뭉치의 증권 말이에요."

"이 두세 다발의 증서 말입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증서 뭉치를 훔쳤죠? 그들의 유산 중 일부를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 죄인가요?"

"하지만, 젠장, 친애하는 친구여. 그 증서들이 가짜라는 걸 당신은 미처 알지 못했소? 들었소?"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가짜, 사백만에서 오백만 프랑어치."

"가짜라고!" 그가 격분하여 외쳤다. "완전한 가짜! 채권도, 파리 시채도, 국채도 다 종이일 뿐, 아무것도 아닌 종이였소!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단 한 푼도 꺼내지 않았소!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양심을 찔리게 하라고? 하지만 양심을 찔려야 할 건 그들이지!"

"그들은 나를 평범한 바보처럼 속였소! 그들 속임수의 가장 어리석은 희생자인 나를 말야!"

그는 진정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원한과 상한 자존심이 섞인 격분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졌소! 첫 순간부터 말이오. 이 사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 그들이 내게 떠맡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바로 앙드레 브로포드의 역할이었소! 그렇소, 내 친구, 나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그건 나중에 신문을 통해, 그리고 몇몇 세부 사항을 맞춰 보고서야 깨달았소. 나는 당신을 깡패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려 목숨을 걸었던 은인, 그런 신사로 행세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나를 브로포드 집안 사람 중 하나로 둔갑시키고 있었던 것이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층에 방을 얻고 있던 그 별난 인물, 멀리서들 손가락질하며 가리키던 그 야만인이 바로 브로포드였고, 그 브로포드가 바로 저였죠! 그리고 제 덕분에, 브로포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불러일으킨 신뢰 덕분에 은행가들은 돈을 빌려주었고, 공증인들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권했습니다! 음, 초보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수련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장담하건대 그 교훈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내 팔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러니와 감탄이 교차하는 미묘한 뉘앙스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언을 내뱉었다.

"내 친구, 지금 이 순간에도 제르베스 앵베르가 내게 1,500프랑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는 익살극이었다. 그 자신도 한바탕 유쾌하게 웃어젖혔다.

"그렇소, 친구, 천오백 프랑이오! 내 월급의 첫 한 푼도 만져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녀가 내게 천오백 프랑을 빌려 갔단 말이오!

젊은 시절 모아 둔 내 전 재산을 말이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아시오? 절대 못 맞히실 거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랍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루도빅 몰래 그녀가 도와준다는 이른바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홀딱 넘어갔지 뭐요! 정말 우습지 않소? 아르센 뤼팽이 천오백 프랑을 뜯기다니, 그것도 자기가 가짜 증권 사백만 프랑어치를 훔쳤던 그 착한 부인에게 당하다니! 게다가 이 멋진 결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계략과 노력, 천재적인 술수를 짜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단 한 번, 제대로 속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거금에다, 아주 깔끔하게요."

검은 진주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호슈 거리 9번지의 관리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투덜거리며 문 여는 줄을 당겼다.

"전원 귀가한 줄 알았는데. 세 시가 넘었잖아."

그 남편도 불평조로 중얼거렸다.

"의사 호출일지도 몰라."

아니나 다를까, 한 목소리가 물었다.

"하렐 박사님… 몇 층이지?"

"세 번째 왼쪽. 하지만 박사님은 밤중에는 왕진을 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나오게 만들어야겠군."

남자는 현관으로 들어가 한 층, 두 층 올라갔고, 하렐 박사의 층계참에서는 멈추지도 않은 채 5층까지 계속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열쇠

두 개를 시험해 보았다. 하나는 자물쇠를, 다른 하나는 안전 빗장을 열었다.

"훌륭하군." 그가 중얼거렸다.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하지만 행동에 앞서 철수 경로를 확보해야 해. 생각해보자… 의사를 찾아갔다가 쫓겨나오기까지 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은 아니군… 조금만 기다려보자."

약 십 분 뒤, 그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의사를 원망하는 투로 투덜거리며 관리실 유리창을 두드렸다. 관리인이 문을 열어 주자, 그는 등 뒤로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가 재빨리 쇠조각을 걸쇠받이에 끼워 넣어, 빗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관리인들 모르게 소리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의 퇴로가 이미 확보된 셈이었다.

천천히, 그는 다섯 층의 계단을 올랐다. 현관 앞 복도에서 전등불빛을 비추며, 그는 외투와 모자를 의자 하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른 의자에 앉아 두꺼운 펠트 슬리퍼로 부츠를 감쌌다.

"후우! 다 됐다. 얼마나 수월한지 모른다. 왜 모두들 이 편한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걸까? 조금만 손재주와 머리를 쓰면, 이보다 더 매혹적인 일은 없다. 온종일 쉴 수 있는 직업이지. 가정의 가장에게 딱 맞는 일이다. 너무 편해서 오히려 지루해질 정도다."

그는 아파트의 상세한 평면도를 펼쳤다.

"먼저 방향부터 잡자. 여기, 내가 서 있는 현관의 사각형이 보인다. 거리 쪽으로는 거실, 작은 응접실, 식당이 있군. 거기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백작부인은 취향이 형편없다고들 하니까… 값나가는 골동품 하나 없을 거야! 그러니 곧장 목표로 가자… 아! 여기 복도의 윤곽이 있군. 침실들로 이어지는 복도야. 3미터쯤 가면 드레스 벽장 문이 나올 텐데, 그게 백작부인의 침실과 통하지."

그는 도면을 접어 넣고 등불을 끈 뒤, 걸음 수를 세며 복도로 들어섰다.

"1미터… 2미터… 3미터… 여기가 문이군. 신이시여, 모든 게 이렇게 척척 들어맞다니! 간단한 빗장, 작은 빗장 하나가 침실과 나를 갈라놓고 있을 뿐이야. 게다가 나는 그 빗장이 바닥에서 1미터 43센티미터 높이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 그러니 그 주위를 살짝 도려내기만 하면 이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꺼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그를 멈칫하게 했다.

"혹시 이 빗장이 걸려 있지 않다면 어쩌지? 그래도 한번 해 보자… 밑져야 본전이니!"

그가 자물쇠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내 친구 뤼팽, 정말 운이 따르는군. 이제 또 무엇을 원하지? 네가 갈 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잖아. 백작부인이 검은 진주를 숨긴 곳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 검은 진주가 네 것이 되려면, 침묵보다 더 조용하게, 밤보다 더 보이지 않게 행동하기만 하면 돼."

아르센 뤼팽은 두 번째 문을 열기까지 반 시간쯤 걸렸다. 유리창이 달린 그 문은 침실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신중하게 움직였다. 백작부인이 잠들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의심스러운 삐걱거림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의 도면에 따르면, 그는 긴 의자의 윤곽만 따라가면 되었다. 그 길은 안락의자로 이어졌고, 다시 침대 옆의 작은 탁자로 통했다. 탁자 위에는 편지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검은 진주는 그저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카펫 위에 누워 긴 의자의 윤곽을 따라가다, 그 끝부분에서 멈춰 섰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지나친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신경성 불안감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가 그토록 동요하는 이유를 의아해했다. 그는 그보다 더 엄숙한 순간들도 아무런 동요 없이 지나쳐왔기 때문이다.

그를 위협하는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왜 심장은 미친 듯이 종소리를 울리듯 고동칠까?

잠들어 있는 그 여인이 그를 압도한 걸까? 그의 삶과 너무도 가깝게 느껴지는 그녀의 생명이 그를 흔든 걸까?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숨소리의 리듬을 가려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친근한 존재가 곁에 있는 듯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는 안락의자를 찾아냈다. 이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은 동작으로, 뻗은 팔로 어둠을 더듬으며 탁자 쪽으로 기어갔다. 그의 오른손이 탁자 다리 하나에 닿았다.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진주를 집어 들고 나가면 되었다. 다행이었다. 그의 심장이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가슴 안에서 요란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백작부인이 깨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그는 놀라운 의지의 힘으로 그 심장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일어나려던 순간, 그의 왼손이 카펫 위의 어떤 물체에 부딪혔다. 그는 곧바로 그것이 넘어진 촛대임을 알아챘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물체가 손에 닿았다. 여행용 작은 시계였다. 가죽 케이스로 덮인 그런 작은 시계였다.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촛대는, 저 시계는 왜 평소와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인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때, 그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무언가를 만졌기 때문이다. 오직 기이하고 말 못할 무엇인가를. 아니, 아니었다. 공포가 그의 머리를 어

지럽게 할 뿐이었다. 그는 스무 초, 서른 초 동안 그 자리에 굳어 서서 떨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그 접촉의 감촉을 잊지 못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팔을 뻗었다. 손끝이 다시 그 기이하고 말 못 할 무언가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더듬었다.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만져야만 했다. 손이 그 실체를 확인해야 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었다.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차가웠다. 거의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든, 아르센 뤼팽 같은 남자는 그 실상을 파악하는 순간 이미 현실을 지배한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의 스프링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의 앞에는 피투성이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목과 어깨에는 끔찍한 상처가 난무했다. 그는 몸을 굽혀 여자를 살폈다.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죽었다, 죽었어."

그가 경악한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리고 그는 고정된 눈동자, 일그러진 입술, 창백해진 피부, 그리고 카펫 위에 흘러내려 이제 두껍고 검은 피로 굳어 버린 그 모든 피를 바라보았다.

일어서서 전등 스위치를 돌렸다. 방 안이 밝아지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침대는 온통 뒤섞여 있었고, 이불과 시트는 찢겨져 나간 상태였다. 바닥에는 촛대가, 그다음은 시계가 놓여 있었다. 시침과 분침은 열한 시 이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멀리에는 넘어진 의자가 있었고, 여기저기 피가 튀어 있었으며, 커다란 피 웅덩이도 여러 군데 있었다.

"그리고 검은 진주는?"

그가 속삭였다.

서신용 종이 상자는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보석함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보석함은 비어 있었다.

"젠장."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운이 좋다고 너무 일찍 자랑했군, 내 친구 아르센 뤼팽. 백작부인은 살해당했고, 검은 진주는 사라졌다.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은데. 서둘러 빠져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자고? 그래, 다른 사람이면 도망쳤겠지. 하지만 아르센 뤼팽은 어때?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어쨌든 네 양심은 평온하잖아… 네가 경찰서장이 되어 조사를 진행한다고

상상해 봐. 음, 하지만 그러려면 머리가 더 맑아야 해. 그런데 내 머리는 지금 엉망이야!"

그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뜨거운 이마를 짚고 주먹을 꽉 쥐었다.

호슈 대로 사건은 최근 우리들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던 사건 중 하나였다. 만약 아르센 뤼팽의 개입이 이 사안에 특별한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관여를 의심하는 이는 드물다. 아무튼 정확한, 그리고 흥미진진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파리의 부아에서 그녀를 만난 적 없는 이가 있을까. 레옹틴 잘티. 전직 가수로, 안디요 백작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성. 스무 해 전, 파리를 눈부시게 만들던 잘티. 안디요 백작 부인 잘티.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치장한 그녀의 장신구는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쳤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여러 은행의 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금광이 실려 있다고들 했다. 최고의 보석상들은 왕과 여왕을 위해 일하던 시절처럼 잘티를 위해 일했다.

그 모든 부가 한순간에 사라진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은행과 금광, 그 심연은 모든 것을 삼켜 버렸다. 경매로 흩어진 그 놀라운 수집품 중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 유명한 검은 진주뿐이었다.

만약 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천문학적인 재산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값 매길 수 없는 보석을 팔아 부를 회복하기보다는, 가난을 감수하며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다. 동행녀와 요리사, 하인 한 명만 데리고 말이다.

그런 선택에는 그녀가 거리낌 없이 밝힌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검은 진주는 황제가 선물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가장 가난한 삶으로 전락했지만, 그녀는 한때의 부귀를 안겨준 그 보물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을 다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목에 걸고 다녔다. 밤이 되면, 오직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다.

신문들이 이런 사실들을 연이어 보도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자극되었다. 기묘해 보이지만, 수수께끼의 열쇠를 가진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일이었다. 바로 용의자 체포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긴장을 오래도록 유지시켰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신문들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빅토르 다네그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디요 백작부인의 하인인 그다. 그를 잡은 증거는 너무도 분명했다.

치안국장 뒤두아 씨가 다네그르의 다락방에서 침대 깔판과 매트리스 사이를 뒤져 찾은 제복 조끼, 그 루스트린 소매에는 피 자국이 선명

하게 남아 있었다. 게다가 그 조끼에는 천으로 덮인 단추가 하나 빠져 있었다.

그 단추는 수색이 시작된 직후, 피해자의 침대 밑에서 곧장 주워졌다.

다네그르는 저녁 식사 후, 자신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옷장 방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리문을 통해 백작부인이 검은 진주를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이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또 다른 한 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아침 7시, 다네그르가 쿠르셀 대로에 있는 담배 가게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비원과 담배 가게 여주인이 그 증언을 했다.

한편, 복도 끝방에서 자던 백작부인의 요리사와 말동무는 아침 8시에 일어났을 때, 현관문과 부엌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두 사람은 스무 년째 백작부인을 모셔왔으니,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도대체 다네그르가 어떻게 아파트를 빠져나갔을까? 다른 열쇠를 만들어 둔 걸까? 수사가 그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

수사는 오히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빅토르 다네그르가 위험한 재범자이자 알코올 중독자, 방탕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칼부림쯤은 겁내지 않는 사나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조사할수록 점점 더 어둠에 싸이고 설명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보였다.

먼저, 시클레브 양이 증언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사촌이자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그녀는 백작 부인이 사망 한 달 전, 자신의 편지에서 검은 진주를 어떻게 숨겨두었는지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진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누가 훔쳐갔을까?

그들(관리인들)은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 남자가 하렐 박사 집으로 올라갔다고 증언했다. 의사를 불러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도 벨을 누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공범인가?

이 공범설은 언론과 대중이 받아들인 내용이었다. 노련한 수석 형사 가니마르도 이를 옹호했다. 그에게 그 주장은 결코 터무니없지 않았다.

“이 일에는 뤼팽이 숨어 있다.”

가니마르가 판사에게 말했다.

"하! 또 뤼팽이군. 당신은 어디에나 뤼팽을 보네."

판사의 반박이었다.

"제가 어디에나 뤼팽을 보는 이유는, 그가 정말로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뭔가 의아한 점이 생기면 매번 그 남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냐고 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대로 범행은 밤 11시 20분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이 목격한 야간 침입은 새벽 3시에나 있었죠."

사법부는 종종 자신의 확신에 이끌려, 사건을 처음 내린 설명에 억지로 끼워 맞추곤 한다. 전과가 있고 알코올 중독에 방탕한 생활을 해온 빅토르 다네그르의 불명예스러운 이력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 찾아낸 두세 가지 단서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 무엇도 판사를 흔들지 못했다. 그는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공판은 어수선하고 지지부진했다. 재판장은 열의 없이 진행을 이끌었다. 검찰 측의 공박도 흐지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네그르의 변호사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었다. 그는 기소의 허점과 불가능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물리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그 열쇠를 만들었을까? 다네그르가 떠난 뒤 방 문을 이중 잠금할 수 없었던, 없어서는 안 될 그 열쇠 말이다. 그 열쇠를 본 사람은 누구였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살인자의 칼은 또 어땠는가. 그 칼을 본 사람은 누구였고, 그 칼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다. "내 의뢰인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절도와 살인의 범인이 새벽 세 시경 집 안으로 침입한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계가 열한 시를 가리켰다고요? 그게 어떻다는 거죠? 시계 바늘이야 원하는 시각에 맞춰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빅토르 다네그르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는 금요일 해 질 무렵 형무소를 나섰다. 여섯 달의 감옥 생활로 그는 야위고 지쳐 있었다. 조사 과정, 고립된 시간, 공판, 배심원들의 심의—이 모든 것이 그를 병적인 공포에 빠뜨렸다. 밤이 되면 끔찍한 악몽과 교수대의 환상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열과 공포로 떨었다.

아나톨 뒤푸르라는 가명으로 그는 몽마르트르 언덕배기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렸고,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잡일을 하며 그날그날 살아갔다.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다. 세 명의 다른 고용주에게 차례로 취직했지만, 매번 정체를 들킨 즉시 해고당했다.

자주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느꼈다. 혹은 그렇게 믿었다. 경찰들이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어떤 함정에든 빠뜨리려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는 미리부터 제 목덜미를 낚아챌 그 손의 거친 움켜쥠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깨끗함이 의심스러운 검은 레딩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수프와 채소 요리, 그리고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수프를 다 먹은 그는 눈을 돌려 다네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묵묵히.

다네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자는 분명 자신을 몇 주째 미행해 온 자들 중 하나였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다네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어갔다.

남자는 포도주를 한 잔 따랐다. 그리고 다네그의 잔도 채워 주었다.

"건배할까요, 동지?"

빅토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네… 건강을 위해, 동지."

"당신의 건강을 위해, 빅토르 다네그."

빅토르가 흠칫 놀랐다.

"나라고?… 나라고?… 아니야… 나는 맹세하오…"

"무엇을 맹세합니까? 당신이 당신이 아니라고? 그 백작 부인의 하인이 아니라고?"

"어떤 하인이라는 말입니까? 제 이름은 뒤푸입니다. 사장님께 물어보십시오."

"뒤푸, 아나톨. 사장 앞에서는 그렇겠죠. 하지만 법 앞에서는 다네그, 빅토르 다네그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새로 온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빅토르가 읽어보니 '그리모당, 전 수사국 형사. 기밀 정보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당신은 경찰이요?"

"이제는 아니지만, 그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 계속하고 있소. 더…… 수익성 좋은 방식으로 말이오. 가끔 노다지 같은 사건을 찾아내기도 하니까. 당신 사건 같은 거요."

"제 사건이라고요?"

"네, 당신 사건이오. 아주 특별한 사건이오. 다만 당신이 조금만 협조해 주신다면 말이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래야 할 거요. 당신은 지금 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소."

빅토르 다네그레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세요."

"좋소. 이제 끝을 냅시다. 간단히 말하지. 싱클레브 님이 나를 보냈소."

"싱클레브요?"

"앙디요 백작부인의 상속녀입니다."

"그래서?"

"싱클레브 님이 저를 보내어 검은 진주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검은 진주?"

"당신이 훔쳐간 그 진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훔쳤죠."

"제가 훔쳤다면, 제가 살인자가 되겠죠."

"당신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다네그는 억지로 웃으려 애썼다.

"다행이군요, 친애하는 선생님. 중죄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배심원단 열두 분 모두 저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열두 명의 선량한 분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으니……"

전직 형사는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말은 줄이고,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범행 삼 주 전, 다네그, 당신은 요리사에게서 뒷문 열쇠를 훔쳤지. 그리고 오베르캄프 거리 244번지의 자물쇠공 오타르에게 똑같은 열쇠를 하나 더 만들게 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무도 그 열쇠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리모당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열쇠를 주문하던 바로 그날, 레퓌블리크 잡화점에서 사 온 칼로 백작부인을 죽였소. 칼날은 삼각형 모양이고, 홈이 파여 있지."

"장난이에요.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칼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있소."

빅토르 다네그는 몸을 뒤로 빼는 동작을 취했다. 전직 형사는 계속했다.

"위쪽에 녹 자국이 있군요. 그 출처를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요? 당신에게는 열쇠와 칼이 있군요. 그게 내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죠?"

"먼저 자물쇠 공방 주인이 있고, 다음으로 그 칼을 당신에게 판 점원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기억을 되살려 줬죠. 당신과 마주 서면 그들은 당신을 반드시 알아볼 겁니다."

그는 차갑고도 단호하게,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했다. 다네그르는 공포에 질려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판사도, 재판장도, 검사도 그를 이토록 바싹 몰아붙이지 못했고, 그 자신조차 더는 뚜렷이 가려내지 못하던 일들을 이렇게 명확히 꿰뚫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무관심한 체하려 했다.

"그게 당신의 증거 전부라면?"

"내게는 이 증거가 남아 있소. 범행 후, 당신은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갔지. 하지만 옷 보관실 한가운데서 공포에 질려, 균형을 잡으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거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빅토르가 더듬거렸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는 모릅니다. 검찰청의 그분들 중 누구도 촛불을 켜서 벽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하얀 회벽에 아주 옅은 붉은 자국이 보일 겁니다. 그래도 꽤 선명해서, 피로 흠뻑 젖은 채 벽에 댄 당신 엄지손가락 앞면의 지문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은 되지요. 인체측량학에서 그것이 주요한 신원 확인 수단 중 하나라는 걸 당신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빅토르 다네그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미친 사람의 눈빛으로, 자신의 범죄를 마치 보이지 않는 목격자라도 되는 양 이야기하는 이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패배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수개월 동안 그는 온 세상과 싸워 왔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다.

"만약 제가 진주를 돌려드린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요! 수천, 수십만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내가 내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니요?"

"생명을 드리죠."

비참한 남자는 전율했다. 그리모당은 거의 다정한 어조로 덧붙였다.

"자, 다네그레. 그 진주는 당신에게 아무 가치도 없어. 팔 수도 없고. 왜 굳이 간직하고 있겠소?"

"장물을 사 주는 자들도 있고… 언젠가는, 값이야 어찌 되든…"

"언젠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거야."

"왜?"

"왜냐고? 사법당국이 다시 네게 손을 뻗을 테니까. 이번엔 내가 증거를 건넬 거야. 칼, 열쇠, 그리고 엄지손가락 자국. 넌 끝장이야, 친구."

빅토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끝장났음을 느꼈다. 동시에 거대한 피로가 밀려왔고, 쉬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그를 삼켰다.

그가 중얼거렸다.

"언제까지요?"

"오늘 밤, 한 시간 안에."

"그러지 못하면?"

"그럼 이 편지를 우체국에 넣겠네. 싱클레브 님이 너를 검찰에 고발하는 편지 말이야."

다네그르는 와인을 두 잔 따라 연거푸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서 내고 가자. 이 저주받은 일엔 이제 진절머리가 나."

밤이 되었다. 두 사람은 레피크 거리를 걸어 내려가, 에투알 광장 쪽을 향해 외곽 대로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빅토르는 몹시 지친 채 등을 구부리고 걸었다.

몽소 공원에 이르러 빅토르가 말했다.

"집 쪽이야……"

"당연하지. 넌 체포되기 전에 담배 가게에 가려고만 그 집을 나왔잖아."

"여기야." 다네그르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다.

그들은 정원의 철책을 따라 걷다가, 모퉁이에 담배 가게가 있는 거리를 건넜다. 다네그르는 몇 발자국 더 가서 멈춰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동행자가 물었다.

"저기야."

"저기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 저기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있다고! 이봐, 다네그, 설마 날 갖고 노는 건 아니겠지…"

"저기가 맞다고 내가 말했잖아."

"포석 두 개 사이에."

"어디?"

"찾아봐."

"어디냐고?" 그리모당이 되물었다.

빅토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 알겠어. 날 애태우려는 거지, 친구."

"아니… 하지만… 굶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망설이는 거야? 자, 내가 너그럽게 봐주지. 얼마가 필요해?"

"미국행 삼등 선실 표를 살 만큼."

"약속하지."

"그리고 초기 경비로 백 프랑짜리 지폐도 한 장."

"두 장 주지. 말해 봐."

"하수구 오른쪽 포석을 세어 봐. 열두 번째와 열세 번째 사이야."

"길가 도랑 안에?"

"그래, 보도 가장자리 아래쪽."

그리모당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갔다. 하지만 괜찮아!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어?……

그는 주머니칼을 꺼내 열두 번째와 열세 번째 포장석 사이에 꽂아 넣었다.

"만약 거기에 없으면 어쩌지?"

"제가 몸을 숙여 그걸 박아 넣는 걸 아무도 못 봤다면, 아직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정말 거기 있을까? 개울의 진흙탕에 던져진 검은 진주, 누구든 먼저 줍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태로! 검은 진주…… 그것은 곧 거대한 부였다.

"얼마나 깊이 묻었지?"

"대략 십 센티미터쯤요."

그는 젖은 모래를 파헤쳤다. 주머니칼 끝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넓혔다.

그리고 검은 진주를 발견했다.

"자, 네가 받을 이백 프랑이야. 미국으로 가는 배표는 나중에 보내주마."

다음 날, 『프랑스의 메아리』 지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는 전 세계 신문에 다시 실렸다.

어제부터 그 유명한 검은 진주는 아르센 뤼팽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안디요 백작부인을 죽인 살인범에게서 이 보석을 다시 빼앗아 온 것이다. 곧 이 보석의 정밀 복제품이 런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캘커타,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에 전시될 예정이다.

뤼팽은 자신의 연락망들이 어떤 제안을 해올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니 죄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상을 받는 법이오." 사건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은 뤼팽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렇죠. 전 형사 그리모단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으로부터 선택받아 범죄자가 자신의 죄행으로 얻은 이득을 빼앗아오도록 지시받았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건 중 하나죠.

백작부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제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보낸 사십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십 분 동안, 그야말로 풀 수 없을 만큼 얽힌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범인이 백작부인의 하인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주를 손에 넣으려면 그 하인이 체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끼 단추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반박할 수 없는 유죄 증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펫 위에 버려진 칼을 주워 들고, 자물쇠에 꽂힌 채 방치된 열쇠를 가져갔으며, 문을 두 번 돌려 잠그고, 옷 보관실 석고 벽에 남은 손가락 자국을 지웠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그런 번뜩임 중 하나였습니다……

"천재적인 거죠." 내가 끼어들었다.

"천재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나 떠오를 만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 한순간에 문제의 두 갈래 답, 즉 '체포'와 '무죄 방면'을 알아맞힌 거죠. 저는 거대한 사법 기구를 이용해 그 남자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얼을 빼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풀려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제가 쳐 둔 다소 엉성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죠."

"다소라뇨? 아주 엉성했다고 하셔야죠. 그에겐 아무런 위험도 없었으니까요."

"오! 전혀 없었죠. 무죄 판결은 한 번 나면 번복할 수 없으니까요."

"불쌍한 놈이로군요."

"불쌍한 놈이라뇨…… 빅토르 다네그르 말입니다! 그가 살인자라는 걸 잊으셨나요? 검은 진주가 그자에게 남아 있었다면 그야말로 더없이 부도덕한 일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네그르는 살아 있어요, 멀쩡히 살아 있다고요!"

"그리고 검은 진주는 당신 것이군요."

그는 지갑의 숨겨진 주머니에서 진주를 꺼냈다. 손끝으로 살피고, 감격한 눈빛으로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이 보물을 차지하게 될 자는 어떤 보야르일까, 어떤 어리석고 허영심 많은 라자일까? 안디요 백작부인 레옹틴 잘티의 새하얀 어깨를 장식했던 이 자그마한 아름다움과 사치의 조각은 과연 어느 미국 억만장자에게 돌아갈까……?"

헐록 숌즈, 한발 늦다

"벨몽 씨, 당신 얼굴은 아르센 뤼팽과 정말 닮았어요."

"그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누구나 그렇듯 사진으로 알고 있죠. 사진마다 서로 다르긴 한데, 하나같이 똑같은 인상을 남겨요…… 바로 당신의 그 얼굴 말입니다."

오라스 벨몽은 다소 언짢은 기색이었다.

"그렇죠, 친애하는 드반 씨?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어찌나 닮았는지," 드반이 거듭 말했다. "만약 내 사촌 데스테반이 당신을 추천하지 않았고, 또 당신이 내가 흠모하는 저 아름다운 해경화를 그린 유명 화가가 아니었다면, 디에프에 와 있는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방 안은 폭소로 가득 찼다.

티베르메닐 성의 넓은 식당에는 벨몽 외에도 마을 신부 젤리스 신부와, 인근에서 훈련 중인 부대 소속 장교 열두 명가량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행가 조르주 드반과 그의 어머니의 초대에 응해 모인 이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외쳤다.

"잠깐, 아르센 뤼팽이 그 유명한 파리발 르아브르행 급행열차 사건 이후 이 해안가에 출몰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정확히 석 달 전 일이야. 그리고 그다음 주에 카지노에서 우리의 훌륭한 벨몽 씨와 인사를 나눴지. 그 후로 그가 고맙게도 가끔 나를 찾아와 주었고 말이야. 조만간 그가 좀 더 진지한 가택 방문을 해 줄 텐데, 그 유쾌한 서막인 셈이지…… 아니, 어느 날 밤의 방문이라고 해야 하나!"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그들은 옛 경비병실로 들어섰다. 기욤 탑의 아래층 전체를 차지하는, 천장이 아주 높은 거대한 방이었다. 조르주 드반이 수 세기 동안 티베르메닐 가문 영주들이 모아 온 비할 데 없는 보물들을 이곳에 모아 둔 터였다.

방 안에는 궤와 찬장, 장작 받침쇠와 가지촛대가 놓여 장식하고 있었다. 돌벽에는 화려한 태피스트리들이 걸려 있었다. 네 개의 창문은 깊숙이 파여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끝은 납 테두리를 두른 스테인드글라스 첨두아치 창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왼쪽 창문과 문 사이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웅장한 책장이 서 있었다. 책장 정면에는 금빛 글자로 '티베르메닐'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문의 자랑스러운 표어가 새겨져 있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시거에 불을 붙이던 순간, 드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발 서둘러요, 벨몽씨.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니까요."

화가인 벨몽이 이번엔 농담조로 받아쳤다.

"왜요?"

드반이 답하려던 찰나, 어머니가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식사 후의 고조된 분위기, 그리고 손님들을 흥미롭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그를 이겼다.

"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더 이상 누설될 염려는 없으니까."

그는 큰 소식을 알리는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선언했다. 모두들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그를 둘러쌌다.

"내일 오후 네 시,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란 없는 영국 최고의 형사 허록 숌즈가 내 손님으로 올 거야.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놀라운 수수께끼 해독가, 마치 소설가의 상상이 통째로 빚어낸 듯한 경이로운 인물, 그 허록 숌즈가 내 손님으로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티베르메닐에 허록 숌즈라니.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일인가? 아르센 뤼팽이 정말로 이 근방에 있단 말인가?

"아르센 뤼팽과 그 일당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카오른 남작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몽티니, 그뤼셰, 크라스빌의 절도 사건을 우리의 국민적 도둑 말고 누구의 소행이라 하겠나? 오늘은 내 차례인 거지."

"그럼 당신도 카오른 남작처럼 미리 경고를 받으셨나요?"

"같은 수법이 두 번 통하지는 않지."

"그럼요?"

"그럼?…… 그럼 이렇다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책장 한 칸, 거대한 2절판 책 두 권 사이에 비어 있는 작은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에 책이 한 권 있었소. 16세기 책으로, 제목은 『티베르메닐 연대기』였지. 롤롱 공작이 봉건 시대 요새 터 위에 성을 세운 이후의 성 역사를 담은 책이었소. 그 책에는 판화 세 점이 실려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지 전체를 부감으로 그린 그림, 두 번째는 건물 평면도였소. 그리고 세 번째—이 점에 주목해 주시오—는 지하 통로의 도면이었소. 그 통로는 한쪽 출구가 성벽 바깥쪽 첫 번째 줄로 통하고, 다른 쪽 출구는 바로 여기, 그렇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으로 이어지지. 그런데 그 책이 지난달부터 사라졌소."

"젠장," 벨몽이 말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허록 숌즈가 나설 이유로는 부족하지."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있었기에 방금 말씀드린 일이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국립도서관에 이 『연대기』의 두 번째 사본이 있었는데, 두 사본은 지하 통로에 관한 몇몇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테면 단면도와 축척이 들어가 있었고, 인쇄된 것이 아니라 잉크로 적혀 다소 지워진 여러 주석이 달려 있었죠. 저는 이런 특이점들을 알고 있었고, 두 지도를 꼼꼼히 대조해야만 최종 도면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본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국립도서관의 사본을 한 독자가 대출해 갔고, 어떤 경위로 도난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번엔 일이 심각해지는군요."

"맞아요," 드반이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경찰도 움직였죠. 두 차례나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르센 뤼팽이 관련된 사건은 늘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저는 헐록 숌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숌즈는 아르센 뤼팽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답해왔죠."

"아르센 뤼팽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벨몽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 말처럼 우리의 국민적 도둑이 티베르메닐에는 손댈 생각이 없다면, 헐록 숌즈는 그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매우 흥미로워할 만한 것, 바로 지하 통로의 발견이죠."

"잠깐, 방금 말씀하시길 한쪽 출입구는 시골로 통하고, 다른 한쪽은 이 살롱 바로 안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죠?"

"어디요? 이 살롱의 어느 부분에서요? 지도에서 터널을 나타내는 선은 한쪽 끝이 'T. G.'라는 두 대문자와 작은 원 옆에 붙어 있네요. 아마도 기욤 탑(Tour Guillaume)을 뜻하겠죠. 하지만 탑은 원형이고, 그 원형 중 어디에서 선이 시작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드반은 두 번째 시가를 피우며 베네딕틴 리큐르를 한 잔 따랐다. 사람들이 질문으로 그를 에워쌌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비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걸 모르죠. 전설에 따르면, 막강한 영주들이 대대로 임종의 자리에서 이 비밀을 자손에게 물려주었고, 그것이 이 가문 이름의 마지막 사람인 조프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7일(1794년 7월 25일), 열아홉 살의 나이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죠."

"그런데 지난 백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저도 국민공회 의원 레리부르의 방계 후손에게서 이 성을 사들인 뒤, 직접 발굴 작업을 시켰죠. 그런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탑은 물에 둘러싸여 있고 성과는 단 한 지점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하 통로는 반드시 옛 해자 밑을 지나야 하죠. 게다가 국립도서관의 도면을 보면 마흔여덟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층계가 이어져 있어, 깊이가 10미터 이상은 될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면에 붙은 축척은 그 거리를 200미터로 명시하고 있죠. 사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 이 바닥과 천장과 벽 사이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들을 부수기엔 망설여지는군요."

"그런데 단서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젤리스 신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드반 씨, 두 가지 인용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 하하!" 드반이 웃으며 외쳤다. "신부님은 고문서 탐구자이시자, 회고록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지요. 티베르메니르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정을 쏟으시니까요. 하지만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명은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꼭 들어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의 독서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왕 두 명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왕 두 명이라니!"

"앙리 4세와 루이 16세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 정말 간단합니다." 드반이 말을 이었다.

"아르크 전투 이틀 전, 앙리 4세가 이 성에서 저녁을 먹고 묵었다. 밤 11시, 노르망디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로 꼽힌 루이즈 드 탱카빌이 지하도를 통해 왕의 곁으로 인도되었다. 이 일을 도와준 사람은 에드갈 공작이었다. 그는 이 기회에 가문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비밀을 앙리 4세는 나중에 자신의 대신인 술리에게 맡겼다. 술리는 자신의 저서 『국가 경제론』에서 이 일화를 기록하며, 딱 한 줄의 해설을 덧붙였다. 그 문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끼가 떨리는 공중을 날아도, 날개는 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이를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벨몽이 비웃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다지 명쾌하지는 않군."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술리가 거기에 수수께끼의 답을 적어 넣되, 자신이 회고록을 받아 적게 한 서기들에게는 그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 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기발한 가설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돌아간다는 도끼는 무엇이고, 날아오른다는 새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닿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죠!"

벨몽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선량한 루이 16세도 어떤 부인의 방문을 받으려고 지하 통로를 열게 했던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루이 16세가 1784년 티베르메닐에 머물렀다는 사실, 그리고 가맹의 밀고로 루브르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철궤 안에 그가 직접 쓴 '티베르메닐: 2-6-12'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라스 벨몽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승리다! 어둠이 점점 걷히고 있어. 6의 두 배는 12라 이거지."

"마음껏 웃으십시오, 선생." 신부가 말했다. "그래도 이 두 인용문에는 해답이 담겨 있고, 언젠가는 그것을 제대로 풀어낼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우선은 헐록 숌즈겠군요." 드반이 말했다. "아르센 뤼팽이 그를 앞지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벨몽 씨?"

벨몽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 생각엔, 당신의 책과 도서관의 책이 제공한 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 당신께서 친절하게도 그걸 제게 알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끼가 빙글 돌았고, 새는 날아갔으며, 6의 두 배는 12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출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1초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헐록 숌즈가 도착하기 전, 즉 오늘 밤 안에 반드시 당신의 성을 털어야 하니까요."

"사실 시간이 빠듯하군요. 제가 모셔다드릴까요?"

"디에프까지요?"

"네, 디에프까지요. 가는 김에 자정 열차로 도착하는 당드롤 부부와 그들의 친구인 젊은 아가씨도 제가 직접 데려올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반은 장교들을 향해 덧붙였다.

"그리고 내일 점심에 다들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지요, 신사 여러분. 꼭 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대가 정확히 11시에 이 성을 포위하고 습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초대는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은 헤어졌다. 잠시 후, 금색 별 마크의 20-30형 에투알 도르 자동차가 드반과 벨몽을 싣고 디에프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드반은 화가 벨몽을 카지노 앞에 내려주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자정이 되자 그의 친구들이 기차에서 내렸다. 자정 반, 자동차는 티베르메닐의 대문을 통과했다. 한 시, 살롱에서 가벼운 야식을 든 뒤 각자 방으로 물러났다. 서서히 모든 불이 꺼졌다. 밤의 깊은 정적이 성을 감쌌다.

하지만 달이 자신을 가리던 구름을 밀어내고, 두 개의 창문으로 새어 든 달빛이 살롱을 하얀 빛으로 채웠다.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달은 곧 언덕의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그림자가 짙어지자 정적도 더 깊어졌다.

이따금 가구가 삐걱대는 소리나, 오래된 성벽을 푸른 물로 적시는 연못 위 갈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쩌다 한 번씩 고요를 흔들 뿐이었다.

시계추가 끝없는 초의 묵주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다. 두 시가 울렸다.

이어 다시 초들이 성급하고도 단조롭게 밤의 무거운 평온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세 시가 울렸다.

그때였다. '탁!' 하는 소리가 났다. 기차가 지나갈 때 신호기의 원반이 열렸다 닫히며 내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살롱을 끝에서 끝까지 가로질러 꿰뚫었다. 마치 뒤로 반짝이는 자취를 남기는 화살처럼.

그 빛은 오른쪽에서 책장의 박공을 떠받치고 있는 벽기둥의 가운데 홈에서 솟아났다. 처음에는 맞은편 벽면에 선명한 원을 그리며 멈췄다가, 이내 어둠을 살피는 불안한 시선처럼 사방으로 움직였다.

그러다 사라졌다가 다시 솟아났고, 그사이 책장의 한쪽 부분 전체가 빙글 돌아가며 아치 모양의 넓은 입구를 드러냈다.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다. 이어 다른 두 명이 나타나 로프 한 뭉치와 여러 가지 도구를 나르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방 안을 살피고 귀를 기울인 뒤 말했다.

"동료들을 불러라."

그 말에 지하 통로로 여덟 명의 동료가 나타났다. 모두 단단한 체격에 의연한 표정의 사내들이었다. 그리고 이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작업은 매우 빨랐다. 아르센 뤼팽은 한 가구를 지나 다른 가구로 옮겨 다니며 그것을 살피곤 했다. 크기가 어떻든, 예술적 가치가 어떻든, 그는 즉석에서 처분을 내렸다.

"치워!"

그러면 그 물건은 치워졌고, 터널이 벌린 거대한 입구로 빨려 들어갔다. 이어 땅속 깊은 곳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해서 루이 15세 양식의 안락의자 여섯 개와 의자 여섯 개, 오뷔송 태피스트리, 구티에르 서명이 든 가지촛대들, 프라고나르 그림 두 점, 나티에 그림 한 점, 우동의 흉상, 그리고 여러 작은 조각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때때로 뤼팽은 화려한 장식장이나 멋진 그림 앞에 멈춰 서서 한숨지었다.

"저건 너무 무거워… 저건 너무 크고… 참 아깝군!"

그러고는 다시 감정을 이어갔다.

사십 분 만에 살롱은 아르센의 표현대로 '말끔히 치워졌다'. 그 모든 일이 놀라우리만치 질서정연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이루어졌다. 마치

그 사내들이 다루는 물건마다 두꺼운 솜으로 감싸여 있기라도 한 듯했다.

그러고서 그는 불(Boulle) 서명이 든 괘종시계를 들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하에게 말했다.

"돌아올 필요 없어. 차에 짐을 싣고 나면 바로 로크포르 창고로 향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사장님은요?"

"오토바이는 내게 남겨두고."

남자가 떠나자, 그는 책장의 움직이는 판을 벽에 바짝 붙여 밀어 닫았다. 그리고 이사 흔적을 모두 지우고 발자국까지 깨끗이 지운 뒤, 문에 걸린 휘장을 들어 올려 탑과 성을 잇는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 한가운데에는 유리 진열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진열장 때문에 아르센 뤼팽은 조사를 계속해 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보물들이 가득했다. 시계, 코담뱃갑, 반지, 샤틀렌(허리띠 장신구), 그리고 더없이 정교하게 만든 미니어처 그림들까지, 둘도 없는 진귀한 수집품이었다.

뤼팽은 집게로 자물쇠를 부수어 열었다. 금과 은으로 된 이 보석들, 그토록 값지고 섬세한 이 작은 예술품들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그는 이런 횡재를 담으려고 특별히 만든 넓은 천 자루를 목에 어깨걸이로 두르고 있었다. 그는 그 자루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재킷과 바지, 조끼 주머니까지 모두 채워 넣었다. 이어 그는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아꼈고 요즘 유행이 다시 그토록 열렬히 찾는, 진주 구슬로 만든 손가방 더미를 왼팔로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가벼운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가 기억해냈다. 복도 끝자락에 안쪽 계단이 있었다. 그 계단은 지금까지 비어 있던 방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밤부터 드반이 당드롤 부부와 함께 디에프에서 데려온 그 젊은 여자를 위해 마련해 둔 곳이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손전등의 스프링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불이 꺼졌다.

그가 막 창문 틀 우묵한 곳에 다다랐을 때, 계단 위에서 문이 열렸다. 약한 빛이 복도를 비췄다.

그는 커튼 뒤로 반쯤 숨어 있어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내려와 방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섰다. 그러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멈췄다. 아마도 유리 진열장이 깨져 있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이 거의 다 없어진 것을 본 모양이었다.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가 한 명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옷자락이 그를 숨겨준 커튼에 거의 스칠 듯했다. 그는 그 여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어둠 속, 손이 닿을 만한 곳, 자기 등 뒤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무서워하고 있어… 곧 떠날 거야… 떠나지 않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손에 든 촛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가 몸을 돌렸다. 잠시 망설이며 무서운 정적에 귀 기울이는 듯하더니, 한순간에 커튼을 걷어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르센은 충격에 휩싸여 속삭였다.

"당신… 당신… 아가씨."

넬리 양이었다.

넬리 양! 대서양 횡단선 승객이었던 넬리 양. 잊을 수 없는 항해 동안 그 젊은이의 꿈과 자신의 꿈을 섞었던 사람, 그의 체포를 지켜보면서도 배신하기보다 바다에 보석과 지폐가 숨겨진 카메라를 던지는 우아한 선택을 했던 사람.

수감 생활의 긴 시간을 슬픔으로나 기쁨으로 채워주던, 그 사랑스럽고 미소 짓는 여인의 이미지.

이 밤, 이 성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된 우연은 너무도 경이로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서로에게 나타난 환상 같은 존재에 홀린 듯, 두 사람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리가 후들거린 넬리 양은 결국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차츰 깨닫게 되었다. 팔에는 장신구가 가득했고, 주머니는 불룩했으며, 가방은 터질 듯이 가득 찼다.

그는 큰 당혹감에 휩싸였고, 현행범으로 붙잡힌 도둑의 그 추한 꼴로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 그녀에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이었다.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자, 자물쇠를 따고 몰래 숨어드는 자.

시계 하나가 카펫 위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시계도 그 뒤를 이었다. 그의 팔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물체가 더 많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쓸 뿐이었다. 그러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급하게 안락의자에 물건들을 내려놓았고, 주머니를 비웠으며, 가방도 벗어 던졌다.

그제야 넬리 앞에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려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넬리는 몸을 움츠리며 물러섰다. 그리고는 놀란 듯 벌떡 일어나 거실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커튼이 그녀를 감싸며 닫혔고, 그는 곧장 그녀를 따라갔다.

거실 안, 넬리는 경직된 채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황폐해진 거실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세 시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가구들도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금 되물었다.

"내일 오후 세 시,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저를 막지 못할 겁니다. 내일, 오후 세 시에."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감히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고, 소녀의 떨리는 모습은 그에게 진정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그녀에게서 물러났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떠나기를…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다고 느끼기를… 나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몸을 떨며 더듬거렸다.

"들어 봐요… 발소리예요…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요."

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위험이 닥쳐올 때처럼 크게 동요해 있었다.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설령 들린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쳐야 해요… 빨리, 도망치세요…"

"도망치다니… 왜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단숨에 갤러리 입구까지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그 소리는 밖에서 난 것일까?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안심하고 돌아섰다.

아르센 뤼팽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드반이 자기 성이 약탈당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벨몽이 저지른 짓이다. 그리고 벨몽은 다름 아닌 아르센 뤼팽이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고, 달리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드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다. 벨몽이 벨몽이 아니라는 것, 즉 그가 유명 화가이자 사촌 드스테반의 사교 모임 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통보를 받은 헌병 부사관이 도착했을 때에도, 드반은 이 터무니없는 추측을 그에게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티베르메닐에서는 아침 내내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산스러운 왕래가 이어졌다. 헌병들, 농촌 순경, 디에프 경찰서장, 마을 주민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복도와 정원, 성 주변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다. 훈련 중인 부대가 다가오고 총성이 요란하게 터지는 소리는 그 광경에 한층 극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첫 수사는 아무 단서도 내놓지 못했다. 창문이 깨지지도, 문이 부서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 없이 비밀 통로로 짐을 옮긴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카펫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벽에도 이상한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유일하게 예상치 못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아르센 뤼팽 특유의 장난기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그 유명한 16세기 연대기가 다시 원

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그 옆에는 똑같은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다름 아닌 국립도서관에서 훔쳐낸 바로 그 책이었다.

열한 시가 되자 장교들이 도착했다. 드반은 그들을 유쾌하게 맞이했다. 이런 예술적 보물들을 잃은 것이 다소 속상하긴 했지만, 넉넉한 재산 덕분에 그는 언짢아하지 않고도 그 손실을 견딜 수 있었다. 그의 친구인 당드롤 부부와 넬리도 아래로 내려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손님 한 명이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 오라스 벨몽이 없었다. 그는 오지 않으려는 걸까?

그의 부재는 조르주 드반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뻔했다. 하지만 정각 정오가 되자 그가 들어섰다. 드반이 외쳤다.

"마침 잘 왔네! 드디어 나타났군!"

"내가 시간을 어겼나?"

"네, 하지만 그렇게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뒤라면 시간을 못 맞췄을 법도 한데요! 그 소식은 들으셨겠죠?"

"무슨 소식?"

"당신이 성을 털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이라니까요. 하지만 우선 언더다운 양에게 팔을 내드리고 식탁으로 가시죠… 아가씨, 실례지만…"

그는 젊은 여자의 동요한 모습에 놀라 말을 멈췄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지, 그러고 보니 당신은 예전에 아르센 뤼팽과 함께 여행했었죠. 그가 체포되기 전에 말입니다. 닮은 모습이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맞은편에서 벨몽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자리로 안내하고 그 맞은편에 앉았다.

점심 시간 내내 대화는 오직 아르센 뤼팽, 사라진 가구들, 지하 통로, 그리고 헐록 숌즈 이야기로 가득 찼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야,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던 찰나에 오라스 벨몽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유쾌하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했으며, 말솜씨도 뛰어나고 재치도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마치 그 젊은 아가씨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커피는 정면 파사드 쪽으로 안뜰과 프랑스식 정원을 내려다보는 테라스에서 나왔다. 잔디밭 한가운데서 연대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농부들과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공원 산책로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그런데 넬리는 아르센 뤼팽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세 시가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될 거야. 내가 보장해."

세 시!

오른쪽 별관을 장식한 큰 시계의 바늘이 두 시 사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벨몽도 바라보았다. 그는 편안한 로킹 체어에 몸을 맡기고 여유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시 오십 분…… 두 시 오십 오분……

어떤 조바심과 불안이 섞인 감정이 그녀를 조여왔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정확히 정해진 그 시각에? 성 안은 물론 마당과 시골 들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바로 그 순간에도 검사와 예심판사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말이다. 아르센 뤼팽은 그토록 엄숙하게 약속을 했건만.

'그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기세와 권위, 그리고 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그 일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사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세 시였다. 첫 번째 종소리가 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라스 벨몽은 회중시계를 꺼내 큰 시계를 올려다본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몇 초가 흘렀다.

그때, 잔디밭 주변으로 군중이 갈라졌다. 공원 정문을 통과해 온 두 대의 마차가 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각각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였다. 연대를 따라다니며 장교들의 군용 트렁크와 병사들의 배낭을 실어 나르는, 바로 그런 수송 마차였다.

마차들은 현관 계단 앞에 멈췄다. 병참 중사 한 명이 좌석에서 뛰어내려 드반 씨를 찾았다.

드반은 달려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천막 아래에는 그의 가구와 그림, 미술품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잘 싸여 있었다.

사람들이 묻자 병참 중사는 자신이 받은 명령서를 내보이며 답했다. 그 명령서는 당직 준위가 아침 점호 보고 때 받아온 것이었다.

명령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4대대 제2중대가 아르크 숲의 할로 교차로에 놓여 있는 가재도구를 오후 세 시에 티베르메니르 성의 소유주인 조르주 드반 씨에게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서명자는 보벨 대령.

"교차로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사가 덧붙였다. "잔디 위에 일렬로 늘어놓여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명령은 분명했으니까요."

장교 한 명이 서명을 살펴봤다. 완벽하게 모사된 것이었지만, 가짜였다.

군악대가 연주를 멈추자, 사람들이 수송 마차를 비우고 가구를 제자리로 들여놓았다.

소동 한가운데, 넬리는 테라스 끝자락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진지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굳이 정리하려 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마음이 일렁였다.

그때 갑자기 벨몽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테라스를 두른 난간 모서리가 양쪽에서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고, 오렌지나무와 협죽도, 대나무를 심은 커다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어, 젊은이가 걸어오는 길 말고는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햇살 한 줄기가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 위에서, 대나무의 여린 잎사귀에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밤의 약속을 지켰소."

아르센 뤼팽이 그녀 곁에 서 있었고, 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망설이는 자세로, 수줍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지난밤의 약속을 지켰소."

그는 감사의 말이라도, 적어도 그녀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몸짓이라도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 경멸에 아르센 뤼팽은 화가 났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자신과 넬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변명하고, 핑계를 찾고, 자신의 삶이 지닌 대담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미리부터 그를 거북하게 했고, 어떤 설명도 부질없고 뻔뻔하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추억의 물결에 휩싸인 채 슬프게 속삭였다.

"과거는 참으로 멀어졌군요. 프로방스 호 갑판에서 보낸 그 긴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때도 당신은 지금처럼 손에 장미를 들고 있었죠. 이 장미처럼 창백한 장미를요…… 제가 그걸 달라고 청했지만…… 당신은 못 들은 듯하셨죠…… 그래도 당신이 떠난 뒤, 저는 그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잊고 가셨겠지요…… 저는 그걸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알게 된 사실은 잊어 주십시오. 과거가 현재와 이어지기를! 제가 지난밤 당신이 본 그 사람이 아니라 옛날의 그 사람이게 해 주시고, 당신의 눈이, 단 일 초라도 좋으니, 예전에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저를 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닌가요?"

그녀는 그의 청대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검지에 끼고 있던 반지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반지는 고리 부분만 보일 뿐이었지만, 안쪽으로 돌려진 알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루비가 박혀 있었다.

아르센 뤼팽은 얼굴을 붉혔다. 그 반지는 조르주 드반의 것이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한번 그러했던 것은 영원히 그러하겠죠. 아르센 뤼팽은 아르센 뤼팽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없으니, 당신과 그 사이에는 추억조차 있을 수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욕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모자를 손에 든 채 난간을 따라 옆으로 비켜섰다. 넬리가 그 앞을 지나쳤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애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먼 옛날 그녀가 뉴욕 부두의 승강대를 건너던 그날처럼 그는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넬리는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잠시 동안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이 현관 홀의 대리석들 사이로 또렷이 드러났다. 하지만 곧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 아르센 뤼팽은 움직이지 않은 채 모래 위에 남은 작은 발자국을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흠칫했다. 넬리가 기

대어 섰던 대나무 화분 위에, 그가 감히 달라고 청하지 못했던 창백한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것 역시 잊고 간 걸까? 그런데 일부러 두고 간 걸까, 아니면 무심코 그런 걸까?

그는 그 장미를 격정적으로 움켜쥐었다. 꽃잎이 몇 장 떨어졌다. 그는 그 꽃잎들을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되는 듯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자, 이제 여기서 할 일은 없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물러날 때야. 게다가 헐록 숌즈까지 끼어들면 일이 고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공원은 한산했다. 하지만 입구를 지키는 정자 근처에는 헌병들 한 무리가 서 있었다. 그는 덤불 속으로 파고들어 담장을 넘은 뒤,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려고 들판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오솔길로 들어섰다. 채 십 분도 걷지 않아 길은 양쪽 비탈 사이로 좁아졌고, 그 좁은 길목에 들어서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오십 전후로 보이는 남자였다. 몸집이 꽤 컸고, 얼굴은 깨끗이 면도해 두었으며, 옷차림에서 이방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무거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고, 목에는 가죽 가방이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마주쳤다.

이방인이 영어 억양이 희미하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성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곧장 가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성벽 아래에 이르면 왼쪽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다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 친구 드반이 어젯밤부터 당신의 방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드반 씨가 입이 너무 가벼웠다면 안된 일이군요."

"그리고 저는 당신께 제일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헐록 숌즈를 저보다 더 열렬히 흠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그 말을 후회했다. 헐록 숌즈가 그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그 시선은 휘감는 듯하면서도 어찌나 날카로운지, 아르센 뤼팽은 그 어떤 사진기로 찍힌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본질적으로 그 눈빛에 사로잡히고, 갇히고, 기록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진이 찍혔군.』

그가 생각했다.

『이런 자 앞에서는 변장 따위 더 이상 소용없겠어. 다만…… 나를 알아챈 걸까?』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쇳소리를 내며 뛰노는 말발굽 소리였다. 바로 헌병들이었다.

두 사람은 떠밀리지 않으려고 키 큰 풀이 우거진 비탈에 바짝 붙어 섰다. 헌병들이 지나갔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잇따라 지나갔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뤼팽은 생각했다.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 그가 나를 알아봤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십중팔구 이 상황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정말 답답한 문제다.'

마지막 기수가 두 사람을 지나쳐 간 뒤, 헐록 숌즈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먼지가 묻은 옷을 털었다. 가방 끈에는 가시나무 가지가 걸려 있었다.

아르센 뤼팽이 재빨리 다가가 가지를 떼어냈다.

그들은 단 한 순간 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만약 누군가가 이 순간을 지켜봤다면, 두 남자의 첫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기묘했고, 강렬한 능력을 지녔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남들보다 한 수 위였다. 특히 그들의 특별한 재능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을 충돌하게 만들었다. 마치 세상의 질서가 두 개의 동등한 힘을 서로 부딪치게 하듯, 공간 너머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때 영국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말씀을요. 무엇이든 도와드리지요." 뤼팽이 답했다.

그들은 헤어졌다. 뤼팽은 역 쪽으로, 숌즈는 성 쪽으로 향했다.

예심판사와 검사가 헛된 수색을 마치고 떠난 뒤, 사람들은 헐록 숌즈의 도착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의 명성은 그런 기대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했다.

하지만 정작 모습을 드러낸 그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 놓았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신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신비롭고 악마적인 소설 속 영웅으로 상상해 왔건만, 실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드반은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오셨군요, 선생님! 정말 기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당신을 뵙게 되었으니,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차로 왔지."

"저런, 아쉽군요! 하역장으로 제 자동차를 보내 드렸는데요."

"공식적인 방문이군요. 북과 악대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제 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영국인이 투덜거렸다.

이토록 냉담한 어조는 드반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어색하게 농담을 섞으며 재차 말했다.

"다행히 일은 제가 편지에 썼던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요?"

"도난 사건이 바로 오늘 밤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방문할 거라고 미리 알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도난은 오늘 밤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언제요?"

"내일이나 다른 날이었겠죠."

"그랬다면요?"

"뤼팽이 함정에 빠졌을 겁니다."

"그럼 제 가구는요?"

"도난당하지 않았겠죠."

"제 가구는 여기 있습니다만."

"그 가구들은 세 시에 되돌아왔습니다."

"뤼팽이 가져왔습니까?"

"군용 짐마차 두 대가요."

헐록 숌즈가 모자를 머리 깊숙이 눌러쓰며 가방을 다시 매만졌다.

하지만 드반은 안절부절못하며 외쳤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떠나는 겁니다."

"왜요?"

"여기 가구는 이미 있고, 아르센 뤼팽은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어제 일어난 일이 내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뤼팽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으며, 그 몇 시간 후에 왜 그 물건을 돌려놓았는지 말입니다."

"아, 당신은 모른다는 거요…"

발견해야 할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헐록 숌즈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좋소. 찾아봅시다. 하지만 빨리, 그렇죠?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둘만."

그 문장은 분명히 참석자들을 지목하는 것이었다. 드반은 그 뜻을 이해하고는 영국인을 거실로 안내했다.

숌즈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미리 준비한 듯, 그리고 아주 아끼는 듯 짧은 문장들로 말이다.

어제 밤의 상황, 참석했던 손님들, 그리고 성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더니, 이어 『연대기』 두 권을 꺼내들었다. 그는 지하 통로의 지도를 비교하고, 아베 젤리스가 찾아낸 인용구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물었다.

"이 두 인용구를 처음 언급한 게 바로 어제 맞습니까?"

"오라스 벨몽 씨에게 그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전혀요."

"좋습니다. 자동차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1시간 후에 떠납니다."

"1시간 후에요?"

"아르센 뤼팽도 당신이 던진 문제를 푸는 데 그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야! 내가 그에게 물었지……"

"그래, 아르센 뤼팽과 벨몽은 같은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 후, 이 괘씸한 놈!"

"어제 밤 열 시, 당신은 뤼팽에게 그가 수주째 찾아 헤매며 필요로 하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소. 그날 밤, 뤼팽은 그 단서를 이해하고,

패거리를 불러 모으고, 당신을 털어 갈 시간을 충분히 가졌지. 나도 그 정도는 빠르다고 자부하오."

그는 방 안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오가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러곤 자리에 앉아 긴 다리를 꼬고 눈을 감았다.

드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기다렸다.

'잠든 걸까, 아니면 생각에 잠긴 걸까?'

어쨌든 그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는 갤러리 계단 아래에서 숍즈가 무릎을 꿇고 카펫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오?"

"보세요. 거기, 양초 자국들이요."

"아, 정말이네요. 아직 선명하군요."

"계단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뤼팽이 깨뜨린 유리 진열장 주변에는 더 많아요. 그는 장식품들을 꺼내 이 안락의자에 올려놓았죠."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요. 이 모든 사실은 분명 그가 물건을 돌려놓은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다룰 시간이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지하 통로의 경로입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가요?"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성에서 이삼백 미터 떨어진 곳에 예배당이 있죠?"

"폐허가 된 예배당입니다. 롤로 공작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운전기사에게 그 예배당 근처에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세요."

"운전기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려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선생님은 그 지하 통로가 예배당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군요. 무슨 단서로…"

헐록 숌즈가 그의 말을 끊었다.

"선생님, 사다리와 등불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아, 사다리와 등불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는 거지요."

이 무뚝뚝한 논리에 드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종을 울렸다. 두 물건이 곧장 도착했다.

이제 명령이 군대의 호령처럼 정확하고 엄격하게 이어졌다.

"이 사다리를 서가 왼쪽, '티베르메니'라는 글자 옆에 대 주세요…"

드반이 사다리를 세우자, 영국인이 말을 이었다.

"왼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멈춰!… 올라가… 좋아. 이 단어의 모든 글자가 돌출되어 있죠?"

"H글자에 집중합시다. 이 글자는 어느 쪽으로 돌아가나요?"

드반은 H글자를 잡더니 외쳤다.

"맞아요, 돌아가네요! 오른쪽으로, 사분원만큼이나요! 누가 그걸 알려준 거죠?"

대꾸 없이 헐록 숌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자리에서 R글자에 닿을 수 있나요? 네… 그걸 여러 번 움직여 보세요. 빗장을 밀었다 당기듯 하죠."

드반이 R글자를 움직였다. 그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내부에서 무언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완벽하군요." 헐록 숌즈가 말했다. "이제 사다리를 다른 쪽 끝, 즉 '티베르메니'라는 단어의 끝부분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계산이 맞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L'자가 창살 문처럼 열릴 것입니다."

조금 긴장한 듯 드반이 'L'자를 잡았다. 'L'자가 열렸지만, 드반은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졌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사이의 책장 전체가 빙글 돌아서, 지하 통로의 구멍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헐록 숌즈는 태연하게 물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드반이 일어나며 말했다. "다친 데는 없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인정해야겠네요. 자꾸 움직이는 글자들, 그리고 드러난 지하 통로라니…"

"그러고 나서요? 그건 쉴리의 인용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보세요. H가 회전하고, R이 떨리며, L이 열리죠. 바로 그 덕분에 앙리 4세가 한밤의 색다른 시각에 탕카르빌 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루이 16세는요?" 드반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루이 16세는 뛰어난 대장장이였고 자물쇠 제조에도 능했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그가 지었다는 '조합식 자물쇠에 관한 논고'라는 책도 있더군요. 티베르메니가 주군에게 이 기계 장치의 걸작을 보여 준 것은, 훌륭한 신하다운 처신이었죠. 참고로 왕은 2-6-12라고 적었는데,

이는 H, R, L, 즉 단어의 두 번째, 여섯 번째, 열두 번째 글자를 뜻합니다."

"아, 완벽하군요.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알겠는데, 뤼팽이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는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요."

헐록 숌즈가 등불을 켜고 지하 통로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다.

"여기 봐요. 모든 장치가 다 드러나 있죠. 시계의 태엽처럼요. 글자들도 전부 거꾸로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 뤼팽은 칸막이벽 이쪽에서 글자들을 조작하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란 말이오?"

"증거라니요? 이 기름 웅덩이를 보시오. 뤼팽은 톱니바퀴에 기름칠이 필요하리란 것까지 미리 내다봤던 거요." 숌즈가 감탄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출구도 알고 있었단 말이오?"

"내가 아는 것처럼 말이지요. 따라오시오."

"지하 통로로요?"

"무서우신가요?"

"아니, 정말 거기가 맞다고 자신하십니까?"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열두 계단을 내려갔다. 이어 또 열두 계단, 그리고 다시 두 번에 걸쳐 열두 계단씩을 더 내려갔다. 그러자 벽돌 벽에는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한 흔적이 남아 있고, 곳곳에서 물기가 스며 나오는 긴 복도가 나타났다. 바닥은 축축했다.

"우리가 연못 밑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반이 안심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도는 열두 계단의 계단으로 끝이 났고, 이어 또 다른 열두 계단의 계단이 세 개 이어졌다. 그들은 애써 그 계단을 올라 작은 동굴 같은 공간으로 나왔다. 바위를 파서 만든 그 공간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끝자락이었다.

"음, 곤란하군." 헐록 숌즈가 중얼거렸다. "벽만 남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소. 나는 충분히 깨달았으니까." 드반이 속삭였다.

하지만 고개를 든 영국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위에서도 입구에서와 똑같은 장치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 글자를 조작하기만 했다. 거대한 화강암 블록이 기울어졌다. 반대쪽에는 '티베르메니르'라는 열두 글자가 입체적으로 새겨진 롤롱 공작의 묘비가 보

였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인이 지목했던 작은 폐허가 된 예배당 안에 서 있게 되었다.

"'하나님까지 간다', 즉 예배당까지 가는 거요." 영국인이 인용문의 끝부분을 되짚으며 말했다.

"정말 가능하단 말입니까?" 드반이 탄식했다. 헐록 숌즈의 통찰력과 민첩함에 압도된 그는 물었다. "그런 단서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오히려 필요 없었죠." 영국인이 말했다. "국립도서관의 그 책에는 왼쪽 끝이 원으로 끝나 있죠. 아시다시피요. 오른쪽 끝은 작은 십자가로 끝나는데, 그건 너무 지워져서 돋보기로나 봐야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을 의미하죠."

불쌍한 드반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기적 같으면서도, 어린애 장난처럼 단순하군요! 어째서 지금껏 아무도 이 비밀을 풀지 못했을까요?"

"필요한 서너 가지 단서, 그러니까 두 권의 책과 인용구들을 한데 모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르센 뤼팽과 저만 빼고는요."

"하지만 저 역시요." 드반이 반박했다. "게리스 신부도요. 우리 둘 다 당신만큼이나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숌즈가 미소 지었다.

"드반 씨, 누구나 수수께끼를 푸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십 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십 분 만에…"

"아, 습관일 뿐이죠."

그들은 예배당을 나섰다. 그때 영국인이 외쳤다.

"어,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네요!"

"내 차가 맞아요!"

"당신 차라고요? 운전기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차 쪽으로 다가가자, 드반이 운전사를 불렀다.

"에두아르, 누가 여기로 오라고 했나?"

"벨몽 씨가 시켰습니다."

"벨몽 씨? 그분을 만났다고?"

"역 근처에서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당으로? 대체 왜?"

"예, 기다리라고요. 선생님과 선생님의 친구분을요."

드반과 헐록 숌즈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드반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수수께끼가 당신에게는 장난이나 다름없으리라는 걸 알았던 거죠. 섬세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탐정의 가느다란 입술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일그러졌다. 그 찬사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단한 인물이오. 게다가 한 번 보기만 하고도 나는 그를 알아봤소."

"그럼 그를 보셨단 말입니까?"

"방금 마주쳤소."

"그리고 그가 오라스 벨몽, 그러니까 아르센 뤼팽이라는 걸 아셨다고요?"

"아니오. 하지만 곧 알아차렸소. 그의 말투에 묻어나는 특유의 냉소를 보고 말이오."

"그런데도 그를 놓쳐버렸다고요?"

"뭐, 그렇소… 사실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오… 마침 헌병 다섯 명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젠장! 그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잖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선생님." 영국인이 위엄 있게 말했다. "아르센 뤼팽 같은 상대라면, 헐록 숌즈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뤼팽이 친절하게도 자동차를 보내주었으니 지체 없이 이용해야 했다. 드반과 헐록 숌즈는 안락한 리무진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에두아르가 시동을 걸자 차가 출발했다. 들판과 무리 지은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코(Caux) 지역의 부드러운 구릉이 그들 앞에서 차츰 평평해졌다.

그때 드반의 시선이 한쪽 수납함에 놓인 작은 소포 하나에 끌렸다.

"저건 뭐지? 소포잖아? 누구 거지? 아, 이건 당신 거군요."

"나한테요?"

"읽어 보세요. '헐록 숌즈 씨께, 아르센 뤼팽 보냄.'"

영국인은 소포를 받아 끈을 풀고, 감싸고 있던 종이 두 장을 걷어냈다. 그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다.

"아!" 그가 화가 난 듯한 몸짓과 함께 외쳤다.

"시계요?" 드반이 말했다. "혹시 그 시계가……?"

영국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에, 바로 당신의 시계잖습니까! 아르센 뤼팽이 당신의 시계를 돌려보내다니요. 하지만 돌려보낸다는 건, 그가 먼저 훔쳐갔다는 뜻이죠. 그가 당신의 시계를 훔쳤다고요! 하하, 이거 참 걸작이군요. 헐록 숌즈의 시계를 아르센 뤼팽이 감쪽같이 슬쩍하다니! 세상에, 정말 우습네요. 아니, 진심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도무지 참을 수가 없군요."

그는 배를 잡고 크게 웃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듯했다. 그리고 한참 웃은 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내군요."

영국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디에프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선은 멀어져 가는 지평선에 고정된 채였다. 그의 침묵은 무서웠다. 헤아릴 수 없이 깊었다. 가장 사나운 분노보다 더 격렬했다.

선착장에서 그는 짤막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분노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조에는 그 인물의 모든 의지와 기개가 담겨 있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한 사내죠. 그리고 저는 그 사내의 어깨 위에, 지금 당신에게 내미는 이 손을 올려놓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드반 씨. 그리고 말입니다, 제 생각엔 아르센 뤼팽과 헐록 숌즈가 언젠가 다시 마주칠 것 같군요. 네, 세상은 너무 좁아서 그 둘은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